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 연구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유 아 신(劉亞辛)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 연구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윤대석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유아신

유아신의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원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원 \_\_\_\_\_ (인)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역사주의 관점에서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소설을 읽는 원리를 탐구하고자 하며, 그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사회·역사적 맥락을 활용하여 한국 소설을 읽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역사적 맥락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한국 현대소설 읽기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신역사주의 관점에서 사회·역사적 맥락의 개념을 재개념화하였다. 사회·역사적 맥락은 특정한 시대에 같은 문화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주체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상황, 가치와 신념, 이데올로기, 관습, 문화적 규칙 등 추상적 구성물이 텍스트를 통해 내·외적 맥락과 상호소통하여 재구축된 결과물이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사회·역사적 맥락 구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읽기의 원리를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적 정보의 포착', '텍스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소통', '텍스트 의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재구성'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이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텍스트 이해 능력 신장, 문학과 역사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형성, 텍스트의 당대적 가치를 탐구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겪었던 유사한 역사적 시기를 그리며 사회·역사적 정보가 풍부한 중국인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작품', '중국인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맞고 어렵지 않은 작품',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는 작품', '문학사에서 정전(正典)이 되는 작품', '난이도와 분량이 적절한 단편 작품' 등 기준에 따라 <고향>, <사랑손님과 어머니>, <날개>를 실험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실험은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현대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어떤 사회·역사적 맥락을 활용하는지, 텍스트와의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소설을 통해 사회·역사적 맥락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중국인 학습자의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의 한국 현대소설 이해 양상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정리하였다. 먼저,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적 정보의 포착’ 양상에서 학습자는 텍스트 내의 언어적, 언어외적 정보를 활용하였다. 다음에, ‘텍스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소통’ 양상에서는 학습자가 거시적 한국 역사와 자국 역사를 비추면서 텍스트와 대화하였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의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재구성’ 양상에서는 학습자가 소통 결과를 통합하여 사회·역사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는 반응이 나타나며 텍스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학습자가 보인 부정적인 이해 양상에 대해서 분석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소설을 이해하는 데 겪는 난점을 ‘한국 사회·역사에 대한 지식 부족’, ‘현 사회·역사의 시각에 과도한 의존’, ‘거시 한국 역사의 절대적 적용’으로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양상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고안하였다. 먼저 중국인 학습자가 사회·역사적 관점에서 한국 현대소설을 읽을 수 있고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내용으로는 ‘텍스트의 사회·역사적 구조 인지’, ‘관련된 사회·역사적 지식을 재구성’, ‘비교를 통한 텍스트 해석과 역사 감각의 심화’를 제시하였다.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방법으로는 ‘협력 학습을 통한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적 정보 파악’, ‘역사적 자료 제공과 역사적 지식 검색’, ‘핵심 질문을 통한 텍스트와 사회·역사적 지식 비교’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현대소설교육에서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소설을 이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습자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확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 인식을 구축하고 통합적인 역사 감각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역사와 문학 이해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수업 과정까지 구성하지 못했

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핵심어: 한국어교육, 사회·역사적 맥락, 한국 현대소설, 신역사주의,  
맥락 소통, 맥락 구성.

학번: 2020-27083



# 목 차

I. 서론 .....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2. 연구사 .....	4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11
II.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의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이론적 배경 .....	23
1. 사회·역사적 맥락의 재개념화 .....	23
2.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의 한국 현대소설 읽기 원리 .....	34
(1)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적 정보의 포착 .....	37
(2) 텍스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소통 .....	39
(3) 텍스트 의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재구성 .....	42
3.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의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의의 .....	44
(1)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텍스트 이해 능력 신장 .....	44
(2) 문학과 역사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형성 .....	46
(3) 텍스트의 당대적 가치 탐구 .....	48
III.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의 한국 현대소설의 읽기 양상 .....	50
1.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적 정보의 포착 .....	50
(1) 언어적 수준의 사회·역사적 정보 .....	51
(2) 언어 외적 수준의 사회·역사적 정보 .....	54
2. 텍스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소통 .....	62
(1) 거시 한국 역사와의 조화 .....	62
(2) 자국 역사와의 비교 .....	66
3. 텍스트 의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재구성 .....	72
(1) 사회·역사에 대한 재인식 .....	73
(2) 텍스트 의미에 대한 재구성 .....	77

4. 학습자의 소설 읽기 양상에 나타난 한계 .....	80
(1) 한국 사회·역사에 대한 지식 부족 .....	81
(2) 현 사회·역사의 시각에 대한 과도한 의존 .....	83
(3) 거시 한국 역사의 절대적 적용 .....	87
IV.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의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설계 .....	91
1.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의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목표 .....	91
2.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의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내용 .....	94
(1) 텍스트의 사회·역사적 구조 인지 .....	95
(2) 관련된 사회·역사적 지식을 재구성 .....	97
(3) 비교를 통한 텍스트 해석과 역사 감각의 심화 .....	98
3.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의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방법 .....	101
(1) 협력 학습을 통한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적 정보 파악 .....	102
(2) 역사적 자료 제공과 역사적 지식 검색 .....	104
(3) 핵심 질문을 통한 텍스트와 사회·역사적 지식 비교 .....	108
V. 결론 .....	111
참고문헌 .....	115
Abstract .....	121

## 표 목 차

표 1 텍스트 선정 기준(윤영) .....	11
표 2 텍스트 선정 기준(윤여탁) .....	12
표 3 텍스트 선정 기준(장정숙) .....	13
표 4 텍스트 선정 기준(조홍련) .....	14
표 5 일반적인 텍스트 선정 기준 .....	14
표 6 본 연구의 텍스트 선정 기준 .....	15
표 7 가능한 작품 목록 .....	16
표 8 실험정보 .....	20
표 9 맥락의 범주화 방식 .....	25
표 10 사회·역사적 정보 파악을 위한 협력 학습 활동 .....	103

## 그림 목 차

그림 1 한옥 구조도 .....	107
-------------------	-----



# I. 서론

##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역사주의 관점에서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소설을 읽는 원리를 탐구하고자 하며, 그를 바탕으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사회·역사적 맥락을 활용하여 한국 소설을 읽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역사적 맥락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한국 현대소설 읽기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문화적 산물 가운데 문학과 같이 자아 성찰이 가능한 매개체가 없으며, 문학은 언어로 쓰이는 자료로서 한국어교육 목표 중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콜리(J. Collie)와 슬레이터(S. Slater)는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작품의 효용성 4가지를 언급하였는데 문학 작품은 가치가 있는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문화적인 풍요화와 더불어 언어적인 풍요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개인적 연관을 통해 고급 언어 능력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였다.<sup>1)</sup> 한국 문학 장르 중의 하나인 현대소설은 한국 현대 사회의 문화와 역사, 정치, 경제 등 정보를 포함하며 학습자와 공시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생존하기 때문에 현대 한국인의 삶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고전 문학에 비해 작품의 현실성과 대중성은 현대소설의 장점이자 강점이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현대소설을 통해서 생생한 한국의 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

문학의 소통은 맥락을 벗어날 수 없으며, 문학 작품의 의미는 그것을 둘러싼 맥락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문학의 생산 관점에서 작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사회·문화적인 상황, 작가가 살고 있는 시대적 배경 등 다양한 맥락 속에 얽혀 있고, 문학의 수용 관점에서 독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이 작품을 읽고 있는 실제 상황, 개인적 경험,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 배경 등 그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

1) J. Collie & S. Slater,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p.3-6.

고려하여 감상하게 된다.<sup>2)</sup> 이러한 맥락의 중요성으로 인해 맥락에 주목한 문학교육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특히 한국인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체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활용한 소설교육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는 문화를 비교적 항구적이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관점은 특정 사회나 그룹의 신념, 가치, 행동 등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그 기본적인 특징이나 구조는 시간이 지나도 큰 변화 없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문화의 역사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사회·역사적 맥락은 특정 사회나 그룹의 문화적 특징이 항상 일정하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역사화되며 변화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역사적으로 문화를 보는 것은 문화 현상이 단순히 과거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협상되고 변화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소설을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현대의 외국인 학습자와 작품의 시공간적 거리가 멀 경우, 학습자가 한국의 역사를 모르면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수많은 맥락 중 사회·역사적 맥락은 특정한 시대에 같은 문화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주체들이 공유하는 사회·역사적 상황, 가치와 신념, 이데올로기, 관습, 문화적 규칙 등에 관련된 맥락이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있어, 한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역사적 맥락에 주목하여 한국 현대소설교육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의 중국에서 진행되어왔던 한국문학 교육의 기본 방법은 작품을 한글자씩 혹은 한 구절씩 해독하고 작품의 주제를 토론하는 것이다.<sup>3)</sup> 이런 환경에서 작품에 관한 역사 지식은 배경으로서 교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간단하게 학습자에게 전달될 뿐이다.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제시하고 텍스트를 단순한 역사의 반영으로 해석하며 역사와 문학의 상호관계를 제

2) 반소현, 「맥락 중심 문학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15쪽.

3) 南燕, 「中國的韓國文學教育現狀與文學教育體系的重建」, 『當代韓國』 01, 2022, p.105.

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 학습자는 능동적인 사고력을 형성하지 못한다. 한편, 중국에서 한국 역사 지식은 주로 ‘한국 개황(韓國概況)’이나 ‘한국학(韓國學)’ 등 수업을 통해 소개되며, 학습자가 배우는 한국 역사는 추상적이고 거시적이며 딱딱하다. 이처럼 역사와 소설이 분리된 상태로 교육되는 경우, 학습자가 한국 현대소설과 한국 역사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렵다. 기존의 한국 문학 교육 현장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역사와 문학의 상호관계를 인식하는 새로운 시각인 신역사주의의 도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학 작품은 특정한 시대의 시간, 장소, 관념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학습자는 소설을 통해 당대의 사회·역사를 접할 수 있다. 이것은 신역사주의가 가리키는 ‘텍스트의 역사성(The historicity of texts)’<sup>4)</sup>과 관련이 있다. 소설은 거시적 역사를 서술하는 자료와는 달리 구체적인 사례와 인물을 서술하는 미시적 역사다. 그러므로 다른 사회·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역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소설 내의 미시 역사를 통해 기존의 역사의식이 풍부해질 수 있다. 또한 신역사주의 ‘역사의 텍스트성(The textuality of histories)’<sup>5)</sup>은 문학 작품은 단순히 역사를 반영하고 역사가 배경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역사를 구성하기도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역사와 문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학습자는 텍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역사 맥락을 구성할 수 있고 새로운 사회·역사 맥락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도 있다. 신역사주의의 이 두 가지 관점은 앞서 언급한 본 연구의 목표와 일치하므로 신역사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사회·역사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읽기의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신역사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학습자가 사회·역사적 맥락을 활용하여 한국 현대소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

---

4) S. Greenblatt & G. Gunn, *Redrawing the Boundaries : The Transformation of English and American Literary Studies*,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992, p.410.

5) S. Greenblatt & G. Gunn, 위의 책, p.410.

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텍스트와 사회·역사적 맥락 간의 소통을 통해 텍스트와 역사의 의미를 재구성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국 현대소설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의 어려움을 줄이고 사회·역사적 맥락의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상하고자 한다.

## 2. 연구사

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회·역사적 맥락을 활용한 한국 현대소설의 이해 양상을 분석하고 학습자의 한국문학과 역사 간 역동적인 감각 능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한국 현대소설 교수-학습 내용을 설계하고자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 연구’, ‘역사와 문학을 관련한 교육 연구’,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현대소설 교육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 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문학교육 연구는 많지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현대소설 교육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현대소설을 활용한 언어 기능 교육에 대한 연구들로 유사우(2015), 범충(2016), 오영동(2016)이 있다. 유사우는 소설 「즐거운 나의 집」 원본 및 중국어 번역본을 활용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한국어 추측 표현 교육 방법을 연구하였다.<sup>6)</sup> 범충은 「즐거운 나의 집」의 중역본을 참조하여 한·중 양보 표현의 대응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초·중·고급의 교육용 수업 지도안을 제시하였다.<sup>7)</sup> 오영동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활용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인과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sup>8)</sup>

6) 유사우,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 표현 교육방법 연구 -소설 〈즐거운 나의 집〉 원본 및 중역본을 활용하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7) 범충,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양보 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공지영의 〈즐거운 나의 집〉 원본 및 중역본을 활용하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8) 오영동,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인과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원본 및 중역본을 활용하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지만, 단순한 언어 기능 교육에서 문학작품이 보조 재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문학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차원으로 올라설 수 없다.

현대소설을 활용한 문화교육 연구도 있다. 우가관은 현대소설이 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일상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자가 접근하기 어렵지 않다는 점, 현대소설 속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학습자가 추상적인 가치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학습자가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국 문화와 목표 언어의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문화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등 세 가지 측면으로 현대소설을 활용한 가치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sup>9)</sup> 문화는 시대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적시성 면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문학을 활용하여 가치문화 교육방안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선자는 비교문학 방법을 도입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중 소설 비교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문화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sup>10)</sup> 문학 작품을 언어 능력 신장을 위한 도구로서만 활용하여, 전통적으로 작가 중심 또는 작품 중심의 문학관의 영향을 받아 작품의 고정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문학 교수-학습의 제약에서 벗어나, 문학교육의 가치를 한층 더 발휘하여 문화교육의 매개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현대소설 자체를 한국 문학교육의 제재로 삼은 연구도 있다. 조흥련은 한국어 읽기 교육에 현대소설을 활용하면 언어의 네 가지 기능뿐만 아니라, 언어의 기타 기능과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sup>11)</sup> 이 연구에서는 현대소설과 한국어 읽기 교육

---

9) 우가관, 「현대소설을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 교육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21.

10) 주선자, 「한·중 소설 비교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1) 조흥련,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의 현대소설 활용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의 관계를 고찰하고, 한국어 읽기 교육에 현대소설을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현대소설 작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에 의의가 있다. 황결은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현대소설이 언어교육 또는 문화교육의 보조 자료로만 활용된다는 한계를 지적하였고,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현대소설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통해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대상 언어의 문화와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통합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sup>12)</sup> 또한 현대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이 언어 능력 향상, 문화 지식 습득, 문학 감상 능력 향상 등 세 가지 측면을 균형해야 함을 강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중 비교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현대소설 교육을 수행한 연구도 있다. 장춘매는 문학교육은 단순히 문학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것보다 상호성 있는 다른 텍스트와 비교함으로써 상호간의 내용과 의미를 살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지적하였다.<sup>13)</sup> 안미란은 구체적인 텍스트를 적용하여 한·중 소설 비교를 수업지도 모형으로 설계해 보았다.<sup>14)</sup> 박윤용은 한국어 교육에서 비교문학의 의미와 작품 선정 기준을 고찰한 것을 바탕으로, 비교문학적 접근을 통해 학습자가 비슷한 한국 작품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문학과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sup>15)</sup> 위와 같은 비교문학 차원에서 한국 현대소설 교육을 모색하는 연구들은 한국소설교육에 보다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다문화교류에 입각하여 학습자들이 자국 문학을 활용하여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의의와 한계가 있다. 한국 현대소설

12) 황결, 「한국 현대소설을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문학 통합교육 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13) 장춘매, 「한·중 소설의 비교를 통한 한국어 소설 이해 교육방안 연구-〈운수좋은날〉과 〈낙타상자〉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1, 한·중 인문학회, 2009.

14) 안미란, 「한·중비교를 통한 한국어 문학교육방안 연구-〈사랑손님과 어머니〉와 〈공을 기〉를 중심으로」, 『계레어문학』 5(1), 계레어문학회, 2013.

15) 박윤용, 「한·중 소설 비교를 통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 대상 한국 소설교육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을 활용한 교육방안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 문학교육의 중요성과 효용성, 그리고 소설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 연구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으며, 그 수량 또한 적다. 기존의 교육방안은 언어 기능 교육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소설과 관련된 사회·역사적 상황 등 소설교육의 내용적 요소가 결핍되어 있으며 한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다루는 연구가 아직 적다. 현대소설 교육의 내용은 언어 능력 신장뿐만 아니라, 문학과 문화, 역사 등 기타 여러 측면의 능력 향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본 연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한국의 사회·역사적 상황을 충분히 보여주는 텍스트를 활용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통해 문학과 역사에 대한 이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역사와 문학을 관련한 교육 연구이다. 한국어교육이나 국어교육에서 학습자의 역사 이해에 주목하는 연구는 아직 드물지만, 문학을 활용한 역사문화 교육이 가장 보편적이다. 강소영은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역사문화 교육의 의의와 시의 활용 가치를 강조하였다.<sup>16)</sup> 역사에 주목하여 적당한 시 텍스트의 선정기준을 규명하는 것은 본 연구의 소설 텍스트 선정기준을 도출하는 데에 참고가치가 있다. 유충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를 활용해 한국어 역사문화 교육 방안을 설계해 보았다.<sup>17)</sup> 신윤경은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시를 활용한 일제 강점기 역사문화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sup>18)</sup> 이준영은 친일과 일제강점기 시대 문학을 중심으로 한국어 문화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근대 문학 작품을 분석하였다.<sup>19)</sup> 그의 분석 결과에 따라 당시의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인들이 받던 고통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당시 한국인

- 
- 16) 강소영, 「시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법 연구-역사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한국문예창작학회, 제15권, 2016, 267-292쪽.  
 17) 유충, 「시를 활용한 한국어 역사문화 교육 방안」,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18) 신윤경, 「문학을 활용한 일제 강점기 역사문화 교육-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7권, 2010, 219-237쪽.  
 19) 이준영, 「한국어 문화 교육을 위한 근대 문학 작품 연구-친일과 일제강점기 시대 문학을 중심으로-」, 『역사와융합』, 바른역사학술원, 12호, 2022, 363-393쪽.

의 현실적인 모습까지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강혜원은 학습자 중심의 융복합 교육을 통해 융합적 사고를 얻을 수 있도록 문학과 역사 교과와의 융복합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sup>20)</sup> 그는 두 교과와의 접점이 되는 역사·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융합을 시도하였으며, 역사·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두 교과와의 공통된 지점 및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가 역사·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문학교육에 일체 강점기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을 적절한 제재로 판단하였다는 것은 본 연구에 시사점을 주었다.

임가는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시 상호문화이해의 양상을 밝히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였다.<sup>21)</sup> 이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과 중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소통, 비교함으로써 상호문화적 이해와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사회·역사적 맥락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렸으나 도출된 개념이 사회·문화적 맥락과 거의 차이가 없고 문화의 역사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런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역사 차원에 더 주목하는 사회·역사적 맥락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문학작품을 매개체로 하여 역사문화 교육을 하는 반면에 문학 작품 자체의 의미를 탐구하는 연구는 극히 적다고 알 수 있다. 사회·역사적 맥락은 역사 이해와 문학교육을 연결할 수 있는 접점으로서 이런 빈약한 교육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또한, 상술한 연구들이 가장 많으면서도 뚜렷하게 시대 상황을 그려내는 일체 강점기 문학작품을 주로 선정한다는 점은 본 연구의 실험 텍스트 선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중 활용되는 문학 작품은 시(詩)가 대부분이고, 소설을 활용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방안을 고안하는 연구가

---

20) 강혜원, 「현대소설을 통한 문학-역사 교과와의 융복합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21) 임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상호문화적 한국 현대시 교육 연구 :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현대소설 교육 연구다. 학계에서 외국인이 속한 문화권의 차이가 문학 작품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으나,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현대소설 교육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현대소설 교육 연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최인자는 맥락과 관련된 기존 문학교육 연구에서 독자의 수용 맥락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점을 지적하였고, 사회·문화적 독서 모델을 바탕으로 독자의 수용 맥락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였다.<sup>22)</sup> 이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같은 사회, 같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공동체의 가치, 신념 등 추상적인 구성물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사회·역사적 맥락의 개념을 고찰하는 데 계시적 의미가 있다.

안재란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소설은 문학 작품과 독자, 사회의 소통성을 높이고, 문학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유용한 전략이라고 밝혔다.<sup>23)</sup> 그는 작품의 의미가 작품 자체 또는 작품에 대한 해석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되고, 독자와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독자와 사회의 소통 강화를 중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평전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활용하여 소설 읽기를 통해 학습자와 역사의 시공간적 거리가 가져다주는 소외와 단절을 극복하고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텍스트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방법을 탐색하였다.<sup>24)</sup> 그는 소설의 심층적 의미의 작용과 관련된 이념, 가치관, 세계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의 교육은 주로 역사주의적 관점에서의 내용 중심

---

22) 최인자, 「문학독서의 사회문화적 모델과 '맥락' 중심 문학교육의 원리」, 『문학교육학』 25호, 2008, 427-450 쪽.

23) 안재란, 「개별 논문: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소설 읽기 지도」, 『독서연구』 22호, 2009, 245-277쪽.

24) 이평전,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한 소설교육의 가능성」, 『語文論集』 66호, 2016, 229-251쪽.

교육을 차용하게 된다는 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본 연구에서 신역사주의 관점을 도입하고 학습자 중심의 소설 교육을 구축하려는 시도에 시사점이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활용하여 소설교육 방안을 탐구하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왕효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소설을 읽을 때 자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소설 속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반한 공통 주제와 모티브의 표현 형식을 파악하여 소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방안을 고찰하였다.<sup>25)</sup> 이나는 학문 목적 학습자와 일반 목적 학습자를 구분하여 중국인 학문 목적 학습자의 한국 현대소설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 중심의 관점에서 출발해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sup>26)</sup> 그가 도출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활용한 소설 교육방안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중국인 고급 학습자에게 구체적인 현대소설 교육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소설교육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독자의 의미 구성 과정에서 맥락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위의 논문들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개념 정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실제 활용을 보여주지 않고 다소 추상적인 연구만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국어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어교육 분야, 특히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기존 연구는 공시적 문화 요소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 역사적 개념이 문화적 개념보다 더 적합하기 때문에, 한국소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시적 역사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현대소

---

25) 왕효, 「사회문화적 맥락을 활용한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읽기 교육 방안 연구 - 루쉰의 <축복>과 비교하여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5호, 2022, 75-104쪽.

26) 이나, 「학문 목적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소설을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설을 활용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관심도 크지만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근현대 사회·역사의 이해와 텍스트 의미 탐구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실험 연구, 교육 설계의 순으로 진행된다. II장에서는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신역사주의 관점에서 사회·역사적 맥락의 개념을 재개념화하고,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소설을 읽는 원리를 밝힌다. 이어서 III장에서는 실험 연구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실제로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소설을 읽고 이해하는 양상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IV장에서는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줄이고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의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을 도출한다.

연구 대상으로는 학습자 자료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역사적 맥락에 주목하여 감상할 수 있는 한국 현대소설을 선정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소설을 사회·역사적 맥락에 초점을 맞춰서 읽고 작성한 감상문 및 사후 인터뷰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실험에 앞서 한국 소설 교육에서 텍스트 선정은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윤영(1999)은 이전 여러 학자의 연구를 고찰하고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여 소설 작품을 선정하는 다음과 같은 8가지 기준을 정리하였다.

〈표 1〉 텍스트 선정 기준(윤영)<sup>27)</sup>

번호	선정 기준
1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우선 흥미가 있는 작품을 읽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7) 윤영, 「외국인을 위한 한국소설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43-46쪽.

2	흥미와 재미를 가진 작품이더라도 문학적으로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문학 수업에는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3	외국어를 배우는 언어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문학 텍스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야 한다.
4	한국인의 모습과 생활을 담은 작품, 즉 한국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작품이어야 한다.
5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문학 작품을 선별해야 한다.
6	가능한 현대 작품이 좋다.
7	주어진 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8	현대 사회의 한 특징인 매체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그가 밝혔던 기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학습자가 흥미를 갖는 작품이다. 학습에 대한 흥미가 있어야 독자는 읽고 생각할 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작품의 문학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모습과 문화적 특성을 살린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역사·문화, 풍부한 감정, 인간관계, 삶의 가치 등 학습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편적 주제를 다루는 작품은 학습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작품을 읽을 때 깊이 생각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외국인 학습자의 언어 능력과 작품의 분량이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윤여탁(2002)은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의 선정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난이도와 문학사적 의미를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2〉 텍스트 선정 기준(윤여탁)<sup>28)</sup>

번호	선정 기준
1	문학사적 가치의 여부
2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의 난이도 여부
3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가의 여부
4	한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는가의 여부

28) 윤여탁, 「한국어 교육에서 현대 문학 정진 연구」, 『국어교육연구』 10호, 2002, 49쪽.

그는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의 작품을 최우선으로 하며 문학사에서 높이 평가받는 작품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유발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하였다.

장정숙(2010)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소설 작품의 선정 기준을 내적 부분과 외적 부분으로 나누어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표 3〉 텍스트 선정 기준(장정숙)<sup>29)</sup>

항목	선정 기준	
작품 외적인 부분	교육과정(일반 또는 특수 목적)과 수업 목표(의사소통,문화)	
	학습자의 어휘 수준	
	학습자의 흥미	
작품 내적인 부분	형식	소설의 구성
		소설의 길이
		문법 및 어휘의 실제성
	내용	문학적 가치
		주제의 보편성
		한국인의 생활 모습

그는 내적 부분에서 소설 작품 자체에 대한 기준, 즉 텍스트의 분량, 주제, 한국인의 삶을 담은 문화적 요소, 문학적 가치 등을 제시하였다. 외적 부분에서는 주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 및 수업 목표, 학습자의 언어 능력 및 흥미를 고려한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선정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요구와 흥미를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적합한 소설 선정을 위한 보다 상세한 작품 선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조홍련(2015)은 여러 학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교육 대상으로 할 때 한국 현대소설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29) 장정숙, 「한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 단편소설 선정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23-27쪽.

〈표 4〉 텍스트 선정 기준(조흥련)<sup>30)</sup>

번호	선정 기준
1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수준에 맞는 작품으로 내용이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고 학습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없는 작품.
2	한국어 수업 시간과 학습자의 집중력을 고려하여 소설 텍스트의 분량이 적절해야 한다.
3	한국의 문화 및 한국인의 생활 모습과 독특한 가치관 등을 담은 작품.
4	학습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작품.
5	외국인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외에서도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요소로 작품을 선택해야 한다.

그가 제시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맞는 작품, 적당한 분량의 작품,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생활 모습 및 가치관 등을 담은 작품, 학습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작품, 외국인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작품 등 5가지 기준이다.

위의 연구들이 각각의 연구 특징에 적용하기 위해 선정 기준은 겉으로 보기에는 각기 다르지만, 공통된 소설 선정의 일반적인 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작품 차원에서 보면 소설의 주제, 문화적 및 문학적 가치, 난이도 및 길이가 기준이 되고 학습자 차원에서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언어 수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나온다.

〈표 5〉 일반적인 텍스트 선정 기준

번호	선정 기준
1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작품
2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맞고 어렵지 않은 작품
3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는 작품
4	문화적 특성을 담은 작품
5	문학사에서 정전(正典)이 되는 작품
6	난이도와 분량이 적절한 작품

30) 조흥련, 앞의 글, 43-44쪽.

위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텍스트 선정의 일차적 기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에서 어떤 소설이 중국인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지는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본 연구는 신역사주의를 통한 사회·역사적 맥락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우선 사회·역사적 정보가 풍부해야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설이 그린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잘 나타내는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예술, 종교, 가치관 등을 소설 내에서 보여주는지, 당시 사회의 이슈들이 논의되는지, 인물들의 심리와 감정을 통해 당시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이해되는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잘 포함하고 있는 소설들을 위주로 선정해야 한다. 이런 요소들을 고려할 때 바로 역사화된 문화적 특성도 포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기준 4를 기준 1로 합치고자 한다. 또한 한·중 양국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유사한 역사적 시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야 중국인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익숙한 자국 역사에 대한 기억으로 한국 역사 이해에 투입하는 것은 중국인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한국 역사 이해의 재구성을 도울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위의 기준 1과 기준 4를 합치고 공통적으로 겪었던 유사한 역사적 시기를 그리며 사회·역사적 정보가 풍부한 중국인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작품으로 신역사주의적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인 소설 텍스트 선정 기준을 참조하여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실재를 함께 고려해서 본 연구가 설정한 텍스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6〉 본 연구의 텍스트 선정 기준

번호	선정 기준
1	공통적으로 겪었던 유사한 역사적 시기를 그리며 사회·역사적 정보가 풍부한 중국인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작품

2	중국인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맞고 어렵지 않은 작품
3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는 작품
4	문학사에서 정전(正典)이 되는 작품
5	난이도와 분량이 적절한 단편 작품

근대 이후, 크게 보면 한국과 중국은 식민지·반식민지, 도시화, 산업화 등 여러 가지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겪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양국의 역사적 경험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건국 이전 거의 같은 시기에 식민지·반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한·중 양국의 사회·역사적 상황은 공통점이 많다. 일제 강점의 경험은 작가들에게 풍부한 창작 소재를 제공하며 이 시기의 작품들은 도시와 시골,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 이 작품들은 학습자들이 한국인의 삶과 감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1920-30년대, 특히 1920년대는 한국 근대 문학 운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시와 소설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작품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새로운 시도와 돌파가 나타난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문학 창작은 현대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때의 작품들을 학습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는 현대 한국 사회의 많은 현상과 문제의 역사적 기원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른 역사적 시기의 작품보다 식민지 시대의 작품, 그 중에서도 특히 1920-30년대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언급한 선정 기준에 따라 가능한 작품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7〉 가능한 작품 목록

작품명	작가	발표년도
〈운수 좋은 날〉	현진건	1924
〈고향〉	현진건	1925
〈사랑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1935
〈감자〉	김동인	1925

〈날개〉	이상	1936
〈치숙〉	채만식	1938

이중에 〈운수 좋은 날〉과 〈고향〉은 같은 작가 현진건의 작품인데 중국인 학습자가 다른 한국 작가의 문학 스타일을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작가마다 작품 하나씩을 텍스트로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고향〉과 〈운수 좋은 날〉은 모두 일제시대 하층민의 삶을 그렸으나 〈고향〉에서는 일제에 대한 묘사가 더 직접적이고 뚜렷하며 중국인 학습자가 이해하기도 더욱 쉽기 때문에 이 둘 중 〈고향〉을 실험 텍스트로 선택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또한 〈감자〉에는 중국인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묘사가 많이 있는데, 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작품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고 작품의 가치를 직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치숙〉과 〈날개〉는 모두 지식인 소설이지만 〈날개〉에서의 이상한 남녀 권력 분포가 거시 한국 역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인 학습자가 신역사주의적으로 이런 사회·역사적 상황을 해석할 때 반응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치숙〉을 배제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논의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고향〉, 〈사랑손님과 어머니〉, 〈날개〉를 실험 텍스트로 하고자 한다. 세 작품은 주제와 스타일이 서로 다르나 농민, 여성, 지식인 등 다양한 시각에서 그 시대의 독특한 문제와 이슈를 균형이 있게 다루고 있다. 〈고향〉은 일제강점기 농민의 생활을 현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며,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사랑과 가족 중 여성의 가치를 주제로 한 감성적인 작품이고, 〈날개〉는 상징과 비유를 통해 지식인의 삶과 존재에 대해 탐구하는 추상적인 작품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1920-30년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세 작품은 각 작가의 문학적 역량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자 당시 한국 현대소설의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가 이 작품들을 통해 각 작가의 독특한 문학적 세계를 경험하고, 그들이 한국 문학사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세 소설은 모두 현대 단편소설로서 현대적 상황을 모티브로 삼아 현대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의 언어 능력에도 적합하고 분량도 적절하다. 김대행은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주요 작품들의 목록을 통해 외국인에게 가르치기 적합한 문학 작품을 제시하였는데, 그중에서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다.<sup>31)</sup> 또한 홍영선(2009)이 작성한 '18종 문학 교과서 수록 현대 문학 작품 목록표'에서는 <날개>와 <고향>이 총 9종의 문학 교과서에 실려 높은 빈도를 보인다. 김흔은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사용하는 14종 한국어 교재 중 현대 소설 작품 수록 상황을 조사했는데 이 세 소설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sup>32)</sup> 세 소설이 모두 한국과 중국의 많은 한국 문학교육 교재에 수록되어있다는 것을 통해 문학적 위상과 교육적 가치는 충분히 입증된다. 이어서는 세 작품이 중국인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이유와 각각의 풍부한 사회·역사적 정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향><sup>33)</sup>은 일제강점기 한민족의 수난사를 그린 작품으로, 식민지 한국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재현하였다. 서울행 기차 안에서 지식인 '나'는 우연히 마주친 소설 주인공 '그'에게 고향을 떠나 타국을 전전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학습자는 이 소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일제의 토지 수탈 정책은 물론 당시 한국의 유민(流民)현상, 난세 속 여성의 어려운 처지 등 다양한 시대 상황으로 사회·역사적 맥락을 구성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적인 상황과 강제 노동, 억압적인 교육 제도 등과 같은 문제들은 중국 반식민지 역사와 유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는 중국 반식민지 침략 역사를 떠올리며 민족적 정서를 자극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전쟁과 침략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까지도 이루어낼 수 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sup>34)</sup>는 '근대적 문물과 문화가 유입되며 안착되던 시기이자 자유연애를 긍정하고 과부의 재가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

31) 김대행,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학」, 『한국어 교육』 4, 2000, 27-28쪽 참조.

32) 김흔, 앞의 글, 38-42쪽 참조.

33) 현진건, 權赫律 편역, 『고향』, 길림대학교출판사, 2010, pp.121-137.

34) 주요섭, 權赫律 편역, 『사랑손님과 어머니』, 길림대학교출판사, 2010, pp.20-77.

던 시기<sup>35)</sup>에 여성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소설에서 다루어지는 인간관계와 갈등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는 인간 본성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습자는 작품을 통해 한국 가족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이 소설을 통해 1930년대의 한국 역사에 대한 인식이 식민 지배에 그치지 않고 뿌리 깊은 봉건사상에 의한 사람들의 억압,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 가부장적 유교 사상 등 다양한 사회상을 파악함으로써 사회·역사적 맥락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유교 문화권에 속한 중국의 수천 년 봉건사회에서 겪었던 비슷한 역사적 문제도 학습자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날개〉<sup>36)</sup>는 한국 최초의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한 심리소설로 당시 한국 수도였던 경성의 도시상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근대화 과정 및 그의 영향을 깊이 있게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의 가치관은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된다. 중국인 학습자는 이를 통해 개인의 꿈과 가치관이 어떻게 사회·역사에 영향을 받는지 고찰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이 소설을 통해 식민지 시대 한국의 도시 생활과 상업화 발전, 지식인들의 방황과 고민, 여성의 생존 딜레마 등 다양한 사회상으로 사회·역사적 맥락을 구성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설 속 금전지상주의, 매춘 합법화 등 역사적 현상을 통해 학습자에게 현대 사회에 대한 성찰 의식도 키울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피험자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로 한다. 고급 학습자는 어느 정도의 어휘량과 문법 지식을 쌓아 보다 고급 수준인 언어로 된 문학 작품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 외에 고급 학습자는 오랜 기간의 학습을 통해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급 학습자에게는 단순한 한국어 의사소통의 차원을 넘어 문학 텍스트에 내포된 사회·역사를 접근하고 사회·역사적 맥락 간 소통을 통해 문학 작품과 사회·역사에 대한 이해의 심화가 필요하다. 실험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소감을 더 잘 표

---

35) 김리안, 「〈사랑손님과 어머니〉에 함의된 주요섭의 작가의식 연구」, 『한민족어문학』 80호, 2018, 277쪽.

36) 이상, 김주현 편집, 『날개: 이상 단편집』, 문학과지성사, 2005

현할 수 있도록 감상문 및 토론에 중국어 사용을 허용하였다. 번역 과정에서 연구자는 학습자의 본뜻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직역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소설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2차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실험 대상과 실험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8〉 실험정보

	조사 시간	조사 대상	실험 내용	텍스트	수집된 자료
예비 실험	2022년 12월	중국인 고급 학습자 5명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감상문 작성 및 사후 인터뷰	현진건 「고향」	감상문 5부 인터뷰 채팅 기록 143개
본 실험	2023년 2월	중국 D, Z, C, Q 대학교 한국어학과 TOPIK 고급 학생 13명	①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1차 감상문 작성 및 1차 인터뷰 진행	현진건 「고향」	감상문 26부 인터뷰 녹음 139분 토론 녹화 77분
	2023년 2월	중국 D, Z, C, Q 대학교 한국어학과 TOPIK 고급 학생 13명	② 소설을 활용해 사회·역사적 맥락을 토론 및 2차 감상문 작성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감상문 26부 인터뷰 녹음 227분 토론 녹화 100분
	2023년 2월	중국 S, D, Z, C, Q 대학교 한국어학과 TOPIK 고급 학생 14명	③ 개별 2차 인터뷰 진행	이상 「날개」	감상문 28부 인터뷰 녹음 245분 토론 녹화 93분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인 본 실험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중국인 고급 학습자 5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다. 예비 실험의 목적은 중국인 학습자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이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학습자의 반응 양상을 1차적으로 관찰하여 실험에 적합한 소설 텍스트를 선정하고, 데이터 수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선 예비 실험 텍스트는 식민지 시대의 농민 계층을 다룬 소설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예비 실험 결과 학습자가 구성한 사회·역사적 맥락의 다양성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기의 다른 사회집단에 관한 텍스트를 적절하게 추가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자가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요구했지만 일부 학습자는 소설의 역사적 배경만 간략히 언급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감상문을 쓰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사후 인터뷰 과정에서 이중의 상당수는 연구자의 질문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를 탐구하고 사회·역사적 맥락을 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글쓰기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자는 본 실험에서 작문 요구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발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들의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 문자로 채팅하는 인터뷰 방식이 채택되었지만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정서나 태도를 관찰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 본 실험에서는 보다 유연하고 생생한 음성 인터뷰로 전환해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 고급 학습자 40명을 모집해 3개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자에게 시 텍스트의 시대적 배경, 작가 생애 등 정보를 보여주지 않고 소설 텍스트만 제공하고 제시된 질문에 따라 1차 감상문을 사전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습자의 읽기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와 문장에 대한 설명만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1차 감상문을 토대로 1:1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소설 읽기에서 감상문 쓰기까지 어떤 심리적 및 행동적 과정을 걸쳤는지, 소설에 담긴 사회·역사적 정보를 어떻게 포착했는지, 소설 이외의 어떤 정보가 동원되었는지,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이 있었다.

인터뷰 질문들은 정해져 있지만 학습자의 답변에 따라 연구자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내용을 밝히기 위해 별도의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1차 인터뷰가 끝난 후, 학습자에게 소설 텍스트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 작가 생애 등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어서 학습자를 4~5명씩 소그룹으로 나눠 토론하도록 하였다. 토론 내용은 감상문 내용 공유, 기존 사회·역사적 맥락과의 대화를 통해 소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반면에 소설을 통해 사회·역사적 맥락을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다른 학습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텍스트 의미와 역사 인식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거나 거부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만의 텍스트와 역사 의미를 형성하고, 독자의 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 토론을 마친 후에 학습자가 기존 사회·역사적 맥락과의 소통을 통해 구성된 소설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소설을 통한 재구성된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차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2차 감상문은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소설을 이해하는 결과물로 보았다. 2차 감상문을 수렴한 다음, 부정적 반응이 뚜렷한 개별 학습자를 따로 선정하여 2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차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2차 감상문에서 나타난 의문, 학습자가 특정한 관점을 쓴 이유 및 당시의 심리 상태 등이 있었다. 본 실험을 통해 수집된 자료<sup>37)</sup>는 1차, 2차 감상문, 1차, 2차 인터뷰 녹음, 토론 녹화로 구성되었다.

---

37) 자료의 표기 방법은 [피험자 번호-자료 구분-작품명]으로 표기하였다. 이때 감상문과 인터뷰, 토론을 구분하기 위해 1차 감상문은 R1, 2차 감상문은 R2, 1차 인터뷰는 I1, 2차 인터뷰는 I2, 토론은 D로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 II.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의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이론적 배경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의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역사적 맥락의 개념과 신역사주의 이론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학습자가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소설을 해석하는 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봄으로써, 학습자의 읽기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현대소설 교육의 의미를 고찰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측면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1. 사회·역사적 맥락의 재개념화

현대소설은 현실을 박진감 있게 그려내고, 사람들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묘사한다. 그러므로 소설 세계와 현실 세계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현실 세계를 통해 소설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반대로 소설 세계를 통해 현실 세계의 모습을 읽어낼 수도 있다. 따라서 소설에 반영된 세계와 이를 둘러싼 현실 세계는 소설을 창작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역사적 맥락은 단순히 텍스트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 텍스트, 독자 사이에서 동적으로 오가며 다층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사회·역사적 맥락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인 동시에 강한 지향성을 가진 개념이다.

인간은 고립된 개체가 아니며, 사회 공동체 속에서만 함께 생활할 수 밖에 없다. 마르크스(Marx)는 인간이 특정 사회관계에서 하는 활동은 사회적 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으며, 특정 역사적 조건의 산물로서 역사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다고 제시한 바가 있다.<sup>38)</sup> 이는 인간 활동이 사

---

38) K. Marx,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김호균 옮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서울:그린비:gB, 2007, 8-9쪽.

회·역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학 창작 역시 사회 활동 중의 하나로서 역사적 변화를 필연적으로 겪게 된다. 실제로 한국문학은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꾸준히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천 과정을 간략히 개괄해보자면 우선 계몽기 문학, 신소설부터 1920년대 리얼리즘 문학, 1920~30년대의 계급주의 문학(카프 문학), 그리고 1950년 6·25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한 50년대 문학이 있다. 이후 1960년대 4·19와 그 이후 사회의식 변화를 반영한 60년대 문학, 고도 산업 성장기의 사회 변화와 갈등을 그린 70년대 문학,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부각된 다양한 이념의 스펙트럼을 가진 문학, 90년대 이후의 포스트모던한 문학 양상 등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어 오고 있다.<sup>39)</sup> 이러한 문학의 변천은 문학이 사회·역사의 산물임을 잘 보여준다. 역사적 시간 속에 창작되었던 문학 작품에 나타난 사회상이 현재 사회와 크게 다를 때 오늘날의 독자는 당시의 사회·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핵심 문제가 된다.

작가는 주관적인 상상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실제 현실을 재구성하므로 문학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구현한다. 그러나 독자의 관점은 작품의 의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는 작품을 마음대로 창작할 수 없다. 문학 작품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 다양한 독자들과 접촉하는 데 의미작용을 한다. 이 과정에서 맥락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맥락’은 사전에서,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sup>40)</sup>으로 정의되는데 ‘관계’나 ‘연관’ 등의 개념으로 미루어 보아 다른 사물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되는 추상적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맥락은 사전적 정의보다 더욱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연구 분야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맥락에 대한 정의는 크게 언어적 맥락(linguistic context)에 국한된 정의<sup>41)</sup>와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을 구분하지 않는 정의<sup>42)</sup>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

39) 김은정, 「문학과 사회 관계에 대한 한 고찰」, 『한국말글학』 30호, 2013, 29쪽.

40)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2085쪽.

41) ‘글이나 말의 부분들의 뜻이나 내용이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흐름(연세 한국어 사전, 2003)’, ‘특정 언어 단위의 전후에 위치하여 그 언어 단위의 용법에 제약을 가하거나 의미를 밝혀주는 발화의 한 부분(영어학 사전, 1990)’, ‘주의의 초점이 되는 언어 단위의 바로 앞이나 가까이에 있는 발화의 부분(Crystal, 1992)’ 등이 있다.

한 정의들은 각각 다르고 매우 복잡하지만 이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맥락은 텍스트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텍스트 내에만 존재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둘러싼 외적 요소들과의 상호작용 관계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설의 읽기 과정을 고려하면서 독자가 텍스트 내·외적 요소의 상호작용에서 구성된 결과물을 맥락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학자에 따라 맥락의 범주가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주로 2분화, 3분화, 4분화 등 몇 가지 방법이 있다.<sup>43)</sup> 그중에서도 상호작용하는 맥락을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눈 할리데이(Halliday)와 하산(Hasan)의 논의를 대표적인 범주화 방식으로 들 수 있다. 그들은 맥락을 크게 언어적 맥락과 언어 외적 맥락으로 나누고, 또 언어적 맥락을 텍스트 내 맥락과 텍스트 간 맥락으로 나누었으며, 언어 외적 맥락을 상황 맥락과 문화 맥락으로 세분화하였다. 상황 맥락(context of situation)은 텍스트의 의미 영역(register)을 구체화하는 발화의 내용, 형식, 목적 등 자질로 구성된다. 둘째는 텍스트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심리적 배경을 의미하는 문화적 맥락(context of culture)이다. 한편 텍스트 간 맥락(intertextual context)은 다른 텍스트와의 연관성과 그에 의해 도출된 가설들을 포함

42) 일종의 ‘공유된 지식 (Givon, 1989)’, ‘심리적 구성으로 세계에 대해서 청자가 가정하는 하나의 부분집합(Sperber & Wilson, 1986)’, ‘주어진 텍스트를 접한 개인이 그 텍스트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Clark & Carlson, 1981)’,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비언어적 환경(박태호, 2000)’, ‘텍스트 생산·수용 과정에 작용하는 물리적·정신적 요소(이재기, 2006)’ 등이 있다.

43) 한민경(2008)에서 대표적인 연구자들의 범주화 방식을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Halliday & Hasan(1989)	언어적 맥락	언어외적 맥락		
	텍스트 내 맥락	텍스트 간 맥락	상황 맥락	문화 맥락
최창렬 외(1986)	언어 맥락		언어 외적 맥락	
서울대 국어교육 연구소(1999)	언어적 맥락		상황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Rex 외(1998)	텍스트 내 맥락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	텍스트 너머의 맥락
노은희(1993)	언어적 맥락		언어 외적 맥락	
이주섭(2001)	언어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이재기(2006)	텍스트 내 맥락	텍스트 간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 맥락

하는 상호 텍스트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내 맥락 (intratextual context)은 의미 관계를 실현화하는 결속성(cohesion)과 결속 구조(coherence)를 포함하는 맥락이다<sup>44)</sup>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네 가지 맥락이 각각의 층위와 상태는 다르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의 유형 가운데 주로 언어외적 맥락을 살펴볼 것이다.

상황 맥락과 문화 맥락은 모두 언어 외적 맥락에 속하지만, 그들은 같은 개념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할리데이(1999)는 ‘기후’와 ‘날씨’의 비유를 통해 문화 맥락과 상황 맥락의 관계를 설명하였다.<sup>45)</sup> 그의 논의를 통해 상황 맥락은 문화 맥락에 비해 즉시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상황이 바뀐다면 그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할리데이는 상황 맥락을 텍스트가 사회적인 과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이론적인 구성체라고 제시한 바 있다.<sup>46)</sup> 그러므로 특정 시대 한 언어 공동체의 사회적 관습, 가치, 행동양식과 같은 요소들이 모두 상황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거시적인 상황은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를 변화적으로, 즉 역사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역사적 맥락은 상황 맥락에 속한다.

기존의 한국 문학교육에서 사회·역사적 맥락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연구는 드물다. 임가는 사회·역사적 맥락을 같은 사회,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신념, 태도, 문화적 규칙 등 추상적인 구성물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다.<sup>47)</sup> 이 연구는 사회·역사적 맥락의 모습을 세밀하게 구상했지만 ‘특정한 시대’라는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지 않았다.

44) M.A.K. Halliday & R. Hasan,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Deakin University Press, 1989, pp.46-47.

45) 그에 따르면 ‘기후’는 ‘여러 날씨의 특성이 종합된 형태’로 특정 국가나 지역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반면에 ‘날씨’는 ‘오늘, 지금, 여기’와 관련된 개념으로 즉각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기후’가 장기적이고 영속적인 의미적 속성을 가진다면 ‘날씨’는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의미를 가진다.

46) M.A.K. Halliday, *The Notion of Context in Language Education*, In M.Ghadessy (ed.), *Text and context in functional linguistics*, John Benjamins Publishing, 1999, p9.

47) 임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상호문화적 한국 현대시 교육 연구 :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22쪽.

시간적 개념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규명한 사회·역사적 맥락 정의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개념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 정의는 사회·역사적 맥락을 거시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여 그것이 단지 소설에 반영될 뿐이라고 본다. 그러나 문학과 역사는 소박한 반영함과 반영됨이라는 관계라고 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신역사주의(New Historicism)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신역사주의에서 본 문학과 역사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구(舊)역사주의(Historicism)의 역사 관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구역사주의는 19세기 중엽 이후로 역사와 철학 분야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인문·사회과학의 각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다. 문학교육에서의 구역사주의는 작품을 대함에 있어 그것이 마치 그 자체로 단독적으로 온전한 것인 양 취급할 수 없다는 것과 그 작품과 관련된 모든 사실에 비추어서 그 작품을 보아야 한다는 신념<sup>48)</sup>이라고 논의되기도 하며, 문학 작품과 이를 생산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관계를 다루는 개념<sup>49)</sup>으로 설명되기도 하며, 역사주의 비평의 여러 국면에서 작가의 전기(biography)연구가 가장 중심적인 분야가 된다<sup>50)</sup>고 지적되기도 한다. 구역사주의 학자들은 역사의 특질은 '진실'이고 역사는 진실한 사건을 기록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진실'은 문학의 특질인 '허구'와 대비되며, 양자는 서로 맞지 않고 혼동되어서도 안 된다. 문학 분야에서 구역사주의는 사회·역사를 문학 창작의 배경(背景)으로 삼고, 작품 자체를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거나 표현하는 전경(前景)으로 삼는다. 구역사주의 문학비평은 반성적이고 실증적이며 역사의 본래 모습을 주목하고, 문학 작품 외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진실하고 구체적인 역사가 있다고 제시하며, 문학 작품은 이러한 진실하고 구체적인 역사에 대한 일종의 반영일 뿐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역사는 1차적인 것이고 문학은 2차적인 것이며, 역사는 객관적인 진실로서 문학의 존재와 문학의 내용을 결정한다.

48) 이상섭, 이선영 편, <역사주의비평의 방법>,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제』, 삼지원, 1983, 29쪽.

49) 이명섭 편, 『세계문학비평용어사전』, 을유문화사, 1985, 341쪽.

50) 이상우 외, 『문학비평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5, 26쪽.

성녕은 구역사주의 문학 비평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sup>51)</sup> 첫째, 문학을 역사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텍스트 해석을 통해 필요한 역사적 배경 자료를 제공한 다음 역사적 근원을 고증한다. 둘째, 작가 내면의 사상, 문화의 구성과 심미적 흥미가 무의식적으로 작품에 나타나기 때문에 작가의 삶과 창작 역사를 연구한다. 셋째, 이폴리트 텐(Hippolyte Taine)이 제기한 ‘민족, 시대, 환경’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라 문학을 바라보고, 문학을 일련의 역사와 자연력의 작용에 따른 산물로 본다. 즉, 구역사주의 비평가들이 이해하는 문학 연구와 문학 비평의 임무는 일종의 역사 ‘복원’작업인 셈이다. 다시 말해 문학 작품을 ‘고고(考古)’식으로 그것을 생산한 역사적 상황 속에 넣어 당시의 역사적 환경과 문화적 배경에서 출발해 작가의 본뜻을 재현함으로써 작가의 사상과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여 문학의 가치를 역사적 각도에서 이해하려는 것이다. 텍스트 해석의 초점은 역사적 배경부터 작품적 의미로, 일종의 문학으로부터 역사를 ‘복원’이다. 독자 자신의 역사적 시야에서 벗어나 역사의 좌표축으로 돌아가 작가 또는 대중적 의견과 일치해야만 올바른 텍스트 이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여긴다. 전통적인 문학교육은 늘 이러한 맥락을 사용하여 작품을 해석하고 가르치며, 이는 역사와 오늘의 장벽을 만들고 학습자가 문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든다.

신역사주의의 등장은 그 자체의 특성과 특정 역사적 단계에 달려 있다. 1960~70년대, 전후 급속한 경제 발전의 한 단계를 거친 후에 서구 사회는 발전의 슬럼프 시기에 접어들었다. 극심한 생존 스트레스는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 눈을 돌리게 하고, 역사와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게 만들었으며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사조의 부흥은 역사의 연속성을 깨뜨렸다. 오랜 시간 동안 역사와 단절된 분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허무감을 느끼게 하였고, 마음속으로 역사의식의 귀환을 강하게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일련의 사상적 시도가 나타났다. 후기산업 사회(Post-industrial society) 시대의 사람들은 역사로의 회귀를 통해 안식처를 얻기를 열망하는 동시에 역사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고 편한 삶을

51) 盛宁, 『文學：鑒賞与思考』,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97, pp.302-303.

원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은 결국 미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민권 운동(African-American Civil Rights Movement), 서구의 여성운동(Feminism Movement), 서유럽의 학생 운동(Student Movement) 등 일련의 해방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번의 전면적인 위기 폭발은 사람들의 기존 생활 방식을 타파하고 가치관을 크게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구 문화 분위기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는 포스트 식민주의(Postcolonialism), 페미니즘(Feminism),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 등 기존의 역사를 비판하는 새로운 사상과 이론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신역사주의는 미국 사회에서 역사는 완성되었다는 식의 진보 신화를 비판하고,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집단의 다른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설파하던 다문화주의 토양 위에서 등장한 새로운 역사적 사고로<sup>52)</sup>,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생겨난 것이다.

구역사주의는 역사의 객관적 결정론을 견지하고 역사 발전의 규율성을 중시한다. 역사는 당대의 현실과 무관하게 고정된 것이고, 문학은 현실 생활에 대한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반영에 불과하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역사관은 20세기 초엽 형식주의(Formalism)와 정치 철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 형식주의의 대두와 함께 신비평(New Criticism), 구조주의(Structuralism), 해체주의(De-constructivism), 포스트 모더니즘 등을 거쳐 문학 이론은 문학과 역사, 본문과 맥락의 관계가 무시되는, 또 다른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학과 역사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문학 작품의 의미를 역사적 환경과 맥락에서 재해석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게 되었다.

신역사주의는 이처럼 학문 내적으로 반성과 갱신이 요구되었던 1980년대에 생겨났다. 새로운 문예 비평 경향으로서의 신역사주의는 학문 내부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20여 년간 미국 문학계를 지배해온 신비평주의의 형식 중심 분석에 대한 의식적 반작용이었다.<sup>53)</sup> 이는 형식주의의 좁고 폐쇄적인 텍스트 시야를 벗어나 구역사주의

---

52) B. Thomas, *New Historicism*, Kulturpoetik und das Ende der amerikanischen Geschichte, 1991, pp.19-22.

53) B. Thomas, 위의 책, p.13.

의 낡은 논리를 버리고 해석자의 주체적 지위를 재확립하고, 당대에서 입각하여 역사적 의미와 현실 정치의 관계를 재발굴해 ‘역사’라는 주제를 새롭게 조명하였다.

신역사주의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후반까지 현대 영미 문학과 문학 비평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조 중 하나가 되었으며, 사람들이 역사와 문학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파악하고 처리하도록 시사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실천이다. 대표적인 주요 학자로는 스티븐 그린블랫(Stephen Greenblatt),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 루이스 몬트로즈(Louis A. Montrose) 등이 있다. 신역사주의는 일차적으로 영국 르네상스(Renaissance)시대 해석과 관련이 있으며, 그린블랫의 주도로 나타난 일련의 새로운 비평 작업을 의미한다.<sup>54)</sup> 그는 1982년 『장르(Genre)』 잡지 제1호 ‘르네상스 연구’에 실린 서론에서 ‘신역사주의’라는 개념을 정식으로 제기하였으며, 해당 호에 실린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이론적 특성을 요약하였다.<sup>55)</sup> 신역사주의는 역사란 단층으로 가득 차 있고, 일관되고 중단 없는 것이 아니라 서술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다양한 서술을 통해 역사를 복원해야 하며, 이러한 서술은 당시의 시간, 장소, 관념 등에 따라 구성되므로 주체에 의한 역사의 개작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역사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단일 기록도, 과거 사건에 대한 단순한 기록도 아니다. 신역사주의는 사람들이 역사와 문학, 역사와 문화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도록 시사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실천한다. 신역사주의 이론의 근원은 복잡하고 연구 분야는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경계를 과감히 넘나들며 학제간, 다원적인 이론적 특성을 분명히 드러내지만 연구 방향과 실천 원칙은 매우 명확하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신역사주의의 등장과 발전은 일정한 역사적 논리와 실천적 경험에 따른다.

신역사주의는 현대문학 비평 분야의 중요한 이론으로서 이미 문학 작

---

54) P. Hamilton, *Historicism*, New York: Routledge, 1996, 임옥희 역, 『역사주의』, 동문선, 1997, 190쪽.

55) S. Greenblatt, *Further reading*, Introduction hi:Genre, 1982, pp.3-6.

품의 창작과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한국문학 교육 분야, 특히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에서는 아직 시도된 바가 없다. 최근 중국에서의 한국 문학교육 목표를 보면, 한국 현대소설 교육에 신역사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교육 목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문학교육에도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줄 것이다. 남연은 한국 문학교육론을 바탕으로 중국의 외국어 교육 정책 및 중국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수요를 고려한 중국의 한국어 문학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정리하였다. 즉,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은 구체적인 한국문학 텍스트의 읽기와 생산을 통해 학습자의 한국문학 능력(문학 지식 능력, 문학 수용과 산출 능력, 문학 가치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문학 활동 참여 태도)을 함양하고 나아가 학습자의 언어 능력, 심미적 사고 능력과 상상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며, 학습자가 한·중 문학 텍스트 및 문화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한·중 문학 및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 과정에서 인격을 보완하며 한국문학 문화를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양성하며, 학습자의 사회주의 사상인도덕적 소양을 제고한다.<sup>56)</sup> 새로운 시대 중국의 한국어교육 변화와 흐름에 발맞춘 문학교육의 목표 제시는 한국 현대소설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가져 준다.

위의 한국어 문학 교육 목표에서는 한국 역사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한국문학 텍스트와 문화를 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많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문화와 역사는 늘 수업에 포함되지 않고 취사 선택 가능한 '배경지식 보충'에 불과하다. 이처럼 텍스트에만 집중하고 문화와 역사를 소홀히 하는 교육 방법은 텍스트와 역사를 분리하여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심층적인 이해까지 영향을 미친다. 반면 신역사주의는 텍스트 해석에서 역사적 맥락의 중요성을 특별히 중요시하고 역사와 문학 텍스트 사이의 대화를 강조하며 단순히 역사를 문학 텍스트의 생산 배경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존

---

56) 南燕, 앞의 글, p109.

재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국 현대소설 읽기에 신역사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학습자가 문화적 시야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읽기 과정에서 사고를 확장하고 감상 능력을 높인다는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또한 학습자가 한국문학 활동에 적극적 참여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는 교육 목표도 신역사주의와 맞아떨어진다. 신역사주의는 텍스트의 의미를 동적인 존재로 보고 텍스트, 독자, 맥락이 대화하고 교류할 때 비로소 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탐색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전통적인 작가와 작품 중심의 텍스트 해석 방식에서 벗어나 독자 스스로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신역사주의는 텍스트 해석의 다양성과 독자의 주체적 사고를 강조하고 독자가 텍스트를 해석할 때 항상 명확한 '주체 의식'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학습자의 적극성을 충분히 유발하고 학습자 중심의 문학 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 요컨대 신역사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의 한국 현대소설 교육은 오늘날 중국의 한국문학 교육 목표의 핵심적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에 한국문학 교육에 신역사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신역사주의의 '신(新)'은 구역사주의와 상대적인 것으로 둘의 차이점은 역사적 성격에 대한 인식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구역사주의는 역사를 객관적인 기정사실로 보며 문학을 전자의 영향 속에서 탄생한 산물로 간주하고 양자를 분리하여 논의할 것을 주장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문학과 역사의 이항 대립(Binary opposition)을 초래하였다. 신역사주의는 모든 역사<sup>57)</sup>는 주관적으로 쓰인 것이고, 인류가 쓴 역사는 필연적으로 당시에 처한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주류 이데올로기에 의해 좌우되며, 역사 자체가 특수한 문학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부분과 한계를 가지고 나아가 사람에게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역사와 문학은 동일한 기호 체계(Semiotic system)에 속하며 역사의 허구적인 구성 요소와 서술 방식은 문학이 사용하는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신역사주의는 구역사주의에서의 역사와 문학의 대립을 깨고, 문학과 역사

---

57) 신역사주의 맥락에서 '역사'는 사학자가 쓴 역사 서술이나 사람 마음속의 역사 인식, 역사적 사건 뒤에 숨겨진 역사 문화를 가리키며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진실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는 더 이상 반영함과 반영됨의 관계가 아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sup>58)</sup> 루이스 몬트로즈는 이를 ‘텍스트의 역사성’과 ‘역사의 텍스트성’으로 요약했고, 이는 신역사주의 이론의 기본 관점이 되었다.

‘텍스트의 역사성’이란 모든 글쓰기 형식과 읽기 형식(협회의 문자 텍스트와 광의의 사회 텍스트를 포함한다)이 사회적 물질성과 역사적 문화성을 지니는 내용으로서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체제적, 계급적 입장의 산물임을 가리킨다.<sup>59)</sup> 따라서 텍스트는 항상 작가의 주관적인 경험을 가지게 되며, 역사적 맥락을 초월할 수 없고 그 속에서만 생성될 수 있다. 또한 ‘텍스트의 역사성’은 텍스트 해석 활동의 지향과도 연결된다. 해석은 사회·역사적 행위로 텍스트를 항상 수정되는 과정에 있게 한다.<sup>60)</sup> 역사적 사건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지만 더 이상 역사 속에만 국한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관념과 역사 관념의 변화에 따라 역사적 사건은 이미 현실의 일부로 변한 지 오래다. 따라서 역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끊임없이 다시 쓰이거나 수정되기까지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역사의 텍스트성’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보존된 텍스트로만 한 사회의 진실과 완전한 과거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sup>61)</sup> 역사 자체는 한 무더기의 ‘소재’이며 역사적 텍스트를 통해 접하는 역사는 본질적으로 수식 및 상상을 거친 산물이며 서술자가 역사 ‘소재’에 대한 이해와 연결을 통해 형성한 것이다. ‘역사의 텍스트성’의 두 번째 의미는 작가가 역사를 문헌으로 전환할 때, 문헌은 역사를 쓰는 근거뿐만 아니라 역사를 설명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다.<sup>62)</sup> 즉, 텍스트는 기록 보관소의 역할을 하며 역사에 진입하고 역사를 설명하는 하나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텍스트의 역사성과 역사의 텍스트성의 네 가지 의

---

58) F. Lentricchia & T. McLaughlin, *Critical Terms for Literary Stud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p.225.

59) S. Greenblatt & G. Gunn, 앞의 책, p.410.

60) S. Greenblatt & G. Gunn, 앞의 책, p.410.

61) S. Greenblatt & G. Gunn, 앞의 책, p.410.

62) S. Greenblatt & G. Gunn, 앞의 책, p.410.

미는 신역사주의의 기본 의미를 간결하게 제시함으로써 한국 현대소설 교육에 새로운 시사점을 가져다 주었다. 즉,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텍스트의 역사·문화적 지식을 탐구하도록 하고, 단순히 이를 이용해 소설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소설 자체를 하나의 미시적 역사 기억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학습자는 주체 의식을 가지고 문학 해석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현대사회의 입장에서 소설의 당대 가치를 발굴해야 한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사회는 인류가 공통적인 속성을 가진 집단에서 생산한 여러 결과물로 이루어진 유기적 총체로 역사적으로 변해간다. 문학 역시 사회적 산물로서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 역사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서술이며, 이러한 서술은 순수한 객관적인 재현이 아닌 언어에 의한 사건의 재구성이며 역사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언어 해석이다. 따라서 역사와 문학은 뚜렷한 경계가 없으며 양자는 복잡하게 서로 얽힌 관계다. 맥락은 독자가 텍스트 내·외적 요소의 상호작용에서 구성된 결과물이다. 사회·역사적 맥락은 상황 맥락 중의 하나로 사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과의 어떤 상호관계에서 재구축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역사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이를 상호관계로서의 사회·역사적 맥락으로 재개념화하고자 한다. 사회·역사적 맥락은 특정 시대에 같은 문화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주체들이 공유하는 사회·역사적 상황, 가치와 신념, 이데올로기, 관습, 문화적 규칙 등 추상적 구성물을 텍스트를 통해 내·외적 맥락과 상호소통하여 재구축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 2.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의 한국 현대소설 읽기 원리

앞 절에서는 신역사주의에 기반하여 사회·역사적 맥락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대소설은 한 사회 공동체 문화 산물의 한 가지 형태로, 학습자는 현대소설을 통해 새로운 사회·역사적 맥락을 구성할 수 있다. 독자와 저자, 독자와 독자는 인지적, 심리적 차원의 차이와 소속된 시대나

집단의 사회·역사적 맥락의 차이로 인해 같은 소설을 읽더라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독자의 개인적 특성과 소속된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을 기반으로,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소설 읽기는 독자가 텍스트를 접하기 시작할 때부터 텍스트와 상호 교섭하고,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이해를 얻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읽기 과정에 관한 해석 이론과 신역사주의 이론을 결합하여 학습자가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소설을 읽는 원리를 도출하고자 한다.

맥락화 읽기 과정은 여러 학자에 의해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우선 쇼레스(Scholes)는 텍스트의 읽기 과정을 탐구하였다. 그는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텍스트의 읽기 과정을 ‘읽기’, ‘해석’, ‘비평’으로 세 단계로 나누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읽기는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고, 해석은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기반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찾는 활동이며, 비평은 텍스트 의미의 확장과 가치를 알아보는 활동이다.<sup>63)</sup> 문학 읽기의 과정을 구체화하는 데 한명숙의 논의를 참조하는 것도 유용하다. 그는 문학 인지 과정에 초점을 맞춰 문학 읽기의 단계를 ‘이해’, ‘구성’, ‘조망’ 세 단계로 구체화하였다. 이해 과정을 문학 언어를 해독하고, 지각하는 내용을 수용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구성 과정은 문학 작품을 이해한 뒤에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고 조직하는 단계다. 마지막으로 조망 과정은 문학 텍스트가 독자의 개별적 통찰과 판단, 평가를 거쳐 의미가 넘치는 작품으로 재창조되는 단계다.<sup>64)</sup>

상술한 연구들은 모두 읽기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었다. 각자의 명칭은 다르지만 뚜렷한 유사성을 알아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두 텍스트 표면의 정보를 인지는 텍스트에 대한 사실적 파악이다. 두 번째 단계는 모두 첫 번째 단계에서 인식한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텍스트와

63) R. Scholes, *Textual power*, 김상욱 역, 『문학이론과 문학교육: 텍스트의 위력』, 하우, 1995, 115-118쪽.

64) 한명숙, 「문학인지 발달과 이야기 감상교육」, 『문학교육학』 11호, 문학교육학회, 2003, 213-214쪽.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 텍스트의 의미를 자신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3단계로 구분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소설을 읽는 관정을 3개의 단계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신역사주의에서 텍스트 해석 맥락은 쓰기 맥락, 수용 맥락, 비평 맥락 세 가지로 요약되었다.<sup>65)</sup> '쓰기 맥락'은 작가의 의도, 전기, 사회·문화, 정치적 상황 및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발언을 포함한다. 독자는 쓰기 맥락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구체적인 텍스트 또는 매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으며, 모든 맥락은 꼭 텍스트가 제공한 증거에 따라 다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볼 때 텍스트 안에는 작가가 배치한 풍부한 역사적 정보가 내포되어 있기 마련이다. 이를 앞서 언급한 읽기 첫 단계의 특징과 결합하면, 독자는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소설을 읽을 때 우선 텍스트 표면의 역사적 정보를 포착하여 텍스트 내적의 역사적 맥락을 구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단계 1인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적 정보의 포착'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신역사주의 관점에서의 '수용 맥락'은 텍스트가 서로 다른 사회 조직, 사회 기관, 독자 집단에 어떻게 읽히고, 수용되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이런 점에서 독자가 문학 작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배경과 역사에 따라 텍스트를 해석하는지가 강조된다. 이를 앞서 언급한 읽기 두 번째 단계의 특징과 결합하면,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소설을 읽을 때 포착된 역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은 독자와 관련된 외적 역사적 맥락과의 소통 과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단계 2인 '텍스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소통'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신역사주의의 '비평 맥락'은 비평자가 자신의 읽기가 당대 비평 상황에서 처한 위치를 어떻게 고려하는가를 가리킨다. 이런 점에서 독자는 자신의 생각을 고려하면서 수용하거나 비판하는 선택을 하며, 텍스트를 통

---

65) 張京媛, 『新歷史主義與文學批評』, 北京大學出版社, 1997, p.6 참조.

해 현재의 자아를 다시 살펴보거나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논의를 사회·역사적 맥락 차원에 대입시키면 소통을 통해 새로운 역사 인식을 형성하며 그 인식으로 텍스트 해석에 다시 투입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앞서 언급한 읽기 세 번째 단계의 특징과 결합해본다면, 독자는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소설을 읽을 때 소통 결과를 통합하여 재구성된 역사 인식으로 텍스트의 가치와 내용을 돌아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계 3인 '텍스트 의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재구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정리하고자 하면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구분된 읽기 과정을 참고하되, 이를 신역사주의 관점과 결합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소설 읽기 원리를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적 정보의 포착', '텍스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소통', '텍스트 의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재구성'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 (1)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적 정보의 포착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적 정보의 포착'이란 학습자가 소설을 읽으면서 텍스트에 담긴 역사적 지표나 역사적 상황을 포착하고, 이어서 이런 역사적 정보들을 비계로 삼아 이와 관련된 시대 상황을 발산적으로 상상하면서 텍스트 내적 맥락을 구성하고 소설 세계를 인식하는 단계를 가리킨다.

모든 쓰기 형식에는 역사적 구체성과 사회성, 물질성에 관한 내용이 있다.<sup>66)</sup>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작가는 개인인 동시에 사회적 주체이기도 하다. 텍스트는 사회·역사적 상황의 영향을 받아 생산되는 구조물로, 어느 텍스트도 다른 형태의 문화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작가는 작품을 마음대로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사회적 환경, 역사적 상황, 민족 이데올로기, 사회 계급 등의 영향을 받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작가가 직접 서술할 때 주로 미시

---

66) S. Greenblatt & G. Gunn, 앞의 책, p.410.

적 차원에서 다룬다. 작가는 자신의 언어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끊임없이 분해하고 재구성하므로 결국 작가의 주관성이 담긴 텍스트를 만든다. 소설 텍스트는 작가가 속한 시대의 사회 공동체에 대한 수용 또는 거절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는 불가피하게 속한 시대의 역사적 특징을 나타내며 풍부한 역사적 정보를 담고 있다. 텍스트 내의 역사적 정보는 실제 그 당시에 존재했던 실체라고 하기보다는 역사를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표상이다. 이것은 작가가 그 시대의 사회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정하여 텍스트 안에서 재구성된 것으로서의 역사적인 징후다.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나온 '예배당'을 예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예배당은 텍스트 속의 실체이지만 그 자체만을 맥락이라고 할 수가 없다. 맥락을 구성하려면 예배당이라는 역사적 징후를 맥락화해야 한다. 작가는 인물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많은 역사적 정보 중에 예배당을 선택하여 사람들을 예배당에 가게 하였다. 그럼으로써 예배당이 하나의 맥락이 됨으로 해서 작중인물의 행동을 제약한다. 여기에서 예배당이라는 공간적 맥락은 경건주의적이거나 완전히 유교적인 것이 아님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작가가 선택한 것이다. 이 선택 자체는 작가가 재구성한 것이다.

또한, 학습자는 '텍스트를 통해서만 역사에 접근할 수 있다<sup>67)</sup>'.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은 문자로 기록된 텍스트를 통해서만 과거를 접하게 되고, 역사를 인지하며, 이어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다. 거시적이고 공식적인 역사에 비해 소설 텍스트의 역사적 정보는 미시적이고 개인적이다. 독자가 소설을 읽는 첫 단계는 바로 텍스트의 언어를 해독하고 감지하는 것이다. 한국소설은 중국인 학습자에게 외국어로 쓰인 문학 작품이지만 중국의 문학교육에서 길러낸 읽기 능력은 소설 읽기 과정에서 여전히 발휘될 수 있다. 외국인인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한국 현대소설을 읽을 때, 텍스트의 기본적인 의미를 도출하고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번역'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기서 번역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번역하는 행위가 아닌, 한국어 텍스트를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맞는 모국어를

---

67) F. Jameson, *The Political Unconscious: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p.67.

인식하는 과정을 말한다.<sup>68)</sup>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소설을 읽는 경우, 독자도 작가처럼 맥락을 구성하도록 정보들을 취사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역사적인 산물, 행동양식, 태도에서 풍부한 미시적 역사 정보를 포착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현재 사회에서 사라진 것, 현재 사회에 물려받았지만 기원이 오래되거나 변형된 것 등 풍부한 미시적 역사 정보를 포착할 수 있다. 독자는 그 시대를 드러내 보여주는 어떤 표상물들을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다르게 읽고 맥락을 다시 구성할 것이다. 한국어 모어 학습자에 비해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명확하고 익숙한 역사적 정보를 포착하는 경향이 있다. 소설의 역사적 정보들은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학습자의 역사적 정보 포착은 텍스트의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소설 세계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문맥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기도 한다. 포착된 역사 정보들을 조직하고 정리하면서 소설 세계를 상상하고 텍스트를 초보적으로 파악한다. 즉 당시의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언어 표현과 사회생활, 주인공의 행위 등을 비롯한 소설 내용을 구체화하는 시도를 한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역사적 정보를 성공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지가 소설 세계를 구성하고 이어서 소설의 외적 맥락을 연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 (2) 텍스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소통

‘텍스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소통’이란 학습자가 포착한 텍스트 내의 역사적 정보를 자신이 속한 기존의 사회·역사적 맥락과 연결하고, 텍스트와 기존 사회·역사적 맥락이 끊임없이 부딪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배경지식을 선택하여 텍스트를 해석하는 단계를 가리킨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역사주의 이론에 따르면 역사는 과거의 일에 대한 서술이다. 그렇다면 소설도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으로, 하나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소설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위주로 전개되기 때문에 매우

---

68) 왕효, 앞의 글, 81쪽.

미시적이고 구체적이다. 즉 소설 내의 역사적 정보는 미시 역사에 속한다. 여기서 미시 역사란 작은 단위, 곧 개인이나 작은 사회 그룹에 초점을 맞춘 역사 서술로 사람들의 일상생활, 문화, 인간 간의 권력 등 여러 측면을 포괄한다. 학습자는 이러한 미시적인 역사적 정보를 포착한 후에, 소설의 세계를 구성하고 조직함으로써 소설의 즐거리와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

그러나 독자는 텍스트가 제공한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소설 세계를 구축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자는 스스로 텍스트의 빈자리를 채우려 한다. 이때 학습자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거시 역사는 자연스럽게 텍스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거시 역사는 큰 틀에서 대규모의 사회 구조, 경제 시스템, 전체 문화, 국가와 같은 큰 단위의 사건과 패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역사다. 학습자는 거시 역사를 미시 역사인 소설과 비교함으로써 텍스트의 빈자리를 채우거나 거꾸로 거시 역사의 빈자리를 텍스트로 채울 수도 있다. 그린블랫은 단수의 거시 역사(History)를 복수의 미시 역사(histories)로 분해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다.<sup>69)</sup> 거시 역사는 늘 주류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권력의 제약을 받으며 단일하고 추상적이다. 거시 역사의 틈에는 비주류 역사의 파편이 숨어 있기 마련이다. 한 민족의 거시 역사는 개인의 미시 역사적인 기억으로 인해 생생하고 풍부해지며 역사 해석의 또 다른 가능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학습자가 거시 역사의 시각에서 미시 역사를 논의할 때 거시 역사와 어긋나거나 거시 역사에 종속되어 나타나지 않았던 미시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 거시와 미시를 조화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거시 역사에 무시되거나 배척되는 비주류 역사를 발견하고 거시 역사에 대한 다원적 해석을 모색함으로써 더욱 입체화하고 풍부화한 역사 감각을 형성하고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모국어 화자와 달리, 중국인 학습자는 외국인으로서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거시 한국 역사를 비추어 소설을 읽을 뿐만 아니라, 자국 역사를 환기하여 소설의 의미를 탐색하기도 한다.<sup>70)</sup> 그 이유는 독자는 개인

69) S. Greenblatt, *Renaissance Self-Fashioning: From More to Shakespea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32 참조.

이지만 속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고유의 집단성을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71)</sup> 이 경우 자국 역사는 학습자의 기본적인 중국 사회·역사적 배경지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학습자가 소설 내의 특정 사건이나 인물의 행동, 그리고 주제들을 자신의 이해와 경험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소설 안에 구현된 것이 중국의 역사적 사건이나 문화적 관습과 어떤 유사성이나 차이점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국 역사가 환기될 때 한국소설에 관련된 ‘한국 역사’는 자국 역사와 비교하는 참조물이 된다. 이 경우 한국 역사는 소설과 관련된 모든 미시 한국 역사와 거시 한국 역사를 가리키는데, 이는 텍스트 속의 미시적 역사 정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거시 한국 역사도 포함한다.<sup>72)</sup>

양국 역사를 비교할 때 중국인 학습자는 텍스트의 의미를 탐구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여기서 그린블랫이 제시한 신역사주의 독자 수용 관점인 ‘공명(Resonance)과 경탄(Wonder)’을 참고할 수 있다. ‘공명’은 전시품이 그 형식의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세계에 도달하여 관람객 마음속의 복잡하고 활력이 넘치는 문화적 힘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관람객은 이를 하나의 은유(metaphor) 또는 더욱 간단한 환유(metonymy)로 봄으로써 이러한 문화적 힘을 느낄 수 있다.<sup>73)</sup>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명은 다양한 문화 간의 공통성이다. 이러한 공통성은 학습자에게 하나의 문화가 어떤 고립된 텍스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의 특징도 구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는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공명을 달성하게 됨을 의식하게 한다. 신역사주의는 텍스트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로 겹치는 모든 현상을 공명 현상으로 인정

70) 중국인 학습자는 자국에 익숙하기 때문에 환기된 자국 역사 기억에 거시 역사와 미시 역사가 모두 포함된다. 여기는 다른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환기하는 역사 기억의 차원에서 살피기 때문에 거시 자국 역사, 미시 자국 역사의 구분은 의미가 크지 않다. 따라서 자국 역사라고 통일한다.

71) R. Scholes, 앞의 책, p31.

72) 이 경우는 다른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양국 역사를 비교한다는 차원에서 살피기 때문에 거시 한국 역사, 미시 한국 역사의 구분은 의미가 크지 않다. 따라서 한국 역사라고 통일한다.

73) S. Greenblatt, Resonance and Wonder, *Bulletin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Vol.43 No.4, 1990, p.19

하고, 이러한 관점은 사람들이 텍스트의 물질성, 역사성과 사회성을 인식하게 한다.

‘경탄’은 전시품이 관람객을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그를 응시하고, 사람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느낌을 전달하여 정신이 승화되는 느낌을 자극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74)</sup> 공명이 문화 간의 연관성에 치중한다면 경탄은 문화의 우연성과 구체성을 말한다.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와 만날 때, 이 문화의 역사적 우연성은 집중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텍스트는 정적 문화 구조에 대한 반영이 아니라, 문화적 주체 활동으로서 이질적인 요소를 처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자는 남겨진 텍스트에서 이질적인 역사적 요소를 지각하여 비교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해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 (3) 텍스트 의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재구성

‘텍스트 의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재구성’이란 학습자가 텍스트와 기존 사회·역사적 맥락의 소통을 거친 뒤에 소통 결과를 통합하여 새로운 사회·역사적 맥락을 구성함으로써 텍스트와 역사를 재인식하는 단계를 가리킨다.

하트만(Hartman)이 구분한 세 가지 읽기 방식 중 하나는 ‘텍스트를 넘어서 읽기(beyond)<sup>75)</sup>’다. ‘텍스트를 넘어서 읽기’는 텍스트의 내용과 의미를 텍스트 외부의 것과 서로 연결해 시키는 것이다. 왕녕은 이를 원(源)텍스트를 벗어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때 독자는 텍스트를 통해 구성한 의미를 마음속으로 가지고 와서 기존 생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sup>76)</sup>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소설을 읽는 경우 학습자가 소통 단계에서 발견한 거시 한국 역사가 미시 한국 역사와 어긋나거나 종속된 점, 그리고 한국 역사

74) 위의 글, p.20.

75) Hartman, D.K, *8 Readers Reading: The Intertextual Links of Able Readers Using Multiple Passages*,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1991, p.171.

76) 왕녕,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반한 한국 현대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9, 76쪽.

와 자국 역사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학습자의 기존 인식과 상호작용한다. 이때 학습자는 분산되거나 불완전한 역사적 요소를 통합하고 개인적 성찰을 통해 체계적으로 역사를 재구성한다. 이렇듯 문학과 역사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만들어내는 동적 체계에서 학습자는 상대적으로 생소했던 사회·역사적 맥락에 더욱 익숙해지고, 추상적인 역사적 기억이 더욱 생생하고 명확해지며, 좁은 맥락장이 확장되고 잘못된 이해도 수정된다. 소설 텍스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역사를 반영하는 산물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하나의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기억으로 파악될 것이며 이는 학습자에게 특정한 의미가 있다.

한국 현대소설을 읽는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자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모국어 독자에 비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더욱 복잡하고 결과도 다르다.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중국인 학습자는 기존의 머릿속에 구성된 자국 사회·역사적 맥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텍스트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 한국 역사와 교섭을 통해 형성된 한국 사회·역사적 맥락에서의 텍스트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기도 하다. 이해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이중적 맥락의 대조, 작용, 수용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형성된 결과는 텍스트와 역사 의미의 확장과 조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확장과 조정은 독자가 속한 문화공동체와 관련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읽기 방식과 사회적 관계와도 밀접한 연계가 있다.

역사는 양방향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당대의 독자는 텍스트를 역사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미 무의식적으로 당대 문화와 현대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 역사 그 자체는 동적으로 변화하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이는 몬트로즈가 언급한 ‘우리의 분석과 우리의 이해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특정한 역사, 사회와 학술적 현황에서 출발한 것이다<sup>77)</s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베네데토 그로체(Benedetto Croce)가 언급한 ‘모든 진정한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다<sup>78)</sup>’도 하나의 역사적 행위와 심리를 이해하려

---

77) H. Aram & Veenser, *The New Historicism*. New York: Routledge, 1989, p.20.

78) B. Croce, *History: Its Theory and Practice*, 이상신 역, 『역사의 이론과 역사』, 1981, 2쪽.

면 오늘날의 시야에 입각해야 작품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신역사주의는 과거에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현실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표현해냈다. 즉 역사에 대한 해석은 사실상 독자가 처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사회 가치 지향에 의해 함께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발생하고 정해진 사건에 대한 독자의 해석과 설명은 모두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변하지 않는 역사는 없음을 의미한다. 독자는 역사에 대해 분석과 재구성을 할 때, 그들이 처한 시대의 그림자를 보기 마련이다. 따라서 독자가 문학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 읽기에서 역사의식을 융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가치 수요에서 출발하여 문학 작품이 당대 사회에 미치는 시사점도 발굴해야 한다.

### 3.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의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의의

텍스트는 사회·역사적 맥락을 통해 학습자와 소통하고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에 소설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문학교육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텍스트 이해 능력 신장’, ‘문학과 역사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형성’, ‘텍스트의 당대적 가치 탐구’ 세 가지 면에서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현대소설 교육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텍스트 이해 능력 신장

독자와 저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에 살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계층의 주체로, 같은 사회·역사적 맥락을 갖지 않는다. 그렇다면 독자는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질문을 통해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때 학습자가 사회·역사적 맥락에 따라 능동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

다. 독자가 텍스트를 통해 작가와 소통할 때 능동적으로 정보를 구성해 내는 것은 소설 읽기의 핵심 능력이기 때문이다.<sup>79)</sup> 신역사주의 관점에서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은 학습자가 다원적이고 개방적으로 소설을 이해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흥미와 요구를 기반으로, 스스로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발전을 위해 문학적 원리와 지식을 학습하고, 그러한 원리와 지식을 기반으로 문학 작품 감상에 필요한 기능과 방략들을 학습할 수 있는 문학 교육적 체제를 말한다.<sup>80)</sup> 신역사주의의 취지는 이러한 교육 방식과 일치한다. 신역사주의는 수용 미학(Reception theory)의 영향을 받아 텍스트의 의미를 객체 속에 봉쇄하는 것을 반대하며,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와 독자의 동적 커뮤니케이션의 불확실한 과정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텍스트 의미에 대한 탐구는 저자 중심과 텍스트 중심으로부터 여러 중심으로 나아가고, 해석의 일원론과 절대주의에서 다원성으로 나아간다.<sup>81)</sup> 중국인 학습자는 소설을 통해 새로운 한국의 사회·역사적 정보를 접하게 되고, 이때 소설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며, 동시에 소설의 내포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 익숙하지 않은 사회·역사적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인 학습자는 이미 구성된 한국의 사회·역사적 맥락과 자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적극적으로 동원한다. 이어서 학습자는 텍스트와 기존 사회·역사적 맥락 간의 소통을 하면서 텍스트 의미를 초보적으로 구성하고, 해석에 적합한 사회·역사적 맥락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텍스트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다시 정리하고, 자신만의 텍스트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구축하며, 개인의 능동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한다. 이러한 문학교육 모델은 작가와 텍스트 중심의 전통적인 텍스트 해석 방식에서 벗어나 독자가 자주적으로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 독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 항상 명확한 주제적 의식을 유지할

---

79) 박유현,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36쪽.

80) 이상구,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07쪽.

81) 劉森林, 「新歷史主義的文學觀」, 海南大學學報, 01, 1997, p.70.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인 학습자는 텍스트를 해석할 때 개인 경험의 차이와 자국 사회·역사적 맥락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다양한 내용을 읽어내게 되며, 심지어 일부 관점은 교사가 설정한 예상을 벗어날 수도 있다. 신역사주의는 텍스트의 의미가 권위적이고 일원적인 것이 아닌, 다원적이고 개별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른바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문화 역사관은 이러한 읽기 행위에 대한 인정이다. 신역사주의가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소설 읽기의 지도는 문학교육의 새로운 문을 열어준 셈이다. 학습자는 자신의 체험, 일상생활을 사회·역사적 맥락을 구성하는 데 도입하고, 이를 통해 작품에 새로운 현실적 의미를 부여한다. 동시에 이와 같은 개인적이고 다원적인 작품에 대한 해석은 작품을 권위적 이해에 가두는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되며, 문학 텍스트에 극대한 해석 공간을 개척해 준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학습자의 자주성을 중시하고 다원적인 텍스트 해석을 권장하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학습자의 모든 관점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다.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문학 작품을 읽기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으며, 한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에 대한 파악이 깊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한 해석을 산출할 수도 있다. 교사는 학습자의 색다른 사고에 직면할 때 학습자를 적시 유도해야 하며, 중국인 학습자가 다원적 해석이 저자를 존중하고 텍스트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정확하고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텍스트 대화를 수행해야 함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 (2) 문학과 역사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형성

문학 읽기와 감상에 역사적 요소를 도입하여 학습자의 문학적 소양과 역사적 소양을 함양하고, 일정한 역사관에서 특정 텍스트를 검토하는 것은 한국 현대 문학 교육의 중요한 과제다.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은 문학교육에서 학습자의 역사관과 역사적 감각의 수준을 높이는 한편, 부족한 역사적 소양이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 해

석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동시에 문학 연구에서의 신역사주의는 우리와 문학에 재현된 과거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sup>82)</sup> 이러한 관계는 학습자가 소설과 사회·역사적 맥락을 풍부하게 구성하도록 한다.

그린블라트는 ‘역사와 문학은 과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하는 것이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sup>83)</sup>’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역사와 문학이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역사는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처럼 과거를 만들어내고 구성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신역사주의는 문학과 역사는 서로가 서로를 만드는 관계임을 주장한다. 모든 문학 텍스트는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생산된 것으로, 일정한 사회·역사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동시에, 텍스트의 생산도 사회·역사에 영향을 미치며, 역사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현대 소설교육에서 사회·역사적 맥락의 중요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교육 현장에서는 문학 텍스트와 사회·역사의 연관성을 분리함으로 인해 사회·역사적 맥락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가 빈약해지고 텍스트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지 못하는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신역사주의의 관점에서 소설과 사회·역사적 맥락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역사적 맥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인 학습자의 현대소설 읽기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소설 해석에 도움이 되는 학습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또한 학습자가 텍스트와 기존의 사회·역사적 맥락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자극하여, 학습자가 역사의 다양한 모습을 능동적으로 탐구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학습자가 문학과 역사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학습자는 상호소통을 통해 개인만의 텍스트 의미와 사회·역사적 맥락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한편으로 학습자는 문학을 통해 사회·역사적 맥락을 구성하고 풍부한 역사 인식을 형성하였다.

---

82) Lentricchia et al, *New historicalism*, 김옥수 역, 『신역사주의론』, 한신문화사, 1994, 182쪽.

83) 공임순, 『우리 역사소설은 이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책세상, 2000, 19쪽.

또한 학습자는 새로운 구성된 사회·역사적 맥락을 문학 이해에 활용하여 텍스트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역사와 문학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동적인 사고 체계에서 학습자는 과거의 상대적으로 생소한 사회·역사적 맥락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거시적 역사에 대한 기억도 미시적 차원에서 생생해진다.

### (3) 텍스트의 당대적 가치 탐구

한국 현대소설은 한국의 역사적 정보를 담고 있으며, 한민족의 역사적 증거와 문화적 보물일 뿐만 아니라, 당대 사회의 미래 발전에 참고와 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특정 사회·역사에서 생산된 모든 텍스트는 당시 시대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텍스트는 시간의 좌표에서 고정되고, 확장되고, 변화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풍부해짐으로써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국면을 보여준다. 독자는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텍스트를 해석할 때도 현재 생활하고 있는 시대에서 출발하여 소설에 내포된 당대적 가치를 파헤쳐야 한다. 작품의 당대적 정신과 가치를 탐구하는 것은 문학비평 연구에서 신역사주의의 요구이자 새로운 시대의 한국 현대 소설교육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신역사주의는 역사의 의미와 현실의 관계를 다시 탐구하는 것을 강조하고, 역사를 현대와 무관한 과거의 특정 시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않으며, 끊임없는 연속과 단절 속에서 당대에 대한 해석적인 시사점을 주는 텍스트로 본다.<sup>84)</sup> 그린블라트가 ‘참여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지 않는 글쓰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sup>85)</sup>’고 명확히 지적하였듯, 과거의 텍스트에 대한 해석은 오늘의 의미에 대해 열린 것이며, 과거의 의미에 대한 발굴도 오늘에 대한 시사라고 할 수 있다. 역사와 현대, 문학과 사회는 서로를 해석하는 하나의 개방적 구조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다.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현대소설을 읽

---

84) Louis A. Montrose, Of Gentlemen and Shepherds: The Politics of Eliza-bethan Pectoral Form, *ELH* Vol.50 No.3, 1983, pp.415-459.

85) S. Greenblatt(1990), 앞의 글, p.16.

을 때, 외국인 독자로서 자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독자로서 현대 사회의 가치관,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방면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교육 방식은 역사적 상황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학습자가 문학 작품에 관련된 사회·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으며, 당대의 수요에서 출발하여 텍스트의 당대적 가치를 탐색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따라서 신역사주의 관점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 소설교육은 역사적 사회 환경에서 출발하여, 역사의 시각으로 텍스트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나아가 당대 사회의 현실적 맥락으로 텍스트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는 교육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사회의 가치적 지향과 문화적 수요에 입각하여 텍스트가 당대 사회에 대하여 지니는 시사점과 가치를 탐색하고, 역사적 텍스트에서 당대 사회생활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은 학습자가 현실적 상황과 현대적 관념을 출발점으로 삼아, 문학 정전 속에 깊이 내포된 당대적 가치를 느끼고 생각하도록 더욱 잘 유도할 수 있다.

### III.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의 한국 현대소설의 읽기 양상

본 장에서는 수집된 학습자의 감상문, 인터뷰 및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 한국 현대소설을 이해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의 한국 현대소설 읽기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소설 내의 사회·역사적 정보를 포착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기존의 사회·역사적 맥락과 소통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내면화 단계를 통해 독자 개인만의 텍스트 의미와 사회·역사적 맥락을 재구성한다. 이 세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 단계들 간 사이에는 어떠한 명확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서 제기한 원리에 따라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적 정보의 포착’, ‘텍스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소통’, ‘텍스트 의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재구성’으로 나누어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실제로 한국 현대소설을 읽을 때의 반응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텍스트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국인 학습자가 겪는 장애와 어려움도 분석하고자 한다.

#### 1.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적 정보의 포착

외국인 학습자는 소설을 접할 때 우선 해당 언어를 해독함으로써 표면적으로 소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텍스트의 언어 정보를 추적하여 그 안에 담긴 사회·역사적 정보를 찾아내고, 동시에 이와 관련된 사회·역사적 상황을 상상하면서 소설 세계를 구성한다. 이 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사회·역사적 정보 포착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과정은 곧 학습자가 사회·역사적 맥락을 재구성하는 첫걸음이라고도 볼 수 있다. 1차 감상문과 1차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소설 속에서 어떤

사회·역사적 정보를 포착하는지, 그것을 왜 사회·역사적 정보로 여기는지, 포착된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크게 ‘언어적 수준의 사회·역사적 정보’, ‘언어 외적 수준의 사회·역사적 정보’로 나누어 살필 예정이다.

## (1) 언어적 수준의 사회·역사적 정보

독자가 소설을 읽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텍스트의 언어이다. 언어적 수준의 사회·역사적 정보는 특정 단어 또는 문장 구조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가장 표면적인 정보로, 중국 학습자가 가장 쉽게 포착할 수 있는 정보이다. 만약 어떤 특정한 사회·역사적 맥락과 관련된 언어적 정보가 학습자에게 포착된다면 그것은 곧 학습자의 독자적인 텍스트 의미 구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언어적 수준의 사회·역사적 정보를 포착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사회·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면 텍스트와 소통하는 과정이 더 쉬워진다. 더불어 그렇게 학습자에 의해 재구성된 사회·역사적 맥락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

우선 학습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당대 기관으로부터 포착한 사회·역사적 정보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소설의 첫 장면인 ‘그’는 삼국의 옷을 입고 다니고 3개 국어를 구사하며, 한·중·일 3국 사람과 같은 차이에 있다. 이것은 당시 한국이 특수한 역사적 시기를 겪고 있었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뒷글의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民會社)’, ‘일본의 가진야도’ 등의 고유명사를 통해 당시 한국이 일제 강점기에 처해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13-R1-「고향」]<sup>86)</sup>

위의 [13-R1-「고향」] 학습자는 소설의 첫 장면에 주목하며 인물의 옷차림을 먼저 언급하였다. 이 학습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오늘날 한국인

86) 此小说中的第一个画面,也就是“他”身着三国服装,口说三国语言,与中日韩三国的人同坐一辆车厢。这含蓄地表明那时的韩国正在经历一个特殊的历史时期。通过后文的“东洋拓殖会社”“日本的工人汇集所”等专有名词直接表明此时的韩国正处于日本殖民统治时期。

의 옷차림과 텍스트 속 인물의 옷차림에서 큰 차이를 발견했다. 또한 인물의 언어 능력, 교통 환경 장면 등에 주목하여 3국 요소가 혼재 양상을 통해 한국이 특수한 역사적 시기에 놓여있었음을 판단했다. 하지만 이 정보들에는 구체적인 역사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뚜렷한 기호가 없었기에 이 학습자는 이러한 언어 외적 사회·역사적 정보들을 ‘특수한 역사적 시기’ 정도로만 해석했을 뿐 구체적인 역사 시기를 판단하지 못했다. 반면 ‘동양척식회사’, ‘가진야도’ 등의 명칭을 성공적으로 포착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동양척식회사’와 같은 기관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만 존재하였기에 오늘날의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학습자는 본연의 언어적 지식을 통해 기관의 정보를 인식하였다. ‘동양척식회사’라는 명칭 자체가 식민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이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기관으로 판단하였고, 당시 한국이 일제강점기에 처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언어적 수준의 사회·역사적 정보 확보는 중국인 학습자가 언어 외적의 사회·역사적 정보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역사적 배경을 직접 판단하는 데에도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장소에 주목하여 언어적 수준의 사회·역사적 정보를 포착하는 학습자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문에서 나타난 ‘번지’라는 단어는 일본어에서 온 것으로 한국 고유의 지리 행정 단위가 아니다. 한국의 행정 단위는 도나 동이라는 것을 한국 개황 수업에서 배웠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국 본지의 행정 단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문에 주인공과 아내가 ‘33번지’라는 고유 명칭이 아닌 지리 행정구역으로 이사한 것을 통해 소설 이야기가 한반도가 일본에 점령되어 식민지로 전락한 일제강점기에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30-R1-「날개」]<sup>87)</sup>

87)本文中出现的“번지”一词来自于日语，并不是韩国固有的地理行政单位。我在韩国概况课上学过，韩国的行政单位可能是道或者洞，这说明这不是韩国本地的行政单位。通过文中提出主人公和妻子搬入“三十三番地”这一非固有命名的地理行政区域，可以从中推测出小说故事的发生时间发生在朝鲜半岛被日本占领，而沦为殖民地的日帝强占期。

위의 [30-R1-「날개」] 학습자는 한국 고유 주소 표기 방법인 ‘번지’를 통해 사회·역사적 정보를 판단하였다. 이 학습자는 일본 문화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활용하여 이 단어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도입된 단어로 보고, 이 단어가 일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살려 ‘번지’가 한국 고유의 행정 단위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역사적인 것과 관계가 없어 보인다. 한·일 왕래가 빈번한 오늘날에는 일본어 단어가 한국어에 도입되거나 한국어 단어가 일본어에 도입되는 문화 현상이 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아가 이 학습자는 ‘번지’라는 단어에는 단순히 문화적 속성뿐만 아니라 행정적 속성과 정치적 속성도 들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였다. 이렇듯 이 학습자는 ‘번지’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소설의 배경을 일제강점기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의 배경지식은 언어적 사회·역사적 정보를 포착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호칭에 주목하여 언어적 수준의 사회·역사적 정보를 포착하는 학습자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를 ‘과부’라고 부르며 이름 있는 어린 소녀를 직접 ‘과부 딸’이라고 부른다든지,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혜낭녀’가 되어 딸의 앞날을 망칠까 봐 아저씨의 고백을 거절하기로 결심하든지, 이때의 용어들은 모두 당시 사회에서 과부로 지내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보여준다. 당시 사람들은 남편이 죽은 뒤 여성이 재가하는 것이 불결하다고 보고 심지어 그녀의 아이를 손가락질했을 것이다. 또한 당시 사회의 사람들은 대부분 교양이 높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8-R1-「사랑손님과 어머니」]<sup>88)</sup>

위의 [28-R1-「사랑손님과 어머니」] 학습자는 여성에 대한 호칭들을

88) 无论是村里人称妈妈为“寡妇”，直接把有名有姓的小女孩叫做“寡妇的女儿”，还有妈妈担心自己成了别人口中的“荡妇”影响女儿的未来，决意拒绝叔叔的告白。这些用词都展现了当时社会对于守寡女性的刻板印象和成见。他们认为女性在丈夫死后再嫁是不忠不贞，甚至会对她的孩子指指点点。而且也说明当时社会人们的素质普遍不高。

사회·역사적 정보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호칭은 오늘날 한국의 호칭 예절에서는 더 찾아볼 수 없는 호칭이다. 이 학습자는 과거의 표현과 오늘날의 표현을 비교하며 그 단어에서부터 역사적 특징을 발견하였다. 특히 이 학습자는 ‘과부’와 ‘과부 딸’이라는 호칭을 통해 텍스트 안의 인물들 사이의 관계와 그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을 인식하였다. 또한 ‘혜양녀’라는 단어를 통해 어머니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도 해석하였다. 학습자는 위와 같은 해석과정을 통해 텍스트의 플롯과 인물 간 갈등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학습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학습자의 감상지에서도 호칭 차원의 사회·역사적 정보를 포착해 내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특히 ‘과부 딸’이라는 용어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소설이 일인칭 ‘나’로 서술되어 있어 독자들이 텍스트 중의 ‘나’에 자신을 쉽게 대입하기 때문이다. ‘나’가 ‘과부의 딸’이라고 불릴 때 독자들은 이 사회·역사적 정보를 민감하게 포착한다.

## (2) 언어 외적 수준의 사회·역사적 정보

소설은 완전한 스토리를 통해 인물 이미지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문학 장르다. 소설의 핵심이 되는 인물을 더욱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작가는 언어 외적인 것으로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설에는 언어 외적의 사회·역사적 정보가 매우 풍부하다.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문자화된 언어로 표현된 것이긴 하지만 소설에서 인물 언행의 진실성을 부각시켜 주고 독자에게 작품 속에 숨은 심층적인 의미를 탐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 인물의 발화 행위에 주목하여 언어 외적 수준의 사회·역사적 정보를 포착하는 중국인 학습자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기차 안에서 주인공은 ‘나’에게 주동적으로 ‘어디까지 가는지요?’라고 묻고 ‘나’도 서울에 간다는 것을 알고 돼서 ‘참 반갑구마’고 감탄하였다. 이것은 주인공과 같은 농민이 아주 순박하고 열정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나’가 서울에서 꽤 오래 살았다는 것을 알고 제일 먼저

물어본 것도 ‘시방 가면 무슨 일자리를 구하겠는기오?’를 통해 알 수 있다. 이것은 주인공이 일자리에 대한 갈망을 구현하고, 더욱 하층민 생활의 고생스러움을 반영하고 있는 장면이다. [01-R1-「고향」]<sup>89)</sup>

위의 [01-R1-「고향」] 학습자는 주인공이 주동적으로 ‘나’에게 말을 거는 행동에 주목하였다. 이 학습자는 오늘날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냉담한 사회현상과 그렇지 않았던 과거의 사회현상을 비교하였다. 요즘 사회에서는 현대인이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행위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공의 이런 행위가 소설이 속한 시대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어서 주인공의 이런 행동양식을 순박하고 열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기까지 한다. 이를 통해 당시 한국 농민들의 성격과 정서를 이해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학습자는 주인공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알아보는 행위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정상적인 경제 환경에서 사람들은 생계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경제불황이 되면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 따라서 이 학습자는 주인공의 이런 행위가 특정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사회·역사적 정보로 판단한 것이다. 학습자는 이 정보를 통해 그 시절의 하층민들이 경제적 어려움까지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인물 발화 행위를 통해 사회·역사적 정보를 포착하는 것은 중국인 학습자가 텍스트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인물의 성격과 삶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여 준다. 또한 작품 감상의 깊이가 더해진 텍스트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통찰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인물의 사회적 지위에 주목하여 언어 외적 수준의 사회·역사적 정보를 포착하는 중국인 학습자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아내는 기생이지만 주인공은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하루 종일 춥고 축축한 이불 속에서 아내의 직업과 손님이 왜 아내에

89) 在火车上, 主人公主动问“我”道“你上哪嘎达?”, 并且在得知“我”也是去首尔后, 还感叹到“太好啦”。这说明像主人公这样的农民是非常淳朴和热情的。在得知“我”在首尔住过挺长时间, 第一时间询问的也是“现在去那儿, 能有啥活儿干啊?”, 这体现了主人公对于一份工作的渴望, 更体现了底层人生活的艰辛。

게 돈을 주는지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이 단락의 묘사는 결코 주인공이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주인공의 나약과 무능, 무감각함을 아이러니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아내에게 한마디 추궁할 용기도 없다. 심지어 쇼핑하러 나갔다가 돈을 못 썼다고 아내에게 돈을 돌려주는 행위도 우쭐거리며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묘사들은 나로 하여금 작가와 공감하게 하고, 크나큰 굴욕과 분노를 느끼게 한다. [34-R1-「날개」]<sup>90)</sup>

위의 [34-R1-「날개」] 학습자는 주인공이 아내의 직업을 모르면서도 묻지도 못하고 혼자 고민할 수밖에 없는 행동 양상에 주목하였다. 또한 돈을 통해 아내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주인공의 행위를 이상하게 여겼다. 한국은 예로부터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이 가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주인공의 이런 행위는 학습자가 처한 사회 환경이나 자신이 생각해 온 예로부터의 사회 구조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적인 특징으로 판단하였다. 이 학습자는 주인공의 이러한 행동 양상을 주인공의 무지와 무력감으로 해석하며, 그의 현실 인식 부족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작가의 표현 기법까지 서술하였는데, 작가의 묘사 방식을 언급하고 있다. 자신 스스로가 느낀 굴욕과 분노의 감상을 통해 작가와 공감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학습자는 주인공의 행동 양상에 대한 개인적 해석의 단계까지만 도달했을 뿐, 주인공의 사회 계층인 '지식인'의 보편적 특징으로 확장하는 해석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따라서 이때 교사가 '소설 내용에 따르면 아까 얘기했던 행동들을 한 주인공의 신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와 같은 질문을 적절히 던질 수 있다면, 학습자는 '나'가 이불 속에서 발명을 한다는 것, 논문과 시를 쓰는 것과 같은 텍스트 내용을 통해 주인공이 지식인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만약 학습자가 질문에 따라 주인공의 사회 계층을 스스로 추측해 내지 못한다면 교사는 지식인의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소설 내

90) 妻子是一名妓女，可是主人公却对此一无所知，只能整天在阴冷潮湿的被褥里研究妻子的职业，以及客人为什么要给妻子钱。这一段描写并非是说主人公愚蠢至极，而是借此讽刺主人公的软弱无能和麻木，他连向妻子追问一句的勇气都没有。甚至还因为出去逛街没能花掉钱而把钱还给妻子这样一个行为都能沾沾自喜。这些描写使得我与作者共情，感到了极大的屈辱与愤怒。

용을 제시하면서 학습자에게 힌트를 주어야 한다. 그런 뒤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지식인이라는 보편적인 계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주인공으로 대표되는 당대 지식인의 행동 양상 및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외적 맥락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여 당대의 지식인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소설과 관련된 사회·역사적 맥락을 구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어서 인물의 대인 행동에 주목하여 언어 외적 수준의 사회·역사적 정보를 포착하는 중국인 학습자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의삼촌에게 아저씨에게 밥을 보내라고 하고 '나'에게 아저씨에게 물건을 건네라고 한 어머니의 행동①을 보면 이것은 어머니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한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예배했을 때 '나'가 아저씨를 불렀는데 어머니가 '나'의 입을 막은 것②을 보면 그때 과부가 다른 남자와 연락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지저분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는 아저씨가 주신 줄 알았던 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고 아저씨에게 계란을 많이 사 준 것③을 보면 아저씨를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당시 사회의 봉건사상이 뿌리 깊었음을 알 수 있다. 과부가 재가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저씨가 함께하지 못하여 사랑의 비극이 생겼다. [28-R1-「사랑손님과 어머니」]<sup>91)</sup>

위의 [28-R1-「사랑손님과 어머니」] 학습자는 주로 어머니의 대인 행동에 주목하여 사회·역사적 정보를 포착하였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남성과 자유롭게 다시 연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91) 从妈妈让舅舅给叔叔送饭以及让我给叔叔递东西的行为可以看出妈妈是为了避嫌。在做礼拜时我叫叔叔，妈妈却捂住我的嘴，可见当时寡妇若与其他男人有联系，会被人们看做是不检点的行为。但妈妈珍藏着以为是叔叔送的花，以及买很多鸡蛋做给叔叔吃，可见妈妈是喜欢叔叔的。从这里可以看出当时社会的封建思想是根深蒂固的。寡妇如果再嫁便会受人们指指点点，正是这种思想导致相爱的妈妈和叔叔没能在一起，导致爱情悲剧的上演。

보수적인 시대적 배경에서의 ①의 행동을 역사적인 것으로 판단하한 것이다. 따라서 이 학습자는 어머니의 대인 행동을 통해 당시 한국 사회의 관습과 인식을 파악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학습자는 어머니의 이런 행위를 능동적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또 이렇게 과부에 대해 차별적인 시선을 갖는 사회적 풍습이 주인공에게 부당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다소 부적절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남편을 잃은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장소에서 다른 남성과 자유롭게 인사할 수 있다. 하지만 ②에서는 어머니가 다른 남성과 인사하는 딸을 제지했다. 이런 행위는 연애가 자유로운 오늘의 사회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학습자는 그것을 역사적인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학습자는 당시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인식에 영향을 받은 인물들의 행동 양상을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③은 현대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것을 단독적으로만 해석하여 역사적 정보와 연관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이 학습자는 ③의 대인 양상을 앞의 주인공 행위와 연결하였기에 역사적 요소로까지의 해석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 ③과 같은 행동은 자발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이 소설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와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학습자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머니의 이러한 행동 양상을 당시 사회의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봉건사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제약과 가치관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저씨가 함께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작품의 핵심 주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탐구하였다.

다음은 가치관에 주목하여 언어 외적 수준의 사회·역사적 정보를 포착하는 중국인 학습자의 양상을 살펴보고 한다.

소설 속에서 '돈'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남편은 돈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어느 날 외출한 뒤 돈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바꾼다. 심지어 부부가 함께 산다는 정상적인 생활방식은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주고 나서야 가능하기 때문에 금전지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소설에서 '19세기는 될 수 있거든 봉쇄하여 버리오.'라는 말이 나왔

다. 19세기는 서구 자본주의가 급속이 발전하던 시기였는데 작가가 이렇게 쓴 의도는 서구 자본주의의 충격으로 돈이 최고라는 왜곡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29-R1-「날개」]<sup>92)</sup>

위의 [29-R1-「날개」] 학습자는 인물의 가치관을 통해 역사적 정보를 포착하였다. 이 학습자는 텍스트 안에 특정한 사물인 ‘돈’에 초점을 맞추었다. 돈에 대한 남편의 인식 변화, 그리고 돈으로 유지되는 부부 사이를 당시 한국에서 돈을 최고로 여겼던 사회 모습을 읽어냈다. 다른 학습자와 달리 특징적인 양상은 이 학습자가 텍스트 내의 역사적 지표인 ‘19세기’와 연계하여 텍스트를 해석하였다는 점이다. 이 학습자는 19세기 역사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여 이러한 사회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자본주의의 충격으로 추측하였다. 이 학습자의 이러한 감상 양상을 통해 소설 내적의 정보들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학습자는 서구 자본주의가 한국에 미친 영향에 관한 사회·역사적 맥락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였기에 작가의 창작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9-R1-「날개」]의 학습자 양상은 당시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파악하는 데에서 그쳤던 다른 학습자 양상에 비해 소설 속 사회 모습이 형성된 원인을 더 깊이 탐구하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편향적인 해석까지 낼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가 익숙하지 않은 역사적 요소를 보완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해당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외에 신앙 차원에서 언어 외적 수준의 사회·역사적 정보를 포착하는 중국인 학습자도 있다.

---

92) 小说多次出现“钱”，丈夫从不在意钱，到出门后转变想法，认为只要有钱就好了。甚至夫妻同住这种正常生活方式，都要在丈夫给妻子钱后才能实现，反映了金钱至上的一种社会氛围。小说中写到“尽可能的话，把十九世纪封锁吧”，十九世纪是西方资本主义迅速发展的时期。作者这样写是不是意在表明正是遭到西方资本主义的冲击后，才使社会形成了金钱至上的扭曲的社会氛围？

옥희의 어머니를 비롯한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는데, 그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 등을 통해 한국 민중의 일상생활에서 종교의 중요한 지위와 보편성을 알 수 있다. 봉건주의, 식민주의와 서양사상이 맞물린 근대 한국에서 기독교가 하나의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이는 한국의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웠다는 것을 다른 면에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의 한국에서 이런 다종교적 현상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종교의 출현은 많은 역사적인 원인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18-R1-「사랑손님과 어머니」]<sup>93)</sup>

위의 [18-R1-「사랑손님과 어머니」] 학습자는 텍스트 속 인물들의 종교 활동을 통해 한국 민중은 일상생활에서 종교를 믿는 역사적 정보를 포착하였다. 이어서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근대 한국의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기독교가 자리 잡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봉건주의와 식민주의의 영향 하에 서양 사상이 한국 사회에 도입되면서 기독교가 하나의 신앙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학습자는 기독교가 민중의 어려운 생활에 희망과 위로를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작품 속 인물들의 신앙과 일상생활의 연결고리를 이해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종교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견해는 다소 개인적인 주관적 이해와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이 학습자는 텍스트 안의 태도 차원의 사회·역사적 요소를 통해 한국의 다종교적 현상과 역사적인 원인을 설명해 내었다. 이를 통해 작품 속 종교적 요소가 한국 역사의 깊이 있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상 차원에서 언어 외적 수준의 사회·역사적 정보를 포착하는 학습자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93) 玉姬母亲以及村里的很多人信奉基督教,从她们去做礼拜,睡前祷告,朗读赞美诗集等可以看出可以看出宗教在韩国民众日常生活中的重要地位与普遍性。在封建主义、殖民主义与西方思想冲击的近代韩国,基督教作为一种信仰寄托得到了人们的认可,也侧面体现出韩国普通民众的生活较为艰难。这还说明韩国目前这种多宗教的现象不是突然出现的,而是有历史渊源的。

어머니는 여주인이지만 조건이 좋은 사랑방에 살지 못하고 어린 소녀와 함께 안방에서 산다.① 아버지가 썼던 사랑방은 외삼촌과 아저씨 같은 남성들만 쓸 수 있다.② 그리고 어머니는 사랑방에 쉽게 들어가지 않고 어린 소녀에게도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한다.③ 어머니는 집안을 드나들 때 정문이 아닌 옆대문을 이용하는 것④을 포함하여 이런 세부적인 것을 통해 어머니는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사상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이고 저항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텍스트 안의 다른 사람들도 이런 습관에 의외롭지 않을 정도로 당시 한국 사회에서 남존여비의 관념이 이미 대부분 사람의 마음속에 고착되었음을 보여준다. [21-R1-「사랑손님과 어머니」]<sup>94)</sup>

위의 [21-R1-「사랑손님과 어머니」] 학습자는 텍스트에서 체현된 남존여비 사상을 사회·역사적 요소로 발견한다. 학습자는 ①을 통해 텍스트 속 여성 인물들의 사회적 위치와 그에 따른 제한된 생활 환경을 이해하고 있고, ②를 통해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이 당시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뚜렷한지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③을 통해 이 학습자는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과 가치에 순응하려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④를 통해서도 당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열등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규범에 따른 것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양보하는 문화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학습자는 텍스트 속 다른 인물들도 남존여비의 관념에 순응하며 사는 것을 통해 당시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 가치관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작품 속의 성차별적 사상 요소와 사회·역사적 맥락을 연결시켜 한국 현대소설의 이해를 높이고, 한국 사회·역사의 다양한 측면을 인식할 수 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94) 妈妈作为女主人却不能住在条件较好的厢房，而是和小女孩一起住在内屋。爸爸用过的厢房只能让舅舅和叔叔这样的男性使用。而且妈妈不轻易进入厢房，还嘱咐小女孩也不要随意进入。包括妈妈进出家里也用的是旁边的大门，而不是走正门。从这些细节可以看出来妈妈早已潜移默化地接受了男尊女卑的思想，丝毫没有反抗的意思。文中其他人对这些习惯也不觉得意外，说明当时韩国社会男尊女卑的观念已经固化在大部分人心中。

## 2. 텍스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소통

이 절은 학습자가 기존의 사회·역사적 맥락과의 소통을 통해 소설의 역사적 정보를 해석하는 양상이다. 스키마(Schema)는 우리 기억 속에 이미 저장된 경험의 총체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기억 내용이자 우리의 지식을 가르킨다.<sup>95)</sup> 소설교육에서 이것은 텍스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지식일 수도 있고, 텍스트의 특정 묘사에 대한 해석일 수도 있으며, 텍스트의 역사적 배경이나 작가 소개일 수도 있다.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회·역사적 맥락은 학습자에게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글쓰기 문맥을 정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작가의 창작 의도를 이해하고 작품의 취지를 깊이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인 학습자는 대체로 기존 사회·역사적 맥락과의 소통을 통해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국에서 받는 국어교육 모델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는 기존 사회·역사적 맥락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텍스트 내의 역사적 정보를 해석하고 텍스트를 이해한다. 이 절에서는 학습자의 1차 감상문과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거시 한국 역사와의 조희'와 '자국 역사와의 비교'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거시 한국 역사와의 조희

중국인 학습자들이 기존의 한국어교육 체계에서 받아들이는 한국 역사 지식은 주로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포착된 소설 내의 미시적 역사 정보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배경지식 속의 거시 한국 역사와 조화시킬 것이다. 거시 역사는 일반적으로 큰 측면이나 총체를 대상으로 삼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역사적

---

95) 로명완 외, 『국어과교육론』, 갑을출판사, 1998, 215쪽.

현상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사건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시 역사만으로는 총체적인 문제만 설명할 수 있을 뿐 국부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람, 사건, 사물에 관심을 기울이며 국부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미시 역사를 간과할 수는 없다. 중국인 학습자는 소설을 통해 텍스트 내의 미시 역사적 정보를 접하게 되며 그것을 자신의 배경지식 속의 거시 한국 역사와 결합시킨다. 이 과정을 통해 각기 다른 역사가 서로 중첩되거나 어긋나는 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소통과정에서 더욱 풍부한 역사적 의의를 탐구하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중국인 학습자가 소설 속에서 미시 역사적 정보를 발견하여 그것이 거시 한국 역사와 어떻게 어긋나는가를 발견해 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소설이 다루는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는 일제시대와는 아주 달라요. 그때의 한국인들은 매우 가난하게 살았고, 헐벗고 굶주렸을 텐데요. 마을이 모두 일본인에게 점령당했고, 여기저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텍스트의 마을은 아주 평온해 보여요. 어린 소녀와 외삼촌이 모두 정상적으로 학교에 갈 수 있을 정도요. 유치원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어린 소녀가 며칠 안 돼서 감히 혼자 왔다 갔다는 것에서 현지의 치안이 괜찮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곳은 일본과는 별 상관이 없고 사람들이 봉건적인 생각을 가진 조용한 마을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것은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인데, 당시 한국에는 뜻밖에 이렇게 심각한 봉건사상이 있었어요. [24-D-「사랑손님과 어머니」]<sup>96)</sup>

위의 [24-D-「사랑손님과 어머니」] 학습자는 이 텍스트가 거시 한국 역사와의 다른 점을 민감하게 발견했다. 이 학습자는 거시 역사 관점에서 한국 일제시대의 가난과 전쟁을 언급하고 있고, 당시 한국의 사회 상

96) 这篇小说讲的故事和我了解的日帝时期很不一样。那个时候韩国人应该生活地很贫苦，吃不饱穿不暖。村子都被日本人占了，并且到处都在打仗才对。但是文中的村庄看起来很平静，小女孩和舅舅都可以正常上学。幼儿园设施也很完备，而且从小女孩去几天就敢独自来回这一点也能看出当地治安还行。给我的感觉就是这是一个很平静的村庄，人们的思想都很封建，似乎和日本没有太大关系。这是我以前没有了解的，当时韩国居然还有这么严重的封建思想。

황에 대해 고정된 인상을 가지고 있다. 반면, 소설 내의 미시 역사에서는 일본과의 갈등이나 전쟁의 영향이 적고 상대적으로 평온한 마을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러한 미시 역사를 통해 학습자는 당시의 일상생활과 인프라, 치안 상황을 상상하면서 거시적 일제강점기 역사와 소설 속 미시 역사와의 차이를 발견하고, 당시 한국 사회의 다른 면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면’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다시 ‘봉건사상’이라는 거시적 역사에 대입시켰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거시 역사로 텍스트 내의 미시 역사적 정보를 해석하려는 강한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거시 한국 역사와의 조화과정에서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의 인식 부족을 성찰하여 당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려는 긍정적 자세도 관찰되었다.

다음은 학습자가 거시 한국 역사를 통해 미시 역사와의 충돌을 발견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날개」를 처음 읽었을 때 의문 하나가 들었다. 소그 시절의 한국은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임이 틀림없었는데 설 속 여러 차례 묘사한 것인 방과 옷차림, 음식 대비 등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 얼마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인공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루 종일 암담한 환경에 놓여 때때로 글쓰기로 자신을 마비시킨다. 당시의 통치에서 사회에 재능 있는 남자들이 탄압을 받고 자신의 포부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마음속으로도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아 스스로 타락하여 의기소침하게 살았다. [38-R1-「날개」]<sup>97)</sup>

위의 [38-R1-「날개」] 학습자는 주인공과 아내의 생활공간, 의식 조건 등의 차이에 주목하여 이러한 미시 역사의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장 먼저 텍스트 내의 미시적인 남녀 역할과 권력 구분을 지적한다. 이것은 거시 한국 역사인 가부장제 사회와 충돌되는 요소이다.

97) 初读《翅膀》我就产生了一个疑惑，那个年代的韩国无疑是一个彻底的男权社会，但小说中多次描写房间、衣食的对比等男女性完全颠覆的情况是如此的不合理。主人公是一个有才华的人，但他整日处在暗无天日的环境中，有时只能通过写作来麻痹自己。可能是因为当时的统治下，这些社会上有才华的男人受到了打压，无法施展自己的报复，内心也受到了一定的冲击，自己也堕落了，然后消沉地过着生活。

그리고 이 학습자는 이러한 충들의 원인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려고 한다. 가령 텍스트 안의 남성이 특수한 처지에 처해 있다고 추측하고 거시 한국 역사로 다시 돌려서 해석의 출구를 찾아보려고 하는 식의 양상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미시 역사를 작가의 개입으로 판단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현실의 반영이라기보다는 작가가 소설을 위해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 낸 것으로, 이것을 한국 지식인의 처지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였다. 이 학습자처럼 거시 한국 역사와 부딪치는 역사적 정보를 일반적인 미시 역사 수준으로만 읽어내지 않고 그러한 정보를 거시 한국 역사와 비교하며 읽는 방식으로 소설 내용을 해석해내는 것은 텍스트 의미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과정을 거친다면 학습자는 텍스트를 더 깊이 있게 평가하거나 감상하는 층위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텍스트 내의 미시 역사를 통해 거시 한국 역사와 종속된 점을 발견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가족들과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세상이 뒤바뀌자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가 땅을 선점하고 지주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와 가족들은 살아갈 수 없었다. 이는 당시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취했던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 조치 때문이다. 또한 ‘그’와 가족들이 ‘서간도’로 가서 살길을 찾다가 실망하게 돌아왔다는 경험은 1860~70년대 대량 조선 인민들이 두만강(圖們江)을 건너 중국 동북의 황무지로 와서 개간하였다는 역사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09-R1-「고향」]<sup>98)</sup>

위의 [09-R1-「고향」] 학습자는 거시 한국 역사와 미시 역사를 조화롭게 연결하고 있다. 이 학습자는 일본이 일제시대의 한반도에서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하고 주인공의 땅을 선점하였다는 역사적 정보를 성공적으로

98) “他”和家人以种地为生，但是由于世道变化，东洋拓殖会社抢占土地并实行地主权利，他和家人的生活变得民不聊生，这正是由于当时日本对朝鲜半岛进行殖民时所采取的“土地调查事业”措施所造成的。而“他”和家人曾去往“西间岛”谋取生路，但却失望而归这一经历则包含了19世纪六七十年代，大量朝鲜平民渡过图们江来到中国东北的荒地进行开拓这一历史信息。

포착하였다. 그리고 이 미시 역사를 거시 한국 역사인 ‘토지조사사업’과 연결하여 주인공의 처지를 해석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거시 역사적 사건이 미시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학습자는 주인공이 서간도로 가는 미시 역사를 바탕으로 더 넓은 시간대의 거시 역사적 사건을 끌어오는데, 조선인이 두만강을 건너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주하여 땅을 개간했던 역사를 통해 작품 내 인물들의 경험과 역사적 사실과의 관계를 연결 짓는다. 이렇듯 이 학습자는 거시 한국 역사와 텍스트 내의 미시 역사 사이의 상호관계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 내의 미시 역사가 거시 한국 역사에 어떻게 종속되는지, 그리고 거시 역사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깊이 있는 텍스트 이해와 해석 능력을 기대해 볼 수 있었고, 거시 역사적 사건과 개인의 생활 사이에서 어떠한 연결점과 상호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 (2) 자국 역사와의 비교

중국인 학습자는 자국 사회·역사적 맥락에 영향을 깊게 받기 때문에 한국소설을 읽을 때 늘 우선 동시대의 자국 역사를 환기하여 그때 중국의 역사적 상황을 회상한다. 외국인 학습자는 낯선 타국의 역사보다 자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의존하는 경향을 띤다. 이러한 간섭은 중국인 학습자에게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모국어 화자와 다른 참신한 문학적 관점을 낳을 수도 있다. 우선 중국인 학습자가 자국 역사로 텍스트 내의 한국 역사를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는 사실 재능이 있고 자기의 행복과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자신의 감정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시험에 들지 말게’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삼종사덕(三從四德)’<sup>99</sup>과 ‘삼강오상(三綱五常)’<sup>100</sup>이라는 봉건적인 예교를 따른다.

[16-R1-「사랑손님과 어머니」]<sup>101)</sup>

위의 [16-R1-「사랑손님과 어머니」] 학습자는 어머니의 언어와 행위가 직접적으로 중국 고대의 봉건 윤리를 지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런 해석 방법은 당시의 한국 사회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학습자는 유교가 한국에 미친 영향과 한국에 전해진 뒤 일어날 수 있는 변화까지 인식하지 못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학습자들은 ‘봉건 윤리’, ‘봉건사상’ 등의 지식을 활용해 텍스트 내의 역사적 정보와 관련된 시대 상황을 파악하였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자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활용하려는 적극성을 다시 한번 반증한 것이다. 다음의 학습자는 역시 자국 역사를 환기하여 텍스트 속의 역사 정보를 이해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소설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에서 ‘니코틴’, ‘육신이 흐느적흐느적하다’와 같은 표현은 중국 아편 전쟁(鴉片戰爭) 이후의 반식민지 시기의 백성들과 사회의 병적인 상태를 즉시 연상케 하는데, 주인공의 신체적 상태가 ‘피로하고’, 정신 상태가 ‘백지’라는 점이 당시 중국 국민의 상황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것은 아래의 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과 주인공의 처지를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40-R1-「날개」]<sup>102)</sup>

99) 삼종사덕은 중국 고대 봉건 윤리에서 여성을 속박하고 압박하는 도덕 기준 중의 하나이다. ‘내외유별(즉, 남자는 외적에 속하고 여자는 내적에 속하는 사회적 분업)’의 원칙에 따라 유교 윤리로 여성의 도덕과 행동, 수양을 평생에 걸쳐 규제한다. 삼종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에게’라는 뜻이다. 사덕은 ‘부덕(婦德, 인품과 덕성), 부언(婦言, 바른 말씨), 부용(婦容, 단정하고 엄숙하며 온유함), 부공(婦功, 방직/자수/바느질 등의 가사)’이라는 뜻이다.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16, p.1121.

100) 유교에서 주장하는 사람 간의 도덕 기준이다. 삼강은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妻綱)’을 말하며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리를 가리킨다. 오상은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으로 사람이 항상 갖추어야 하는 다섯 가지 도리를 가리킨다. 전자와 후자를 통칭하여 강상(綱常)이라고 한다.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16, p.1122.

101) 妈妈其实是有才华的, 也渴望追求自己的幸福和爱情, 但是受周围环境的影响, 不得不克制自己的感情, 她不断重复“使我们免遭猜忌”, 遵从“三从四德”和“三纲五常”的封建礼教。

위의 [40-R1-「날개」]는 소설 중의 어떤 특별한 어휘를 동시대 중국인의 생존 상태와 결합하여 비슷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한국 사회상의 공백(空白)을 동시대 중국의 사회상에 대한 기억으로 메우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소설 세계의 사회 상황과 주인공의 처지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학습자는 해당 내용을 소설 전반의 의미와 연결하여 설명하지는 못했다.

여기까지 중국인 학습자가 자국 역사를 환기하여 텍스트와 관련된 한국 역사를 이해하는 긍정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자국 사회·역사적 맥락의 과도한 적용은 학습자에게 사회·역사적 정보에 대한 오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아래 학습자의 감상문을 살펴보자.

우선, 텍스트 속의 여성은 재혼할 수 없고, 재혼하면 부덕(婦德)에 어긋난다는 봉건사상으로 미루어보아 이 이야기는 봉건사회 시기의 일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어린 소녀의 어머니가 풍금을 타는 것을 보면 당시의 문화가 서양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배경은 17 혹은 18세기경, 즉 우리나라의 명(明)·청(淸) 시기일 것이다. [16-R1-「사랑손님과 어머니」]<sup>103)</sup>

위의 [16-R1-「사랑손님과 어머니」] 학습자의 경우, 재혼할 수 없는 주인공의 처지를 자국 역사 중의 '부덕에 어긋난다'를 활용해 이해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소설은 완전한 봉건사회 시기에서 전개된다고 짐작하는 것은 오관이다. 중국에는 명·청 시기에 여성에 대한 봉건적 압박이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봉건사회의 속박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중국인 학습자는 명·청 시대를 먼저 떠올린다. 따라서 이 학습자는

102) 在小说第二段的第一句中,“尼古丁”、“全身散架”等词语会让我一下子反应联想到了中国鸦片战争后半殖民地时期百姓与社会的病态,包括主人公的身体状况“疲惫”以及精神状态是“白纸”更是与当时的中国百姓不谋而合。这使我更好地更快速地理解了下文的社会现状以及主人公的境况。

103) 首先,根据文章中的女性不可以再婚,再婚的话就是违背妇德的封建思想可以推测,这个故事发生在封建社会时期。然后小女孩的妈妈还弹了风琴,说明这时候的文化受到了西方的影响。所以故事背景应该是在17, 18世纪左右,也就是我国的明清时期。

자국 역사 기억을 한국으로 그대로 옮기고 소설을 해석하였다. 결국 소설 세계의 시기를 잘못 판단하게 된 것이다.

위의 분석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역사적 맥락을 해석하는 데 있어 자국 역사를 매우 활발히 환기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인 학습자가 자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중국 사회·역사적 맥락을 유연하게 변통하고 선택함으로써 소설 이해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교사는 학습자가 가치 있는 자국 사회·역사적 맥락을 선별하여 환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맥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 외에 자국 역사와 텍스트와 관련된 한국 역사를 비교하는 중국인 학습자도 적지 않았다. 학습자는 소설과 관련된 시대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 자신이나 소속 집단의 사회·역사적 맥락 중에 그 시대 상황과 관련된 사회·역사적 맥락을 선택하고 한국 역사와 비교하면서 텍스트의 해석 방향을 모색하였다. 우선 중국인 학습자가 유사한 자국 역사로 비교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설에서 과부가 재가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저씨가 함께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역사적 시각에서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여자가 배우자를 잃고 재가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정절패방(貞節牌坊)<sup>104</sup>을 세울 수 있었던 중국 근대의 어느 시기가 떠올랐어요. 정절패방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 며느리에게 정조를 지키라고 강요하는 시대도 있었죠. 재가하면 사람들은 생활이 난잡하다고 말할 것이에요. 이런 사상 때문에 당시의 여성들은 고통 속에서 항상 사람들의 감시를 받으며 살았고 남자와 접촉할 때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

---

104) 보통은 옛날에 남편이 죽고 오랫동안 개가하지 않거나 자살하여 순장하고 당시 시대의 도덕성에 맞게 특수한 사적이 전해지는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지은 패방(牌坊)식 건축물을 가리킨다. 위의 내용의 출처: 중국 바이두 백과 홈페이지 [https://baike.baidu.com/item/%E8%B4%9E%E8%8A%82%E7%89%8C%E5%9D%8A/1019217?fr=aladdin]

렸어요. 저는 한·국 양국이 특정 시기에 여성의 결혼 자유에 대한 구속이라는 봉건적 사상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15-D-「사랑손님과 어머니」]<sup>105)</sup>

위의 [15-D-「사랑손님과 어머니」] 학습자는 작중인물의 행동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국 역사를 회상하였다. 이때 이 학습자는 텍스트 속의 ‘과부 재가 모티브’를 점점으로 자국 역사에서 이와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았다. ‘어머니가 재가하면 구설에 오른다’를 ‘중국 과부가 정절패방을 세운다’와 결부시킨 것이다. 중국 봉건사회 시기에 정절패방을 세우는 것은 여성에 대한 억압과 구속이기 때문에 이 학습자는 텍스트 속 주인공이 한국 봉건사상의 박해를 받았다고 추측하였다. 이러한 추측은 한국과 중국의 유사한 역사 경험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양국 역사의 유사점에서 출발하여 당대의 한국 사회 상황을 탐구하는 것은 어머니와 사랑손님 간의 사랑에 비극이 생긴 이유와 자유연애를 호소하는 작가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중국인 학습자는 양국 역사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낯선 한국소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한국 사회·역사적 상황을 탐색하고 텍스트를 수용하기 위해 양국 역사의 공통점에 대한 인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소설의 의미를 구성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양국의 유사한 역사를 무차별적으로 바라보면 불합리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맹목적인 적용의 근원은 역시 한국 사회·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양국 역사의 공통점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텍스트를 통해 한국과 자국 역사의 차이를 알아보는 중국인 학습

---

105) 小说中寡妇如果再嫁就会受人们指指点点，正是这种思想导致相爱的妈妈和叔叔没能在一起。我从历史的角度来说一下吧，读这篇小说让我联想到了中国近代有一段时期女子丧偶后不再嫁便可立贞节牌坊。如果能立贞节牌坊得话，他们会觉得是一种骄傲，因此婆家人有些会强制儿媳为丈夫守寡。而再嫁便会被人们说不检点，这种思想使当时女性活在痛苦中，时刻受人们的监督生活，但凡与男子接触便会成为人们的话柄。我觉得中韩两国在特定时期对于女性婚嫁自由的禁锢的封建思想是相似的。

자도 있다. 학습자가 역사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그때의 한국 사회 상황을 인지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그렇게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텍스트를 수용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중국인 학습자가 양국 역사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날개」에 등장하는 지하철, 백화점, 커피 등과 같은 현대적 사물은 당시 한국의 도시화가 중국보다 더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당시 중국 대부분 사람은 여전히 먹고사는 문제에 갇혀 있었어요. 아마도 당시 한국은 일본에 의해 더 깊은 식민지화된 상태라서 자본주의의 충격도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내가 남편이 있으면서도 성매매하는 상황이 처음에는 되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중국에서도 윤락업이 예로부터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혼 여성은 성매매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항상 성매매를 금지해 왔어요. 그런데 한국은 공창제<sup>106)</sup>를 도입해서 윤락업을 합법화했어요. 게다가 자본주의가 가져온 돈과 물질을 쫓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겹쳐서 기혼 여성까지 매춘하는 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는 나중에 한국 여성이 중국 여성보다 먼저 독립적 생각과 여성주의 사상을 갖게 된 데에서 영향이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40-D-「날개」]<sup>107)</sup>

위의 [40-D-날개] 학습자는 텍스트 속의 ‘지하철’, ‘백화점’, ‘커피’ 등의 역사적 정보를 포착하여 그때의 한국이 중국보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해석하기 위하여 한국 식민지 시대에 관련된 사회·역사적 맥락을 근거로 두었는데, 학습자는

106) 공창제(公娼制)란 일본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이른바 제국 일본의 영역 안에서 실시하였던 성매매 관리제도이다. 포주가 여성의 성을 팔고 남성이 성을 사는 것을 국가가 합법 또는 묵인하고, 등록 및 강제 성병 검진 제도를 통해 법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위의 내용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홈페이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44330&cid=46634&categoryId=46634>]

107) 《翅膀》里面出现的一些地铁、百货店、咖啡这种现代事物，让我觉得韩国城市化、都市化发展比当时的中国更迅速更靠前，中国当时大部分人还困于温饱问题中。可能是当时韩国处于被日本殖民程度更深的状态，所以受到资本主义的冲击也更大吧。还有我想说妻子明明是有夫之妇还卖淫这种情况，最开始我感到非常不解。中国虽然也一直有娼妓业，但是一般来说有夫之妇是不会卖淫的，而且政府一直是禁止卖淫的。但是韩国设立了公娼制度让娼妓业合法化了，再加上资本主义带来的追逐金钱和物质的社会风气，所以才会出现这种有夫之妇还卖淫的行为吧。我觉得这也很大程度上导致了后来韩国女性比中国女性更早地有了独立的想法和女权思想。

그 이유를 식민지화의 심화 그리고 자본주의적 충격이라고 추측하였다. 이 학습자는 또한 ‘기혼 여성까지 성매매’라는 역사적 정보에도 주목하였는데, 자국의 사회·역사적 맥락과의 차이로 인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이 역사 현상에 의문을 품었다고 밝힌다. 심지어는 다소 거부적이고 배척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1차 감상문 제출 이후 이 학습자는 연구자가 제공한 시대적 배경인 ‘공창제’<sup>108)</su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시 한국에서 합법화된 성매매 산업을 알게 됐고 이러한 역사 차이가 생긴 원인을 이해하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학습자는 그때의 한국 사회·역사적 맥락을 넘어 현재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환기하고, 여성주의 시각에서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였다. 이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에 비하여 양국 역사의 차이점을 비교할 때 텍스트 내용과 더 밀접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더욱 산발적이고 폭넓은 사고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는 적극적으로 자국 사회·역사적 맥락을 환기하여 양국 역사의 차이점을 날카롭게 발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학습자는 이런 차이점이 생긴 원인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교사에게는 교수-학습 단계에서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더불어 학습자가 자국과의 차이점을 발견한 부분에서 그 원인을 탐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3. 텍스트 의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재구성

108) 연구자가 제공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876년 조선이 개항한 이래 일본의 공창제도도 점차 조선에 유입되었다. 처음에는 일본인 매춘부들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조선 여자들이 늘어났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는 부산·인천·원산 등 일본인 거류지에서 성매매업소가 늘어나면서 일본식 공창제도가 본격적으로 조선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1904년 서울에 최초의 성매매업소가 개설되었다. 1906년 총독부가 설치된 이후 성매매업소는 전국적으로 일본인 거류지에 개설되어 공창제도가 조선에 본격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상징한다. 이런 공창화 정책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韓日併合條約)〉으로 조선이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강화됐다. 1916년까지 각 도의 공창 정책이 통일되고 〈대좌부창기취체규칙(貸座敷娼妓取締規則)〉이 공포되면서 조선에서 공창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립되었다. 한일합방 이후 공창수가 계속 늘어났다. 1910년 1426 명이던 성매매 여성 수는 1930년 말에 약 3000명으로 늘었다. 박정애, 「일제의 공창제 시행과 사창 관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58-70쪽 참조.

중국인 학습자는 자국의 사회·역사적 맥락과 한국의 사회·역사적 맥락 간의 소통을 통해 거시 한국 역사와의 조화 및 양국 사회·역사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모색한다.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 기존의 인식을 한층 조정하고 자아 성찰을 통해 사회·역사를 재인식하고 텍스트 의미를 재구성한다. 이러한 내면화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텍스트와 역사의 의미를 보다 객관적이고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토론 결과를 통합한 2차 감상문과 2차 인터뷰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과 자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의 소통에서 정서적 공감으로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두루 관찰할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텍스트의 능동성을 인식하고, 텍스트의 동시대적 가치를 발견하고, 맥락의 폭을 확장시키고, 자기인식을 조정하고, 역사에 대해 반성하는 양상을 살필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텍스트 의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재구성을 ‘사회·역사에 대한 재인식’, ‘텍스트 의미에 대한 재구성’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1) 사회·역사에 대한 재인식

학습자가 소설을 이해하는 것은 독자, 텍스트, 저자 간 심미적 대화 행위로, 이것은 곧 인간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인 사회·역사를 재인식하는 과정과도 같다. 사회·역사를 재인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사회·역사적 맥락의 장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식을 다듬어 사회·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시적인 사회·역사적 기억을 형성하며, 반성하는 자아를 발견한다. 사회·역사를 재인식하는 단계에 도달한 중국인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학습자가 이러한 능력을 발휘해 본인만의 사회·역사적 인식을 새롭게 형성해 내었다.

먼저 학습자가 사회·역사적 인식을 조정하는 양상을 살펴보자. 학습자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낯설거나 이전에 인식했던 것과는 다른 사회·역사적 맥락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역사적 맥락에 대한 수용이나 거부하는 학습자가 자신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확장 및 조정하는 데

작용한다.

저는 일제강점기 시대 한국은 주로 국민들이 식민 침략자와 투쟁을 했고, 당시 한국 사회가 완전히 서구화되었거나 일본 문화에 의해 완전히 침식당했다고 여기며 유교가 지배하는 봉건사상을 벗어나기 위해선 오랜 시간의 역사적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했어요. 소설을 읽고 나서야 저는 제국주의 외에도 완전한 봉건주의가 한국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 한국 여성의 결혼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중국과 너무 비슷했어요.[18-R2-「사랑손님과 어머니」]<sup>109)</sup>

위 [18-R2-「사랑손님과 어머니」] 학습자의 경우 1930년대 한국의 사회·역사적 인식에 대해 인지 조정이 이루어진 양상을 보여준다. 이 학습자는 과거 자신이 알고 있던 일제강점기의 사회 상황을 환기시켜 한국 사회·역사에 대해 자신의 이해가 부족함을 발견했다. 이 학습자는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이 완전히 서구화되거나 일본 문화에 의해 완전히 정복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소설을 통해 한국 사회가 완전한 봉건사상에 의해 얽매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연상하며 한국 역사에 대한 공감을 표현했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소설을 통해 사회·역사적 맥락을 확장하고 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학습자가 미시적인 한국 역사 기억을 형성하는 양상을 살펴보자. 거시적 역사는 종종 비주류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주류 의식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사실 역사는 매우 복잡하고 다원적이며 미시적인 영역이다.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의 역사에 주목하면 역사를 보다 직관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에도 접근할 수 있다.

---

109) 之前我认为日帝时期的韩国主要是人民和侵略者作斗争，偏向于认为韩国当时的社会是全盘西化，或是被日本文化完全侵占的状态，忽略了挣脱儒家主导的封建思想需要一个漫长的历史过程。读小说后才知道，原来除了帝国主义还有顽固的封建主义在压迫着韩国人民。当时韩国对于女性婚嫁自由的限制和中国竟如此相似。

한국어학과 학생으로서 그동안 한국 역사를 대체로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매우 부끄럽다. 이 소설은 나에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시각에서 하층민의 삶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하였다. 내가 그중에서 얻게 된 것은 차가운 역사적 지식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변화와 사람들의 심리 및 생활 상태, 일제강점기 일반 조선인들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인식과 직관적인 느낌이다. 앞으로 한국의 식민지 역사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소설 속의 장면이 떠오를 것 같다.[12-R2-「고향」]<sup>110)</sup>

위 [12-R2-「고향」]학습자의 경우 한국의 사회·역사에 대해 미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텍스트 자체는 하나의 역사적 기억으로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전에 이 학습자는 한국 역사에 대해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소설을 읽은 후 이러한 인식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다. 소설을 통해 한국 식민지 시대에 대한 인식이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인 느낌으로 바뀌었고, 식민 지배가 한국에 가져온 고통의 역사를 재구성했다. 학습자는 그동안 추상적인 지식으로 여겨졌던 한국의 역사를 생생한 기억, 즉 미시적 역사 기억으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사회·역사적 맥락에 주목해 소설을 읽음으로써 학습자의 세밀한 역사적 감정을 일깨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에 대해 반성하는 양상도 존재한다. 학습자는 텍스트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텍스트를 통해 얻은 역사적 인식과 기존의 인식이 충돌할 때 역사를 되돌아보게 된다.

예전에 전쟁이라는 주제가 언급되면, 나는 변증법적으로 그 전쟁이 많은 사상자를 낳았지만 객관적으로 침략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켰다고 말했을 것이다. 소설 속 경성의 변화한 모습이 바로 한국 현대화 발전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역사를 깊이 이해한 후 나의 생각을 되돌

---

110) 作为专业的韩语学习者,此前对韩国历史的了解仅停留在很大的方面,我觉得很惭愧。这篇小说让我脱离了宏观的角度,从个体的视角去具体地透析了底层人民生活的苦难。我从中收获的不是冰冷的历史知识,而是对当时社会的变化和人们的心理和生活状态,对处在日本殖民压迫下的普通朝鲜人民所受到的苦难有了更为深刻的认识和直观的感受。以后一提到韩国的殖民地历史,我可能就会想起这篇小说里的场景。

아보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이 국가의 존엄, 민족의 문화, 하층민의 고통, 지식인의 고통, 여성의 희생, 나아가 수천만 명의 국민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라면, 이러한 '발전'은 부정적이고 가치가 없을뿐더러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국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34-R2-「날개」]111)

위의 [34-R2-「날개」] 학습자의 경우 한국의 식민지 시대에 일어난 도시화 발전에 대해 성찰하였다. 이 학습자의 감상문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자신은 식민지 역사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국민들의 고통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현대화 발전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학습자는 소설을 통해 식민 지배 아래 도시의 사회·역사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을 재정리하였다. 소설을 읽은 뒤 한국의 역사를 다시 바라보며 소위 말하는 '발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학습자의 역사관이 단순화된 물질주의적 역사관에서 보다 복잡하고 인간적이며 도덕적인 역사관으로 바뀐 것의 증명이며, 소설을 통해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더불어 문학교육이 도덕의식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인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도덕적 인식의 깨달음은 학습자가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그리고 미래의 역사 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처의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 무어보다 중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이 학습자는 현재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떠올리며 현대 사회에 대해 성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이중적 사고는 학습자가 사회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 (2) 텍스트 의미에 대한 재구성

---

111) 以前一提到战争话题,我一定会辩证地说这场战争虽然造成了人员的伤亡但是在客观上促进了被侵略地的发展。小说中里京城繁华的景象,便是韩国现代化发展的表现。但在我深刻了解这段历史后,我开始反思自己的观点。如果这种发展是以国家的尊严、民族的文化、底层百姓的痛苦、知识分子的苦恼、女性的牺牲,甚至是千千万万个普通人的生命换来的,这样的“发展”是负面的、不值得的,更是对牺牲者的侮辱。在今天,我们依然应该铭记历史,珍惜和平,勿忘国耻。

독자가 이해해야 하는 글의 의미는 언어 기호를 통해 전달되지만 이것은 언어 기호가 갖는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sup>112)</sup> 중국인 학습자가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소설을 읽는 데에 있어서 텍스트의 의미는 표면적인 역사적 정보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독자의 배경지식과 결합되어 사회·역사적 맥락을 재구성하며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소설은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지만 하나의 문학 장르로서 이것을 단순히 역사로만 볼 수는 없다. 문학 작품으로서의 소설은 학습자에게 심미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중국인 학습자는 소설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사회·역사 인식을 가지게 되고 이것을 다시 텍스트에 투입하여 텍스트 의미를 재구성하고 작품을 재평가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역사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독립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개체의 차이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자신만의 텍스트 의미를 형성하게 한다.

우선 학습자가 다각도로 풍부하게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양상을 살펴보자. 토론 과정에서 학습자는 다양한 이해 결과를 접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며, 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궁극적으로 본인만의 텍스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토론 과정에서 한 친구가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저에게 시사점을 주었어요. 그전까지는 저는 아이는 무시한 채 남녀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만 머물렀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을 평범하게만 느꼈어요. 그 시대의 여성, 특히 기혼 여성에게 가족과 자녀는 여성의 전부였고, 자신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외부 채널이었어요. 그러나 여성의 가치가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되며, 어머니는 아이에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여야 해요. 소설 속 어머니는 아이를 자신의 전부로 여기고 아이에게 '엄마는 옥희 하나뿐이야.'라고 시종일관 외쳐요. 사실 이 역시 봉건사상의 억압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112) 김봉순, 「읽기교육에서 텍스트 의미 추론의 이론과 실제」, 『텍스트언어학』 38호,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5, 2쪽.

이러한 억압은 은연중에 잠재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타파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 소설의 또 다른 현실적 의미이자 참고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17-R2-「사랑손님과 어머니」]<sup>113)</sup>

위 [17-R2-「사랑손님과 어머니」] 학습자는 동료의 견해에서 시사점을 얻었으며,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봉건사회 속 남녀의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제한에서 가족 관계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고로 확장되었다. 이 학습자는 자신의 인식에 내재된 고정관념을 먼저 깨닫고, 동시에 텍스트와 관련된 사회·역사적 맥락을 떠올려 당시 한국 사회에서 가족과 자녀가 여성 자신의 가치 실현을 위한 주요 통로였다는 결론까지 도달한다. 이어 이 학습자는 자신의 사회·역사적 맥락과의 소통 단계에서 초기에 구성된 텍스트 의미와 기존의 인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반성 단계에 진입하였다. 대부분 학습자가 읽어낼 수 있는 여성의 결혼에 대한 봉건사회의 제약이라는 상대적으로 분명한 텍스트 의미보다, 이 학습자는 텍스트 속에 더 깊이 내재된 가정 속 여성의 자아실현이라는 현실적 문제까지 탐색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학습자는 현재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연상하여 텍스트의 현실적 가치를 인식했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학습자가 텍스트의 능동성을 인식하는 양상을 살펴보자. 앞서 검토한 원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텍스트는 역사적 산물로서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구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고향〉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층민들이 받는 억압을 풀어냈

---

113) 讨论中有位同学提到母亲和孩子的关系给了我启发。我之前对小说的理解停留在男女关系上，而忽视了孩子。我之前潜意识觉得母亲爱孩子，把孩子当成一切似乎是很普通的事情。在那个年代，对女性尤其是已婚的女性来说，家庭与儿女就是女性的全部，是检验她们自身价值能否得以实现的外在渠道。但女性的自身价值并不应止于此，母亲应该是个独立的人，不依赖孩子的存在而存在。小说中妈妈把孩子当成一切，一直对孩子说“妈妈只要有玉姬就够了”这其实也是封建思想压迫的一种。但这种压迫是更加隐性和潜移默化化的，所以时至今日也仍然没有完全破除，这也正是这篇小说的另一种现实意义和参考价值。

어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그 시대 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죠. 저는 이 텍스트가 객관적인 사회 모습과 역사적 상황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여 고향에 대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켰으며, 당시 지식인과 청년들이 식민통치에 저항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러한 훌륭한 문학 작품이 가져다주는 시사점이 있었기에 한국이 상전벽해를 이룰 수 있었죠![01-R2-「고향」]<sup>114)</sup>

위 [01-R2-「고향」] 학습자는 미시 역사로서의 소설의 역할을 의식하게 되고 미시적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한국의 거시적인 사회상을 짚어 봤다. 이 학습자의 텍스트 의미에 대한 이해는 역사를 표면적으로 반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당시 사회에서의 소설의 역할을 탐구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해당 학습자는 소설의 능동성을 한국 국민의 항일 정신, 애국심 함양, 시사점 제공 및 훗날의 성공적인 해방과 연결시켜 텍스트에 의한 역사적 구축을 다각도로 이해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역사에 대한 텍스트의 능동성을 인식할 수 있고, 당시 사회에 미치는 소설의 역할 측면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텍스트의 현대적 가치를 발굴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자의 텍스트 해석은 결국 현재의 사회·역사적 맥락으로 이어진다. 또한 텍스트는 개방된 상태에 있고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해는 고정적이지 않아 시대가 변함에 따라 텍스트는 지속적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텍스트의 당대적 가치는 역시 중국인 학습자가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소설을 때 구성하는 하나의 텍스트 의미다.

〈날개〉는 거의 100년 전에 나온 작품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

---

114) 《故乡》将底层人民受到的压迫，通过一个人的故事表达出来。看到这一个人的故事，便了解这个国家那个时代其他人的故事。在我看来，这篇文章不仅仅反映客观的社会面貌以及历史情况，还在于让当时的人们看清了现实，激起了人们对于故乡的热爱和对敌人的痛恨，警醒当时的知识分子和有志青年反抗殖民统治。正是有这些优秀的文学作品带给人们的思想启发，韩国这片沧桑的土地最终才迎了解放的曙光！

들에게 경고를 하는 역할을 한다. 현대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돈’과 같은 것에 쉽게 마비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것들은 더 쉽게 숨기고, 사람을 더 쉽게 마비시킨다. 유혹에 직면할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물질지상의 감옥에서 벗어나 본인의 도덕성을 지킬 수 있는지는 늘 고민해야 할 문제다. 동대 청년으로 우리는 사상 해방을 유지하고, 명예와 이익을 덤덤하게 바라봐야 하며, 돈과 욕망에 지나치게 구속받아서는 안 된다. [36-R2-「날개」]<sup>115)</sup>

위 [36-R2-「날개」] 학습자는 소설에서 시사점을 얻어 소설이 창작된 시대를 넘어 당대의 사회·역사적 맥락에 적용했다. 이 학습자는 텍스트와 관련된 금전우월주의의 사회·역사적 정보에 주목하고, 이를 현대 사회와 비교하는 과정에서의 공통점과 오늘날의 변화를 발견했다. 이어 해당 학습자는 성찰을 통해 물질주의의 유혹을 극복하고 주관적 사고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학습자의 위와 같은 성찰은 개인적 전략으로 자신만의 텍스트 의미를 얻는 데까지 작용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소설을 읽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동시대의 사회·역사적 맥락과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역사적 맥락으로 돌아와 텍스트의 당대 가치를 탐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4. 학습자의 소설 읽기 양상에 나타난 한계

앞 절에서는 사회·역사적 맥락으로 한국 현대소설을 읽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양상을 통해 학습자가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소설을 읽을 경우, 소설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역사적 맥락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중국인 학습자는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115) 《翅膀》即使是近一百年前的文学作品，也对于当今的我们仍然具有警示作用。即使是现代社会，人们还是很容易被类似带有“金钱的快感”的事物麻痹，并且随着科技发展，他们更容易隐藏，更容易麻痹人们。当面对周遭出现的诱惑之时，我们如何能够克服诱惑，跳脱出物质至上的牢笼，保全自己的道德性，是我们需要一直思考的问题。作为当代青年，我们应该保持思想解放，看淡名与利，不要太过于受到金钱和欲望的束缚。

현대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학습자가 소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겪는 장애 요소와 어려움을 살펴 보기 위해서 크게 '한국 사회·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 '기존 사회·역사적 맥락의 과도한 의존', '거시 역사의 절대적 적용' 3가지로 나누어 논의해 볼 예정이다.

### (1) 한국 사회·역사에 대한 지식 부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학습자는 역사적 정보를 발견한 후 중국과 한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동원하여 소설을 이해한다. 그러나 훨씬 익숙한 중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에 비해 한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은 보다 치밀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이해 부족으로 학습자가 텍스트를 불확실하게 이해하거나 심지어는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자료는 1차 감상문 제출 후 연구자가 학습자의 소설 이해의 어려움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저는 예전에 한국 역사에 대해 조금 배운 경험이 있어 한국에 일제 강점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알진 못했어요. 토지가 동양척식회사에 의해 빼앗겼죠. 아마도 일본의 침략 기관일 것이고, 그래서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중간 소작인이 나오는 거죠? 저는 주인공이 땅을 빌릴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고 당시 한국의 이런 토지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12-I1-「고향」]<sup>116)</sup>

위의 [12-I1-「고향」] 학습자는 한국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매우 거시적이고 표면적인 수준에 그친다. 이러한 거시적인 파악은 텍스트를 통해 사회·역사적 맥락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116)我以前学过一些韩国历史，知道韩国以前有一段日帝强占期。但是只是很表面的很宏观的了解过，不太具体。土地被东洋拓殖会社占了。它可能是日本的某个侵略机构，所以要向他们交租金，到这一步我还能理解的。但是为什么会出现中间收租人呢？我不太理解造成主人公不能租土地的原因，不太清楚韩国当时的这种土地制度。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학습자가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역사·문화 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학습 요구에 맞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것은 본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도 한다. 이 학습자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텍스트 속에서 이 시기의 특징을 찾아보려고 했다. 특히 ‘동양척식회사’라는 역사적 정보에 초점을 맞춰 이것이 일제 침략의 산물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여기까지는 이 학습자가 수월하게 이해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중간 소작인’이라는 역사적 정보를 포착했을 때부터이다. 학습자는 한국 사회·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중간 소작인이 등장한 이유와 주인공이 토지 임대할 수 없는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 사회·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은 학습자가 텍스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텍스트에 대한 위화감마저 느끼게 한다. 배경지식의 부족 외에 한국문화를 잘 모르는 것도 중국인 학습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소녀는 어머니를 찾을 때마다 안마당과 안방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아저씨와 외삼촌이 묵는 곳은 사랑방이에요. 어머니의 풍금은 옷간에 놓여있어요. 그 집에는 대문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가 드나드는 옆 대문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 대문이에요. 소설을 읽는 때 저는 공간 묘사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중국의 사합원(四合院)<sup>117)</sup>과 같은 구조인가요?[28-II-「사랑손님과 어머니」<sup>118)</sup>

위의 [28-II-「사랑손님과 어머니」] 학습자의 경우 ‘안마당’, ‘안방’, ‘사

117) 사합원, 사합방이라고도 한다. 중국의 전통 합원식 건물이다. 구도는 마당 사방에 집을 짓고, 마당을 가운데로 둘러쌓은 구조이기 때문에 사합원(四合院)이라 한다.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16, p.1240 참조.

118) 小女孩每次找妈妈都得跑到内院和里屋去。还有叔叔和舅舅住的地方是厢房。妈妈的风琴是放在上房的。她们家还有两个天门，一个是妈妈进出的旁门，一个是厢房门。读的时候我总感觉空间很混乱，脑子里想不出来他们的房子长啥样。是我们国家四合院那种吗？

량방' 등의 역사적 정보를 포착하고 한국의 역사적 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옥의 구조를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상상하며 텍스트를 이해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 학습자는 작중인물의 행동 공간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자국 사회·역사적 맥락을 환기하면서 '사합원'으로 한옥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탐구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 학습자 외에도 한옥의 구조에 대해 비슷한 의문을 가진 학습자가 적지 않았다. 텍스트 속 공간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텍스트 안의 핵심 공간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지면 학습자가 소설의 줄거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은 텍스트를 원활하게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현 사회·역사의 시각에 대한 과도한 의존

중국인 학습자는 텍스트를 통해 사회·역사적 맥락을 구성할 때 항상 자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환기한다. 자국 사회·역사적 맥락의 활용은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과 불안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자국 사회·역사적 맥락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잘못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시절 중국인과 한국인은 모두 지독한 고통을 겪었다. 한국은 토지가 작고 '만이(蠻夷)'였는데 매우 약했기 때문에 일본에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나 중국은 천조상국(天朝上國)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비록 최후에 침략당했지만, 중국은 땅이 넓고 국민들이 용감하게 저항하여 일본에 완전히 점령당하기도 전에 승리를 선언했다.[11-R1-「고향

」]<sup>119)</sup>

위의 [11-R1-「고향」] 학습자의 양상을 보면 자문화중심주의 경향이 뚜렷하다. 이 학습자는 일제시대에 한국인과 중국인이 함께 겪었던 고통에는 공감했으나 일부 자국의 사회·역사에 대해 강한 우월감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 학습자에게는 자문화중심주의 사상이 다른 나라의 역사를 인지하는 기준이 된 것이다. 자국 문화를 판단의 절대적인 잣대로 삼고 타국의 국력, 국토 면적, 민족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 역사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천조상국’ 사상이 이 학습자의 기존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관적인 평가가 타국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학습자가 자국 역사와 한국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자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지나치게 의존하면 타국과의 문화 교류와 사회문화적 소통이 불가능해지기에 타국의 텍스트를 읽으며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 자국 문학 읽기 경험에 대한 무분별한 답습은 역시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현대소설을 이해하는 데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소설에서 어머니는 ‘엄마는 옥희 하나뿐이야.’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를 통해 딸을 향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있다. 어머니는 자신의 사랑을 희생할지언정 딸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이는 작가가 모성애의 위대함을 칭송하고 찬양하며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다.[20-R1-「사랑손님과 어머니」]<sup>120)</sup>

위의 [20-R1-「사랑손님과 어머니」] 학습자는 텍스트에 대한 배경지식

- 
- 119) 那个年代中国人民还有韩国人民都遭受了严重的苦难。韩国国土面积小，以前是蛮夷，又很弱小，所以才会被日本欺负。但是我们国家是天朝上国，实力雄厚。虽然最后也被侵略了，但是我国国土面积大，人民都奋勇反抗，还没有被日本完全占领便宣告胜利了。
- 120) 小说中妈妈经常说“只要有玉姬就好了”，可见妈妈对女儿深沉的爱。妈妈宁愿牺牲自己的爱情，也要保护女儿不遭他人非议。这是作者在歌颂和赞美母爱的伟大，提醒世人感恩母亲。

이 부족하고 자국의 문학적 경험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잘못된 해석을 내놓았다.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주로 여성에 대한 봉건 제도의 억압을 폭로하고, 낡은 봉건적 관습을 깨고 자유로운 연애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 학습자는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사랑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것을 모성애의 위대함을 소설의 주제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학습자와 아래와 같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저는 이 한국 소설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런데 중국 문학 작품에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대부분 어머니의 모성애를 찬양하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요. 어머니 하면 ‘위대함’과 ‘아낌없는 헌신’과 같은 말이 떠올라요. 텍스트 속 아이를 위해 희생해 온 어머니가 나오는데,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모성애의 위대함이 아닐까요?[20-II-「사랑손님과 어머니」]<sup>121)</sup>

이 학습자는 어머니와 관련된 중국 문학 작품 대부분이 모성애를 찬양하기 때문에 그 맥락을 한국소설을 이해하는 데 그대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자국 문학에서의 어머니는 ‘위대함’, ‘아낌없는 헌신’과 연결된다는 고정된 문학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 학습자에게 방해를 끼친 것이다. 이처럼 중국인 학습자는 자국 문학 읽기 경험에 영향을 받아 특정 인물에 대해 고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현대소설을 읽을 때 자국 문학 읽기 경험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텍스트 이해에 하나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외에 중국인 학습자는 현재의 사회·역사적 맥락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한다. 소설과 관련된 사회·역사적 맥락은 학습자가 생활하는 시대와 일정한 시간적 거리가 있다. 이에 현대인 중국인 학습자가 몇십 년 전의 한국소설을 이해할 때 현대 사회의 가치관, 이데올로기, 사회적 규

121) 我不知道这个韩国小说的历史背景是什么。但是中国文学作品中有很多关于母亲的，大部分都是赞扬妈妈对孩子的爱，表达作者对母亲的感恩之情。一提到妈妈，我就会想起“伟大”、“无私奉献”等词语。文中的妈妈一直在为孩子牺牲，作者想表达的难道不是母爱的伟大吗？

범, 대인관계로 텍스트를 바라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것은 소설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있다. 아래의 자료는 1차 감상문 제출 후 연구자가 학습자에게 소설에서 의문을 품은 내용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이다.

처음 소설을 읽었을 때 저는 아저씨와 어린 소녀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텍스트 속 많은 부분에서 아저씨와 어린 소녀가 함께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어린 소녀에게 잘해주는 아저씨의 모습이 보였고, 무릎에 앉혀 먹을 것을 주는 모습, 혼자 방에 머무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외삼촌이 올 때마다 소녀와 친하지 않은 척을 했고, 마치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아저씨가 어린 소녀에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어쨌든 요즘 면식법에 의한 아동 성추행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요. 나중에야 아저씨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린 소녀가 아닌 소녀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래도 저는 아저씨가 어린 소녀와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워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16-II-「사랑손님과 어머니」]<sup>122)</sup>

위의 [16-II-「사랑손님과 어머니」] 학습자는 현대 사회 대인관계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은 전형적인 이해 양상을 보인다. 이 학습자는 소설 안의 아저씨가 어린 소녀와 친하게 지내는 장면에 초점을 맞춰 현대 사회의 사고방식대로 아저씨가 어린 소녀에게 못된 마음을 품고 있다고 의심했다. 사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소설에서 아저씨가 외삼촌을 보자마자 소녀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장면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봉건적 사회 환경에서 예절을 엄격히 지키고 있었고 타인의 비난을 두려워했다고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 학습자는 아저씨가 어린 소녀에 대한 못된 마음을 외삼촌에게 들킬까 봐 두려워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한국의 봉건적 사회 환경이 여성에게 가져온 속박과 불행을 반영하

122) 最开始读的时候,我有点不太理解叔叔和小女孩之间的关系,文中花了大量篇幅来写叔叔和小女孩在一起的画面。叔叔对小女孩特别好,又抱着她坐在膝盖上又给她吃的,还单独待在一个房间。但是每次舅舅一来,叔叔就假装和小女孩没那么亲热,感觉像做贼心虚。我怀疑叔叔会不会对小女孩有什么其他想法,毕竟现在猥亵儿童的事件可太多了,有很多都是熟人作案。后来我发现叔叔喜欢的是小女孩的妈妈,但是我觉得叔叔和小女孩还是应该保持距离,不应该太亲近。

고, 인간성의 회복과 자유해방을 호소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 학습자는 현대 사회의 냉담한 대인관계와 불신, 높은 성범죄율이라는 사회 환경의 영향으로 의도된 소설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설이 표현하고 싶은 주제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해석을 내놓았다. 이후에 이 학습자는 아저씨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깨닫게 되었지만, 여전히 아저씨와 어린 소녀의 만남에 집착하며 현대적 맥락의 판단 기준을 고수하였고, 어머니와 아저씨의 비극적 사랑과 관련된 맥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읽은 다른 2명의 학습자 역시 이 학습자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물론 이 학습자들이 현대적인 관심사를 통해 아저씨와 어린 소녀와의 관계를 포착했다는 점은 인상 깊다. 하지만 이것을 역사적인 요소와 통합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조금 아쉽다. 따라서 교사가 학습자의 사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줄 수 있다면, 다시금 사회적 장벽 때문에 어머니 대신 아이의 환심을 사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3) 거시 한국 역사의 절대적 적용

거시 한국 역사는 중국인 학습자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역사이자 학습자의 기억 속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역사이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는 거시 한국 역사를 바탕으로 텍스트 내의 미시 역사를 이해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그러나 개인적 경험과 감정 등 텍스트 내의 미시 역사적 정보를 과도하게 일반화하거나 단순화하면 텍스트의 독특한 특징이나 개별 인물의 복잡한 성격을 철저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거시 한국 역사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작품의 허구적 요소와 작가의 창작 의도를 간과하게 된다거나 텍스트의 표현과 미학적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거시 한국 역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학습자 개인의 해석과 감상이 억압되기도 한다. 소설은 다양한 해석과 감상을 허용하는 예술 형태이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만으로 텍스트 내의 미시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면 텍스트에 대

한 풍부한 이해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다음은 중국인 학습자가 거시 한국 역사를 소설 이해에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은 성 산업이 발달했다. 한국이 일본제국주의에 통치되었을 때 일본은 많은 한국 여자를 '위안부'로 징용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을 위해 한국에서 많은 '유곽'을 짓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소설에서 '그'와 결혼할 뻔한 했던 여자가 유곽에 팔려 갔고, 주인공이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에도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라는 말이 나왔다. [05-R1-「고향」]<sup>123)</sup>

위의 [05-R1-「고향」 학습자는 일본이 일제시대에 조선인을 어떤 방식으로 동원했는지에 대해 거시적 한국 역사 지식을 갖고 있다. 이 학습자에게는 일본의 성 산업 발달을 소설과 연관시키려는 의도가 돋보였다. 그러나 성 산업의 발달은 소설 안의 여자가 유곽으로 팔려 간다는 미시 역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미시 역사에 대한 이해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 학습자는 이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 일제시대에 한국 여성들에게 가해진 피해인 거시 한국 역사인 위안부 문제를 환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소설 안의 미시 역사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 이 학습자는 소설 발간 이후에야 나타나는 위안부 징용인 거시 한국 역사를 소설 인물이 유곽으로 팔려 간 것을 연결하여 절대적으로 '유곽' 해석에 대입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거시 한국 역사를 텍스트 내의 미시 역사에 대한 해석에 그대로 적용하려다 보니, 두 역사 사이의 연관성이나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거시 한국 역사를 소설 안의 미시 역사 해석에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회·역사적 맥락을 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거시 역사와 미시 역

123) 日本情色业发达，在韩国被日本帝国主义统治的时期，日本不但在韩国征收了很多女子作为“慰安妇”，同时也在韩国本土开设了很多“妓院”，以满足日军的需求。在小说中，差点和“他”结婚的女人便是被卖到了妓院，主人公小时候唱的歌里更是也提到了“面貌姣好的女孩子被卖到妓院”。

사의 연관성을 무차별적으로 엮는 행위보다는 오히려 그것들 사이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1, 2, 3쪽에서 ‘기모노’, ‘중국식 바지’, ‘옥양목 저고리’ 등과 같은 주인공의 옷차림에 대한 묘사와 주인공이 한·중·일 삼국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등은 당시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일본이 한국의 새로운 중주국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 문화는 한국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고 문화의 일본화가 상당히 지배적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한·중·일 삼국 문화가 융합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03-R1-「고향」]<sup>124)</sup>

위의 [03-R1-「고향」] 학습자는 주인공의 옷차림과 행동 양상에 주목하여 사회·역사적 정보를 성공적으로 포착했다. 하지만 소설 내적 세계를 구성하는 데 거시 한국 역사를 절대적으로 적용하였다. 이 학습자는 주인공의 옷차림과 언어 능력을 거시 한국 역사와 연결하여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해석이 나타난다. 그러나 주인공의 이러한 특징이 일본의 한국 점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증명할 수는 없다. 또한 주인공의 이런 특징은 중국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시 한국 역사인 일본의 한국 점령으로만 직접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이 잘못된 해석 방식은 소설 내 인물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 학습자는 주인공의 개인적 특성을 문화 차원에서의 거시 한국 역사로 해석하는 오류도 범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문화의 전파가 주인공의 개인적인 행동까지 유도했다고 보며, 이것이 심지어 삼국 문화의 융합을 이끌었다는 결론까지 내리고 있다. 하지만 주인공의 개인적 행동은 기껏해야 당시 삼국이 민간 차원에서 조금씩 왕래가 있었거나 디아스포라 현상이 있었다는 증거일

124) 从第1、2、3页对主人公穿着的描述，即和服，中式裤子，棉布白汗衫以及流畅地说出中日韩三国语言等表现了当时处于日本对韩国的占领中，由于日本成为韩国新的宗主国，日本文化开始在韩国广泛传播，文化的日本化相当严重，韩国社会中日韩三国文化出现了融合的状况。

뿐, 거시적 문화 차원의 교류로 해석하는 것은 편파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거시 한국 역사를 적용하면, 소설 내 인물들이 겪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험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시 역사와 미시 역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 IV.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의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설계

앞의 제Ⅲ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소설을 이해하는 양상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일부 학습자가 기존의 사회·역사적 맥락과 소통하여 텍스트와 역사의 의미를 잘 구성하고 있는 반면에 많은 학습자는 한국 사회·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기존의 사회·역사적 맥락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거시 한국 역사를 절대적으로 적용하여 소설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현대소설을 통해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는 재구성할 수 있지만, 외적의 사회·역사적 맥락과 소통하며 더 풍부한 사회·역사적 맥락을 구성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사회·역사적 맥락 구성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교육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먼저 사회·역사적 맥락에 초점을 맞춘 한국 현대소설 읽기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 1.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의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목표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은 중국인 학습자가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고 역사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며, 당대의 특수한 사회 체계에서 소설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자국 역사나 거시 한국 역사를 조회하고, 소통 결과를 통합하여 새로운 사회·역사적 맥락을 구성하고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 역시 단순히 특정 사회·역사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

나라 중국인 학습자들이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능동적으로 구성해 이해하고 소설 이해 능력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학교육은 '궁극적으로 문학 능력을 습득, 신장시키기 위한 활동'<sup>125)</sup>이다. 따라서 사회·역사적 측면에서 소설교육의 목적은 사회·역사적으로 소설을 읽는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한 시기의 사회체제는 특정한 시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소설은 작가의 사회활동 중의 하나이기에 소속된 사회의 시대적 속성을 필연적으로 지닌다. 소설이 진공 공간이 아닌, 창작된 시기의 사회·역사적 맥락에 놓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소설을 사회·역사적으로 읽어야 한다.

사회·역사적 읽기의 기본은 학습자가 소설 내부의 사회·역사적 정보를 파악하고 소설의 내용과 연결해 소설 내적의 사회·역사적 구조를 구성해 보는 데 있다. 즉 소설 내의 미시적 정보들만으로 당시가 어떤 시대였을 거라고 일차적으로 추측하도록 한다. 그러나 소설은 진공 공간이 아닌 그 시기를 둘러싼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놓인다는 것이다. 소설 내의 개인의 삶은 당시의 사회 구조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좀 확장해서 보면 소설 내의 사회·역사적 구조를 당시 시대의 특수성에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중국인 학습자 역시 소설 내부의 사회·역사적 구조가 그 시대의 어떤 사회·역사적 특수성과의 상호작용에서 생성되었는지 고려하며 한국 현대소설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학습자가 당시의 독특한 사회체제와의 관련 속에서 소설을 읽다 보면, 늘 그 시대의 상황을 떠올리며 그때의 역사에 대한 자신의 감각을 가지고 소설로 들어간다. 그러나 개인의 역사 인식을 소설 읽기에 그대로 적용하면 주관적인 이해가 생겨 잘못된 소설 해석을 야기할 것이다. 과거의 사회는 현재 사회와 다르기 마련이다. 사회·역사적 관점에서 소설을

---

125)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354쪽.

읽으려면 개인의 성급한 판단을 넘어서, 현재의 관점에서 재단하지 않는 신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당시의 독특한 사회체제와 연관해 읽어내야 한다. 따라서 한국소설을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은 소설 내부의 미시 한국 역사와 외부의 거시 한국 역사의 소통, 한국 역사와 자국 역사의 비교를 통해 한국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현대소설은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중국인 학습자는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중국인 학습자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현대소설과 시간적 거리뿐만 아니라 공간적 거리감을 느끼기 쉽다. 한국과 자국의 역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모국어 학습자보다 소설을 이해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한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사회·역사적 관점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탐색하고 한국 역사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목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윤여탁은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sup>126)</sup> 하나는 문학을 통한 한국어교육인데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의미 소통 교육과 문학을 통한 한국 사회문화 교육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문학교육의 목표를 한국문학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한국문학 그 자체에 대한 교수-학습이다. 김정자도 세 가지 목표를 제기하였다.<sup>127)</sup> 첫째, 문학 작품을 통해 인간의 삶을 보다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교육 활동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둘째, 문학교육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한다. 셋째, 언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김금숙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교육의 공통적 목표를 정리하였다.<sup>128)</sup> 첫째, 한국문학 작품을 즐겁게 읽고 감상하면서 체험을 확장한다. 둘째, 한국문학 작품을 통해 문화, 문학, 사회 등에 대한 다양성을 이해한다. 셋째, 한국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

---

126)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 교육』, 한국문학사, 2007, 80-81쪽.

127) 김정자,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34-36쪽.

128) 김금숙,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 목표와 수업 모형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74-78쪽.

으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 본 연구는 문학교육의 많은 목표 중 사회·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소설 교육을 통해 텍스트에 나타난 역사적 정보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텍스트와 맥락 간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의미와 텍스트 의미를 구성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와 중국인 학습자의 실제 이해 양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인 학습자는 사회·역사적 관점에서 한국 현대소설을 읽을 수 있다. 즉, 중국인 학습자가 사회의 역사성을 의식하게 되고 소설에 드러난 사회·역사 정보들을 포착하여 이들을 연결함으로써 소설을 작품 내부의 사회 구조와 당대의 특수한 사회체제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소설을 이해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한국 역사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를 심화한다. 즉, 중국인 학습자가 신역사주의 관점에서 텍스트와 기존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연결하여 기존의 역사 인식을 재조정하며 한국에 대한 보다 풍부하고 입체적인 역사 감각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 2.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의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내용

앞 절에서는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상기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을 설계함으로써 사회·역사적 맥락의 역할을 최대화하고 소설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와 감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의 학습자 이해 양상을 살펴보면, 중국인 학습자는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소설을 읽을 때 한국 사회·역사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소설 해석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현 사회·역사의 시각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거시 한국 역사를 절대적으로 적용해 소설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산출하였다. 교육 내용은 이해 한계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내용을 ‘텍스트의 사회·역사적 구조 인지’, ‘관련된 역사적 지식 찾아서 재구성’, ‘역사 비교를 통한 텍스트와 역사 감각 재구성’의 단계로 구분하고 그 실효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텍스트의 사회·역사적 구조 인지

중국인 학습자가 사회·역사적으로 한국 현대소설을 읽을 수 있고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력을 신장하도록 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3장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소설 읽기 양상을 살펴본 결과, 학습자 대부분이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 구조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습자는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 정보를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 자신의 관습과 자국 역사 인식에만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경우에 학습자는 텍스트 외부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기 때문에 소설 텍스트에서 어떤 것이 사회·역사 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포착된 사회·역사 정보로 어떻게 의미 있는 텍스트 내부의 사회·역사 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차적인 해석의 결과는 늘 부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텍스트 외적 요인의 과도한 간섭을 줄이기 위해 학습자가 텍스트 자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텍스트에 입각하여 읽도록 해야 한다. 작가는 소설에서 서술자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서술자의 서술은 소설의 내용을 구성한다. 그러나 작가가 글을 쓸 때 그는 하나의 이상적이고 비개인적인 ‘인간 일반’만을 창조해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기 자신'의 내포적 변형을 만들어 낸다.<sup>129)</sup> 이때 작가가 작품 속에서 보여준 입장이나 상태는 현실의 작가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소설의 내용을 진정으로 통제하는 것은 현실의 작가가 아니라 내포 작가다. '내포 작가(implied author)'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우리가 읽는 대상을 선택한다. 우리는 추측에 의하여 그를 실제 인간의 이상적이고 문학적이고 창조된 변형으로 규정한다. 그는 자신의 선택의 총합이다.<sup>130)</sup> 따라서 독자는 내포 작가가 그린 사회·역사적 구조에 근거해야만 실제 작품에서 특정한 내용에 숨겨진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신역사주의에 따르면 내포 작가가 묘사한 텍스트도 당대 사회에 대한 하나의 미시적 역사 서술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텍스트 자체가 하나의 역사 서술이라고 의식하면서 텍스트 내만으로 알 수 있는 역사를 재구성해야 한다.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적 구조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역사적 정보를 취합해야 한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회·역사적 정보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들의 통찰력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일부 학습자는 텍스트 표면의 언어적인 사회·역사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행동양식이나 관념 등 비언어적이고 추상적인 사회·역사적 정보에 주목하는 학습자도 많다. 하지만 극소수의 학습자들은 사회·역사적 정보를 어떻게 포착하고 어떤 요소를 사회·역사적 정보로 볼 수 있는지의 단계에서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습자는 개별적인 사회·역사적 정보를 꼼꼼하게 찾아낸 후 이들을 연결하여 텍스트 내의 내포 작가가 구성한 시공간적 배경, 즉 형상화된 사회·역사적 구조를 추출해야 한다. 이때 독자 개인의 사회·역사적 맥락에 따라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역사적 정보도 서로 다르고, 1차로 구성된 텍스트의 사회·역사적 구조에 대한 인지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각 학습자가 텍스트 내에서 사회·역사적 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러한 사회·역사적 정보들을 바탕으로 내포 작가가 구성한 사회·역사적 구조는 무엇인지

129) W.Booth, *The Rhetoric of Fiction*, 최상규 옮김, 『소설의 수사학』, 서울: 예림기획, 1999, 104쪽.

130) W.Booth, 위의 책, 109쪽.

에 대해 능동적으로 숙고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도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는 사회·역사적 정보를 발견하는 안목을 갖게 되고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 구조에 대한 높은 인지 수준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 (2) 관련된 사회·역사적 지식을 재구성

3장에서 학습자들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소설 읽기 양상을 고찰한 결과, 대부분의 학습자는 텍스트 내에서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회·역사적 정보를 파악하여 소설의 내적 세계를 구성하는 데 성공하고, 기존의 사회·역사적 맥락과 비교하여 소설을 해석하고 역사 인식을 재조정하려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사회·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소설 내의 사회·역사적 구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지는 표면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텍스트의 깊은 의미를 탐색하고 스스로의 역사 인식을 조절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학습자가 관련된 역사 지식을 재구성하는 것을 교육 내용의 일환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학습자는 소설 내의 사회·역사적 정보들을 통해 내포 작가가 의도한 사회·역사적 구조를 재구성하고, 초보적으로나마 그 시대에 대한 자신의 상(像)을 형성한다. 이 사회·역사적 구조에서 작품 속 인물이 그와의 상호작용 등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설 내의 미시적 역사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이때 독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회·역사적 구조는 일종의 역사 서술인 소설에서 비롯된다. 소설은 허구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지식으로 취할 수 없고 가려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역사가 다른 자료에서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정리해서 이 시대에 대한 거시적 역사 인식을 구성해야 한다. 소설에서 추출한 미시적 역사와 다른 자료에서 살펴본 거시적 역사와의 연관 속에서 내포 작가의 의도를 탐색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관련된 역사 지식을 살펴보는 것이 단순히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사를 기계적으로 공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거나 제공한 서로 다른 역사 자료를 자주적으로 취합하고 이를 판단하고 분석함으로써 소설 속의 사회·역사적 구조를 정리하고 검증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찾거나 교수자가 그들에게 제공한 역사 지식에는 전쟁, 정치 변화, 사회 운동 및 과학기술의 진보와 같은 대규모 사건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일부 대표적인 소규모 사건 또는 특정 사회 풍습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은 역사 서적, 학술논문, 문헌 기록, 영상자료 등에서 채집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 지식을 살펴보는 것은 역사적 정보들을 단순히 취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구성한 텍스트 내적의 사회·역사적 구조를 바탕으로 자료와 텍스트의 상관성을 판단하여 소설의 이해에 유용한 역사적 지식을 판별해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로 한다. 또한 소설에 비해 역사 서적 등에서의 서술은 실제적인 역사를 서술하는 태도로 매우 정제된 형태로 사회·역사적 지식을 전달하지만 여전히 역사 서술자의 견해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서술자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재가공함으로써 자신의 역사 지식으로 만들고 또 하나의 새로운, 자신만의 역사 서술을 산출하여 그 시대의 사회상을 재구성하는 재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비교할 수 있으며, 당시의 사회·역사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심층적인 해석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 단계는 학습자들이 역사에 대한 거시적 이해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 (3) 비교를 통한 텍스트 해석과 역사 감각의 심화

소설은 허구적인 역사로, 작가가 특정한 의도에 기반하여 역사를 재창조해 관점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꼭 실제 역사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독자는 소설을 읽을 때 변별력을 유지하면서 소설 내의 사회·역사적 정보들을 숙고하고 가려내야 한다. 또한 과거에 관한 지식은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다.<sup>131)</sup> 학습자는 새로운 사회·역사적 정보를 기

반으로 소설 내의 사회·역사적 구조에 대한 초보적인 인지를 구성한 후에 그 사회·역사적 구조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과 기존의 역사적 지식을 풀어 놓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작품과 독자 각각의 특성에 기반하여,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현대소설 읽기는 외적 사회·역사적 맥락과의 소통을 거쳐야 이상적인 텍스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앞 제3장에서 살펴본 학습자의 소설 이해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적 사회·역사적 맥락과의 소통은 늘 비교 과정에서 수행된다. 대부분의 중국인 학습자는 익숙한 자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동원하여 소설 내적의 사회·역사적 구조를 이해하고, 한국 역사와 중국 역사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비교하였다. 반면 한국 역사 지식에 어느 정도 익숙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학습자들은 의도적으로 한국 거시 역사를 텍스트 해석의 주요 돌파구로 삼았다. 다른 한편으로 한 가지 사회·역사적 정보에 기반하여 한국 거시 역사와 자국의 역사를 이중적으로 환기하고 비교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거시 한국 역사는 국가, 문화, 사회, 경제 등 전반적인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는 반면, 미시 한국 역사는 작품 내 인물에 관련된 개인적 경험, 감정, 가치관 등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상황을 살펴본다. 학습자가 소설 내적의 사회·역사적 구조인 미시 한국 역사를 거시 한국 역사와 비교할 때 소설의 서술이 기억 속의 거시 역사와 부합하는지, 혹은 충돌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 제3장에서의 분석을 보면 중국인 학습자는 거시 한국 역사와 일치하는 부분보다 어긋난 점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가 역사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하고, 작가가 창작의 목적이나 서사의 필요에 따라 역사를 각색하거나 과장하는 이유를 탐구하며, 이러한 역사의 재구축이 스토리텔링과 주제에 미치는 의미를 생각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한국의 대규모 사회 변혁을 소설 속 세부 요소들과 연계하여 시대별로 변화하는 사회 가치관과 신념을 파악하며, 작품 속 인물의 행동과 심리가 그 시대의 사

---

131) J.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The Middle Works* Vol.9, 1980, pp.221-222.

회·역사적 맥락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며, 소설에 대한 더욱 풍부한 해석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인 학습자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자국의 역사와 소설 내의 사회·역사적 구조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사회 그리고 타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기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sup>132)</sup>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는 본능적으로 자국 역사에 대한 기억으로 한국 사회·역사적 구조에의 인지의 빈틈을 메우려고 애를 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과 자국의 사회·역사적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색하고, 양국이 같은 시기에 직면한 사회 문제, 역사적 사건의 영향, 문화적 가치관의 이동(異同)을 비교한다. 이는 학습자가 한국소설 내의 사회·역사적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다문화적 시야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3장에서의 분석을 보면 중국인 학습자가 자국 역사의 기억을 아주 활발히 환기한다. 자국 역사와 한국 역사의 연관성과 유사성이 높을 때 이들은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적 구조를 간파할 수 있는 계기와 도구가 되어 학습자에게 보다 폭넓은 해석의 통로를 열어준다. 그러나 두 나라의 역사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 중국인 학습자는 텍스트를 해석할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 이때 가장 좋은 전략은 학습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로 하여금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sup>133)</sup>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사회·역사적 맥락 간의 차이가 생긴 원인을 스스로 탐구하게 하고 차이를 넘어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내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는 지역 간의 차이, 종교적 영향, 정치적 이념, 사회 경제적 요인, 전통문화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작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으로써 차이의 원인을 검토하고 규명해 한국에 대한 사회·역사적 맥락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고안하는 외적 사회·역사적 맥락과의 소통은 단순하게 기존의 한국 역사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단계를 넘어서 학습자가 스스로 새

---

132) 박영신, 「기억과 자기이해」, 『현상과 인식』 34권 3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0, 20쪽.

133) 이상구, 『구성주의 문학 교육론』, 박이정, 2006, 141쪽.

로운 역사 인식을 구성하는 과정까지 연결되어 있다. 학습자들이 부단한 선택과 비교에서 최적의 인지적 처리<sup>134)</sup>를 하기 위해서는 유리(游离) 상태에 처해 있는 비교 결과들을 집중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합 과정에서 비교 결과를 귀납하고 요약하는 것을 통해 학습자는 시야를 넓히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역사적 관점과 해석을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역사는 다차원적인 것이라고 인식하며 독립적인 견해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한국 사회·역사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재고하고 평가하며, 통합 결과에 따라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조정하고 수정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역사에 대해 보다 넓고, 자신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구성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이 과정을 거친 후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에 대한 사회·역사적 맥락을 재구성하여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역사적 감각을 새롭게 형성해낼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도모하는,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학습자가 재구성한 사회·역사적 맥락은 한국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 감각으로 학습자들에게 남아 다른 분야들에도 적용되며, 향후 학습 경험과 생활 경험에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 여기에서 우선은 소설 텍스트에 대한 해석에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설을 통해 재구성된 사회·역사적 감각은 텍스트 해석에 재투입되어 새로운 텍스트 의미를 구성한다. 이때 텍스트에 대한 해석은 심화 단계에 진입할 것이며 새로운 역사 인식은 학습자의 텍스트 해석에 더 깊고 복잡한 관점을 제공하고 사회·역사와의 상호작용에서 텍스트를 해석하게 하여 텍스트에 더 많은 층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3.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의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방법

---

134) D. Sperber, D. Wilson,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Basil Blackwell, 1986, pp.21-24.

이 절에서는 이전에 논의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에 기반하여 교육 방법을 도출하려고 한다. ‘협력 학습을 통한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적 정보 파악’, ‘역사적 자료 제공과 역사적 지식 검색’, ‘핵심 질문을 통한 텍스트와 사회·역사적 지식 비교’의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제시해 본다.

### (1) 협력 학습을 통한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적 정보 파악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첫걸음은 학습자가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적 정보를 성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는 이후 외적 맥락과의 소통하고 역사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제3장에서 살펴본 대로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사회·역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텍스트에서 사회·역사적 정보를 포착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학습자가 포착한 사회·역사적 정보가 풍부할수록 구성된 소설 내의 사회·역사적 구조에 대한 상(像)은 넓어지므로 중국인 학습자는 사회·역사적 정보를 혼자 찾기보다는 협력 학습을 통해 정보를 취합하고 교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협력 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이란 학습활동을 할 때 학습자 개인의 목표와 동료들의 목표가 동시에 성취될 수 있도록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역할 보완성을 강조한 학습전략을 말한다(박성의, 2000). 협력 학습은 학습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흡수를 촉진한다. 전통적인 교사 강의식 학습에 비해 협력 학습은 학습자의 능동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중심에 놓이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협력 학습은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up>135)</sup>

135) Gillbert, N. J. & Driscoll, M. P., Collaborative knowledge building: A case study,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50(1), 2003, pp.59-79.

1990년대 이래로 언어교육에서는 협력 학습 모형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중에 잘 알려진 모형들은 크게 ‘학습자 팀 학습(Student Team Learning:STL)’<sup>136)</sup>, ‘협력 프로젝트 모형(Cooperative Project)’<sup>137)</sup>, ‘MURDER(Mood, Understand, Recall, Detect, Elaborate, Review)-인지 발달이론을 기초로 한 협력 학습 모형’<sup>138)</sup>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어떤 협력 학습 모형을 선택하느냐는 실제 교육 현장의 교육 목표와 학습자의 학습수요에 달려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인 학습자는 혼자 힘으로 풍부한 사회·역사적 정보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사회·역사적 정보를 찾은 것이 그룹의 공통 목표가 된다. 이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학습하는 구조임과 동시에 개인의 성취 정도에 따라 보상받는 개별 보상구조를 동시에 가진 학습 모형인 성취과제 분담(STAD)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STAD모형은 교사의 설명(class presentation), 모둠(team), 퀴즈(quizzes), 개인 향상점수(individual improvement), 모둠 보상(team recognition)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sup>139)</sup> 이러한 구성요소는 곧 그룹 활동의 절차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요소들을 토대로 하여 사회·역사적 정보 포착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면 그룹 활동의 절차와 내용을 다음의 표와 같이 구성해볼 수 있다.

〈표 10〉 사회·역사적 정보 파악을 위한 협력 학습 활동

절차	활동 내용
안내	교사가 그룹 활동의 절차를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학습자들에게 소설을 제공하고 사회·역사적 정보를 먼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만큼만 찾도록 한다.

136) 이 모형에는 성취과제 분담학습(Student Team-Achievement Divisions: STAD), 토너먼트 게임(Team Games Tournament: TGT), 읽기 쓰기 통합 모형(Cooperative Integrated Reading and Composition: CIRC) 등이 포함된다.

137) 이 모형에는 함께 학습하기(Learning Together), Co-op Co-op, 의사결정 모형-DME(Structured Individual-Then-Group Decision Making Episode), 직소(Jigsaw) 모형, 짝활동(Pair Work) 모형 등이 포함된다.

138) 이 모형에는 분위기(Mood: M), 이해(Understanding: U), 회상(Recalling: R), 탐색(Detect: D), 정교화(Elaborating: E), 인출(Review: R) 등 여섯 개 단계가 있다.

139) 정문성, 『협동 학습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2006, 223쪽.

그룹 학습	이질적인 4-6명으로 구성된 소집단은 자신이 포착한 사회·역사적 정보를 서로 하고 교환하며, 그것이 사회·역사적 정보인지 아닌지를 함께 평가하고 판단한다. 또한, 새로운 사회·역사적 정보도 함께 찾는다. 이때 집단의 구성원들 모두가 풍부한 사회·역사적 정보를 얻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확신할 때까지 동료들끼리 서로 도우며 학습한다.
발표	모든 학습자는 포착된 사회·역사적 정보와 텍스트의 사회·역사적 구조에 대한 인식을 발표한다. 교사는 소집단마다 개별적으로 그들의 성취에 대해 평가하고 피드백을 준다.
점수 산출	각각의 학습자들은 점수를 얻음으로써 자신이 속한 소집단에 기여할 수 있다. 개인별 점수의 합계가 집단 점수로 환산된다.
보상	팀별 점수를 공개한 후 점수가 가장 높은 팀, 즉 사회·역사적 정보를 가장 많이 포착하고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적 구조에 대한 인지 수준이 가장 높은 팀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위와 같은 협력 학습에서 학습자들은 다른 구성원들의 힌트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혼자서 노력하는 것보다 사회·역사적 정보를 더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에 의하여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포착된 사회·역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토론하여 인정받을 때 비로소 정확한 사회·역사적 정보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적 구조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포용적이고 친밀한 협력 학습 분위기 속에서 달성한 소집단의 성취는 곧 개인의 성취이기 때문에 학습자는 책임감과 자율성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소설 읽기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 (2) 역사적 자료 제공과 역사적 지식 검색

한국소설을 사회·역사적으로 읽으려면 텍스트와 그것이 속한 시대의 역사적 특징이 상호작용함을 알고 이로부터 텍스트 해석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제3장에서 살펴본 학습자들의 읽기 양상을 보면,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사회·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역사 지식을 동원하는 양상이 매우 저조하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한국 역사 지식을 환기해도 그것이 한국 사회·역사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텍스트의 의미를 성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수준에는 도달하기 어렵다. 대신 중국인 학습자는 자국의 역사 지식을 동원하여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에는 매우 능통하다. 그러나 자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텍스트의 편파적인 해석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자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부족한 한국 역사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와 관련된 역사 자료를 교사가 학습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학습자가 스스로 찾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는 직접 역사 지식을 찾는 이 능동적인 활동에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어떤 자원과 도구를 선택해 어떤 역사적 지식을 찾을지 스스로 결정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학습의 진도와 깊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성을 가지며 자신의 요구와 흥미에 따라 심층 탐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활동은 역사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정보 획득 및 평가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 단계는 학습자가 어느 정도의 정보 검색 기능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도서관, 인터넷 검색 엔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검색 작업이 가능하다. 서적은 보통 전문적인 역사학자가 편찬하고 검토한 것이기에 보다 신뢰할 만한 자료다. 학습자는 이러한 서적을 언제든지 읽고 참조할 수 있으며 자료에 접근하는 데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아 인터넷에 비해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서적을 찾는 것은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며 학습자는 어떤 서적의 어느 부분에 텍스트와 관련된 역사적 정보가 있는지 재빠르게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역사 서적은 최신의 관점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고 때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를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학습자가 필요한 역사 자료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는 다양한 의 역사 자료, 학술논문, 블로그 및 포럼이 있으며 학습자는 이 수많은 자료로부터 서로 다른 시각의, 풍부한 역사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얻은 역사 자료를 분석할 때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따져가며 신중하게 평가하고, 높은 신뢰도의 정보만을 선별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한정하기', '찾기', '판단하기', '추출하기', '재구성하기'의 5단계를 거친다. 학습자는 역사 지식을 찾기 전에 먼저 소설이 속한 역사적 시기를 확인하고, 자신이 알고 싶은 역사적 주제를 명확히 밝혀 학습의 명확한 방향과 초점을 찾는다. 이어서 학습자는 자신의 검색 전략과 요구에 따라 역사적 지식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역사적 자료를 찾은 후에 학습자는 자료의 주제가 텍스트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자의 자질, 출처의 신뢰성, 논거의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도 평가한다. 판단 과정을 거친 후 학습자는 소설 텍스트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료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결론을 재구성하고 자신의 역사 지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스스로 정보를 찾는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에게는 교사가 텍스트와 관련된 유용한 역사 자료를 제공해주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예컨대 제3장에서 중국인 학습자는 한옥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이때 교사가 다음과 같은 한옥 구조도 등 '문화적 요소 자료'를 제공하면 학습자는 그 시절 여성의 활동 공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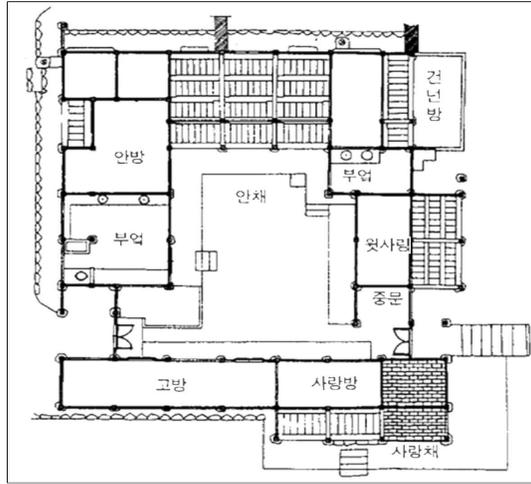


그림 1 한옥 구조도

또한 중국인 학습자가 일제 강점기의 토지 정책을 몰라 그 시절의 사회상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때 교사는 문학비평 텍스트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대 배경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을사조약〉(乙巳條約)으로 사실상 한국의 주권을 빼앗은 일본은 1909년 동양척식회사를 세워 그들의 독점자본을 동원, 한국의 토지를 강점했다. 을사조약 이후에는 조선통감부(朝鮮統監府), 한일합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농간으로 한국 농민의 자작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반대로 소작율은 날로 늘어났다. 역둔토란 한말까지 역에 딸린 땅, 역도와 군대의 군량이나 관청의 경비에 쓰도록 지급된 땅, 둔토를 일컬었는데 일제 때는 국유지의 별칭으로 쓰였다. 그 전의 국유지 소작료율은 2분의 1보다 낮은 3분의 1이 지배적이었지만 일제하에 와서 일반 소작지와 같은 2분의 1로 인상 되었다. 거기다 지주측은 소작인과의 직접 접촉이 성가스럽다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중간 소작인을 내세워 소작인들의 소작료율은 7-8할 또는 이상까지 올라갔다.<sup>140)</sup>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교사가 학습자에게 역사 자료를 제공하는 것

140) 장량수, 「현진건 단편 고향의 항일문학적 성격」, 한국문학논총, 제15권, 1994, 303쪽 참조.

은 그 자료를 수동적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어진 자료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면서 정리할 수 있게 하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료의 관점을 자신의 관점과 대조함으로써 학습자는 보다 주체적인 읽기 활동을 하도록 한다. 또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역사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가 자료에 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는 항상 학습자에게 독립적인 사고를 하도록 상기시켜야 한다. 학습자에게 권위를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학습자료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장려하며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도록 돕는다. 또한 교사는 적재적소의 발문을 통해서 학습자가 깊이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학습자가 스스로 역사 자료를 찾는 것은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한국 역사에 대한 흥미를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는 정보의 신뢰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부정확한 역사 서술에 의해 잘못된 이해가 생기면 텍스트 해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학습 시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반면에 교사는 학습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역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교사가 모든 자료를 한정적으로 제공하게 되면, 학습자의 주도성은 제한되고 능동적으로 탐구할 동기가 부족해진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최적의 교육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능력과 지식수준, 교육 목표 및 시수 제한, 학습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 (3) 핵심 질문을 통한 텍스트와 사회·역사적 지식 비교

제3장을 보면, 중국인 학습자는 사회·역사적 정보를 취합하여 소설 내의 사회·역사적 구조를 구성한 후 텍스트 해석의 실마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적 맥락을 동원하여 소설을 이해하려 해도 한번에 텍스트 해석과 역사 인식의 심화를 이뤄내기는 쉽지 않다. 따

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더 원활하게 텍스트의 깊은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는 비계를 제시해야 한다. 이때 교사는 핵심 질문을 제공해 학습자가 텍스트를 자신의 사회·역사적 지식과 비교하여 둘 사이의 연관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텍스트의 의미와 역사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현대소설 교육에서 중국인 학습자는 스스로 역사 지식을 구성하고 수정하며 사회·역사적 이해에 도달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설명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신 질문을 통해 '사회·역사적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 질문이 바로 '핵심 질문(essential question)'이다.<sup>141)</sup> 핵심 질문은 학습자의 사고와 탐구를 활성화하여 중요한 개념과 과정을 이해하도록 돕고, 배운 바를 학교 안팎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자발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핵심 질문이 학습자의 텍스트 이해를 돕는 촉매제인 만큼 학습자가 텍스트의 사회·역사적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교육적인지는 교사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윤현비는 작품을 읽는 목적과 자세에 따라 원심적 질문과 심미적 질문을 구분해 던져볼 수 있다고 요약한 바가 있다.<sup>142)</sup> 심미적 질문 중의 경험과 관련된 질문은 중국인 학습자의 사회·역사적 구조 이해에 계기를 제공해준다. 곧 심미적 질문은 자신이 겪은 온갖 경험들을 작품 속의 내용과 관련지어 생각해봄으로써, 내면의 울림을 통해 의미 재구성을 하는 질문이다.<sup>143)</sup> 이런 질문 유형을 중국인 학습자의 사회·역사적 구조 이해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예들이 제시될 수 있다.

141) 맥타이와 위긴스(Mctighe,J.&Wiggins,G)는 핵심 질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가 있다. ①지속적인 사고와 탐구를 자극하는 질문이다. ②더 많은 질문을 제기한다. ③토론과 논쟁으로 이어진다. ④해당 단원(해당 학년)의 학습 기간에 질문을 반복한다. ⑤타당한 근거와 증거를 요구한다. ⑥'대답'은 이해의 깊이에 따라 바뀔 수 있다. Mctighe,J.&Wiggins,G,*Essential questions : opening doors to student understandings*. 정혜승·이원미 역, 『핵심 질문: 학생에게 이해의 문 열어주기』, 서울:사회평론, 2016, 42-43쪽.

142) 윤현비, 「문학 감상 수업의 질문 양상 분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33-35쪽.

143) 윤현비, 위의 글, 34-35쪽.

- ① 그때의 한국 역사에 대해 이미 알고 있던 것이 있나요? 있다면 그때의 한국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요?
- ② 중국에서도 이런 역사 현상이 있나요? 있다면 그때의 중국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 ③ 소설을 읽고 나서 알게 된 역사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역사가 어떻게 같거나 다른가요? 서로 달랐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④ 나의 관점과 친구의 관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친구의 관점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위와 같이 텍스트와 학습자의 사회·역사적 지식을 연계하여 비교하게 하는 핵심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는 텍스트와 기존의 인식을 왕래하며 더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는 핵심 질문을 통해서 텍스트와 사회·역사적 지식을 비교할 때 단순히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차이가 생긴 원인을 규명하고 기존의 역사 감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이해의 양상을 밝히고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한국 현대소설 교육에서는 역사 지식이 교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간략화되어 학습자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경우, 역사는 배경으로 제시될 뿐이고 텍스트를 단순한 역사의 반영으로 해석하게 돼 학습자는 역사와 문학의 상호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능동적인 사고력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 현대소설 읽기 교육에는 학습자의 주체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방안이 필요하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사회·역사적 맥락 중심의 한국 현대소설 교육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먼저 사회·역사적 맥락을 재개념화하였다. 언어의 의미는 맥락 속에만 존재하므로 맥락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기존의 사회·역사적 맥락은 같은 사회 또는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신념, 태도, 문화적 규칙 등 추상적인 구성물이라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 정의에는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지 않고 단지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역사적 맥락을 소설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신역사주의의 논의를 참고하면 문학과 역사는 ‘반영함과 반영됨’이라는 소박한 관계라고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역사적 맥락이 특정 시대에 같은 문화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주체들이 공유하는 사회·역사적 상황, 가치와 신념, 이데올로기, 관습, 문화적 규칙 등 추상적 구성물이 텍스트를 통해 내·외적 맥락과 상호소통하여 재구축된 결과물이라고 다시 개념화하였다. 다음에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원리를 크게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적 정보의 포착’, ‘텍스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소통’, ‘텍스트 의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재구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현대소설 이해 양상을 분석하였다.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적 정보의 포착’ 양상에서는 ‘언어적 수준의 사

회·역사적 정보’, ‘언어 외적 수준의 사회·역사적 정보’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는 텍스트를 통해서 일정한 사회·역사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역사 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소설의 의미 해석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텍스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소통’ 양상에서는 ‘거시 한국 역사와의 조화’와 ‘자국 역사와의 비교’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텍스트 내의 미시적인 역사 정보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거시적인 한국 역사 인식에 종속되는 경우 중국인 학습자는 텍스트와의 거리를 좁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시 한국 역사와 어긋난 미시 역사 정보를 포착하는 경우 중국인 학습자에게 충돌이나 갈등을 일으켰다. 이런 경우에는 학습자가 단순히 불일치한 점을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텍스트 의미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재구성’ 양상에서는 ‘사회·역사에 대한 재인식’, ‘텍스트 의미에 대한 재구성’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인 학습자는 텍스트를 내면화하는 단계에서 구성된 한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여전히 거시적 차원에서 이해하거나 타국의 역사를 성찰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도 했다.

중국인 학습자가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소설을 이해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그들이 겪었던 한계도 살펴보았다.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사회·역사에 대한 지식 부족, 현 사회·역사의 시각의 과도한 의존, 거시 한국 역사의 절대적 적용 등의 이유로 소설을 읽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소설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설계하였다. 먼저 교육 내용으로는 ‘텍스트의 사회·역사적 구조 인지’, ‘관련된 사회·역사적 지식을 재구성’, ‘비교를 통한 텍스트 해석과 역사 감각의 심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방법으로는 ‘협력 학습을 통한 텍스트 내의 사회·역사적 정보 파악’, ‘역사적 자료 제공과 역사적 지식 검색’, ‘핵심 질

문을 통한 텍스트와 사회·역사적 지식 비교'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소설교육에서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소설을 이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습자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확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 인식을 구축하고 통합적인 역사 감각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역사와 문학 이해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수업 과정까지는 구성하지 못했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수업 과정을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 논저

- 강소영, 「시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법 연구-역사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한국문예창작학회, 제15권, 2016.
- 강혜원, 「현대소설을 통한 문학-역사 교과와의 융복합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공임순, 『우리 역사소설은 이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책세상, 2000.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김금숙,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 목표와 수업 모형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김대행,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학」, 『한국어 교육』 4, 2000.
- 김리안, 「〈사랑손님과 어머니〉에 함의된 주요섭의 작가의식 연구」, 『한민족어문학』 80호, 2018.
- 김봉순, 「읽기교육에서 텍스트 의미 추론의 이론과 실제」, 『텍스트언어학』 38호,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5.
- 김은정, 「문학과 사회 관계에 대한 한 고찰」, 『한국말글학』 30호, 2013.
- 김정자,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로명완 외, 『국어과교육론』, 갑을출판사, 1998.
- 박영신, 「기억과 자기이해」, 『현상과 인식』 34권 3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0.
- 박유현, 「소설 읽기에서의 맥락 구성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박윤용, 「한·중 소설 비교를 통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 대상 한국 소설교육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박정애, 「일제의 공창제 시행과 사창 관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반소현, 「맥락 중심 문학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범충,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양보 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 공지영의 <즐거운 나의 집> 원문 및 중역본을 활용하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신윤경, 「문학을 활용한 일제 강점기 역사문화 교육-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7권, 2010.
- 안미란, 「한·중비교를 통한 한국어 문학교육방안 연구-〈사랑손님과 어머니〉와 〈공을기〉를 중심으로」, 『계레어문학』 5(1), 계레어문학회, 2013.
- 안재란, 「개별 논문: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소설 읽기 지도」, 『독서연구』 22호, 2009.
- 오영동,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인과 표현 교육 방안 연구 -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원본 및 중역본을 활용하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왕녕,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반한 한국 현대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왕효, 「사회문화적 맥락을 활용한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읽기 교육 방안 연구 - 루쉰의 <축복>과 비교하여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5호, 2022.
- 우가관, 「현대소설을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 교육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유사우,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 표현 교육방법 연구 - 소설 <즐거운 나의 집> 원본 및 중역본을 활용하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유충, 「시를 활용한 한국어 역사문화 교육 방안」,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윤여탁, 「한국어 교육에서 현대 문학 정전 연구」, 『국어교육연구』 10호, 2002.
-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 교육』, 한국문학사, 2007.
- 윤영, 「외국인을 위한 한국소설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윤현비, 「문학 감상 수업의 질문 양상 분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나, 「학문 목적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소설을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이명섭 편, 『세계문학비평용어사전』, 을유문화사, 1985.
- 이상, 김주현 편집, 『날개: 이상 단편선』, 문학과지성사, 2005.
- 이상구,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이상구, 『구성주의 문학 교육론』, 박이정, 2006.
- 이상섭, 이선영 편, <역사주의비평의 방법>,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제』, 삼지원, 1983.
- 이상우 외, 『문학비평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5.
- 이준영, 「한국어 문화 교육을 위한 근대 문학 작품 연구-친일과 일제강점기 시대 문학을 중심으로-」, 『역사와융합』, 바른역사학술원, 12호, 2022.
- 이평전,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한 소설교육의 가능성」, 『語文論集』 66호, 2016.
- 임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상호문화적 한국 현대시 교육 연구 : 사회·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장량수, 「현진건 단편 고향의 항일문학적 성격」, 한국문학논총, 제15권, 1994.
- 장정숙, 「한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 단편소설 선정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장춘매, 「한·중 소설의 비교를 통한 한국어 소설 이해 교육방안 연구-〈운수좋은날〉과 〈낙타상자〉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1, 한·중 인문학회, 2009.
- 정문성, 『협동 학습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2006.
- 조홍련,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의 현대소설 활용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주선자, 「한·중 소설 비교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주요섭, 權赫律 편역, 『사랑손님과 어머니』, 길림대학교출판사, 2010.
- 최인자, 「문학독서의 사회문화적 모델과 ‘맥락’ 중심 문학교육의 원리」, 『문학교육학』 25호, 2008.
- 한명숙, 「문학인지 발달과 이야기 감상교육」, 『문학교육학』 11호, 문학

- 교육학회, 2003.
- 현진건, 權赫律 편역, 『고향』, 길림대학교출판사, 2010.
- 황결, 「한국 현대소설을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문학 통합교육 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2. 국외 논저 및 역사

- B. Croce, *History: Its Theory and Practice*, 이상신 역, 『역사의 이론과 역사』, 1981.
- B. Thomas, *New Historicism*, Kulturpoetik und das Ende der amerikanischen Geschichte, 1991.
- D. Sperber, D. Wilson,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Basil Blackwell, 1986.
- F. Jameson, *The Political Unconscious: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 F. Lentricchia & T. McLaughlin, *Critical Terms for Literary Stud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 Gillbert, N. J. & Driscoll, M. P., Collaborative knowledge building: A case study,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50(1), 2003.
- H. Aram & Veese, *The New Historicism*. New York: Routledge, 1989.
- Hartman, D.K, *8 Readers Reading: The Intertextual Links of Able Readers Using Multiple Passages*,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1991.
- J. Collie & S. Slater,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J.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The Middle Works* Vol.9, 1980.
- K. Marx,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Okonomie*, 김호균 옮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서울:그린비:gB, 2007, 8-9쪽.
- Lentricchia et al, *New historicalism*, 김옥수 역, 『신역사주의론』, 한신문화사, 1994.

- Louis A. Montrose, Of Gentlemen and Shepherds: The Politics of Eliza-bethan Pectoral Form, *ELH* Vol.50 No.3, 1983.
- M.A.K. Halliday & R. Hasan,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Deakin University Press, 1989.
- M.A.K. Halliday, The Notion of Context in Language Education, In M.Ghadessy (ed.), *Text and context in functional linguistics*, John Benjamins Publishing, 1999.
- Mctighe.J.&Wiggins.G,*Essential questions : opening doors to student understandings*, 정혜승·이원미 역, 『핵심 질문: 학생에게 이해의 문 열어주기』, 서울:사회평론, 2016.
- P. Hamilton, *Historicism*, New York: Routledge, 1996, 임옥희 역, 『역사주의』, 동문선, 1997.
- R. Scholes, *Textual power*, 김상욱 역, 『문학이론과 문학교육: 텍스트의 위력』, 하우, 1995.
- S. Greenblatt & G. Gunn, *Redrawing the Boundaries : The Transformation of English and American Literary Studies*,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992.
- S. Greenblatt, Further reading, Introduction hi:Genre, 1982.
- S. Greenblatt, *Renaissance Self-Fashioning: From More to Shakespea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S. Greenblatt, Resonance and Wonder, *Bulletin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Vol.43 No.4, 1990.
- W.Booth, *The Rhetoric of Fiction*, 최상규 옮김, 『소설의 수사학』, 서울: 예림기획, 1999.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16.
- 劉森林, 「新歷史主義的文學觀」, 海南大學學報, 01, 1997.
- 南燕, 「中國的韓國文學教育現狀與文學教育體系的重建」, 『當代韓國』 01,2022.
- 張京媛, 『新歷史主義與文學批評』,北京大學出版社, 1997.
- 盛宁, 『文學: 鑒賞与思考』,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1997.



<Abstract>

# A Study on the Education of Modern Korean Novels for Chinese Learners

- Focused on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

Liu, Yaxi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rinciple of reading Korean modern novels from a new historical perspective for Chinese high-quality Korean learners, and based on this, it aims to present the goals of Korean modern novel reading education that can fully function and play the role of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was first reconceptualized from the perspective of neo-historicalism. The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is the result of the reconstruction of abstract components such as social situations, values and beliefs, ideologies, customs, and cultural rules shared by subjects living in the same cultural community at a specific time by interacting with internal and external contexts through text. Focusing on the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composition process of Chinese learners, this study set the

principles of reading contemporary Korean novels centered on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as 'capturing social and historical information in text', 'communication between text and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and 'reorganization of text meaning and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In addition, it was considered that modern Korean novel education centered on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has educational significance in that it enhances pluralistic and open text understanding, forms a new perce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and history, and explores the contemporary value of text.

This study conducted an experiment on Chinese advanced Korean learners. Prior to the experiment, 'works that can arouse the interest and motivation of Chinese learners with abundant social and historical information', 'works that fit the language level of Chinese learners', 'works that deal with universal topics', 'works that become authentic in literary history', 'short stories with appropriate difficulty and amount' were selected. The experiment focused on what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Chinese learners use in the process of reading modern Korean novels, how to communicate with text, and how to reconstruct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through novels. Subsequently, Chinese learners' understanding of modern Korean novels centered on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was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First, in the aspect of 'capturing social and historical information in the text', learners used linguistic and non-verbal information in the text. Next, in the aspect of 'communication between text and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learners talked with the text while reflecting macroscopic Korean history and national history. Finally, in the aspect of 'reorganizing text meaning and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learners responded by integrating communication results to reconstruct their perceptions of society and

history, giving the text a new meaning.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negative understanding patterns of learners, the difficulties that Chinese learners face in understanding modern Korean novels centered on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were presented as 'lack of knowledge of Korean society and history', 'excessive dependence on the perspective of current society and history', and 'absolute application of macro Korean history'.

Based on the analysis of learners' aspects, this study devised the goals, contents, and methods of modern Korean novel education centered on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First, it aims to allow Chinese learners to read modern Korean novels from a social and historical perspective and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Korean history. The contents of modern Korean novel education centered on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were presented as 'recognition of the social and historical structure of the text', 'reorganization of related social and historic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ext and deepening of historical sense through comparison'. Methods of modern Korean novel education centered on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were presented as 'understanding social and historical information in text through cooperative learning', 'providing historical data and searching historical knowledge', and 'comparison of text and social and historical knowledge through key ques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overcoming the difficulty of understanding novels centered on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in modern Korean novel education and expanding learners' subjectivity and activism. Furthermore, it can be evaluated as effective in helping learners build new historical awareness and form an integrated historical sense, and enhancing their ability to understand history and literature.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it cannot organize a

class course that can be conducted in the actual educational field.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modern Korean novels, new historicism, contextual communication, contextual composition.

**School number:** 2020-27083